현대불교 안전하고 편리한 구독신청
전화 한통화로 해결하십시오
●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 · 자동이체 신청 ●
직통 (02)737-0090 대표 737-8881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구독신청 02)737-0090 · 대표 02) 737-8881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8년 (서기 2004년) 8월 11일(음력6월 26일) 수요일 (주간) 제486호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제주도 · 중국전문 성지순례 여행사
(주)행복만선
Tel. 02)720-8489

불교발전 여력(女力) 있다

불교여성개발원, 조직정비 · 교육강화 · 전국 네트워크 구축

불교여성개발원(원장 이인자)이 여성불자 108인 선정, 세계여성불자대회의 조직적인 홍보, 텐진 빠모 스님의 강연회 개최 등 굵직한 사업들을 성공리에 회향하면서 활동에 돛을 달기 시작했다.

사무국장과 연구과장 등 2명에 그쳤던 실무진을 보강하며 내부 조직정비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을 비롯해, 자체 설문조사 분석을 체계화하면서 여성불자 네트워크에 기반한 실질적인 포교활동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포교원 산하기관으로 '혼인준비교실' 등의 정기사업에 머물렀던 소극적인 활동에서 벗어나 명실공히 재가여성불자들을 이끄는 우바이 대표그룹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다.

불교여성개발원은 지난 해 말 전국의 여성불자 6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성불자 의식조사' 분석을 토대로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했다. 신행활동에 가장 큰 걸림돌로 조사된 가사 · 육아 문제, 불교에 입문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30대 여성불자들의 활동부진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향후 개설 프로그램에 반영하겠다는 생각이다. 특히 여성불자들의 수행욕구가 다양한 연령대에 걸쳐 가장 높이 나타난 것에 주목해 일반 사찰의 프로그램과 구분되는 전문적인 교육과정 고안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기존 교육 사업의 발전적인 확대 방안 준비도 한창이다. 매년 두 차례씩 마련하는 '혼인준비교실'의 모범적 운영사례가 부각되면서 서울시는 강좌를 세 차례로 확대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최근에는 서울시가 주관하는 '양성평등한 직장만들기' 사업에 선정돼, 오는 9월부터 중앙종무기관 종사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내부 실무진들을 중심으로 꾸리고 있는 '승만경 읽기 모임'을 일반인에게 확대할 계획도 검토 중이다.

또한 각계각층 여성불자 108인을 선정한 이후 지역의 여성불자 조직망을 구축해 자체적 역량결집과 소통망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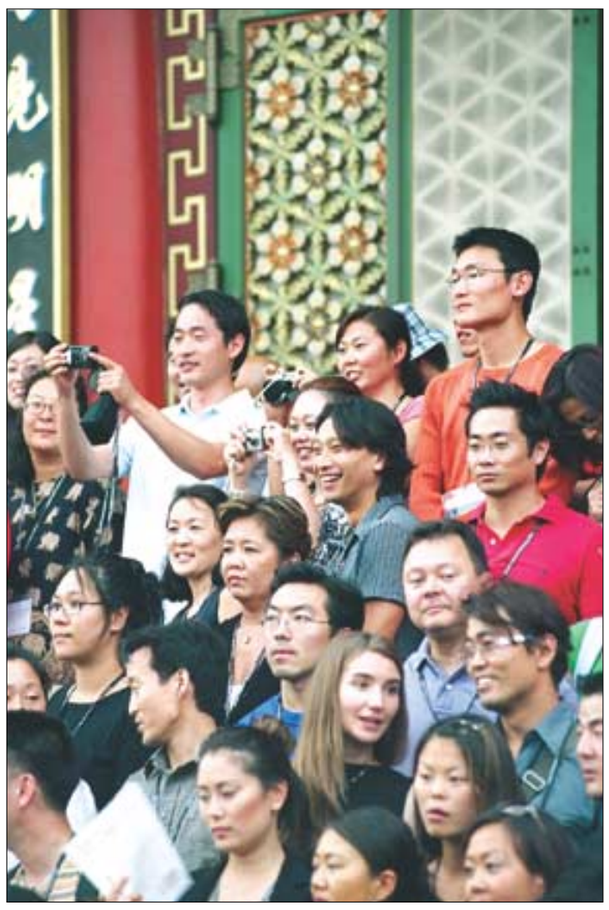
실제로 이들 108인은 지난 세계여성불자대회 당시 인적 네트워크에 기반, 지역 내 사찰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한 홍보에 일익을 담당했다.

부산지역 여성불자 108인의 경우 불교여성개발원을 매개로 하여 연초에 한 차례 모임을 갖고 여성불자 연대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격년에 한 번씩 여성불자 108인 선정 사업을 지속하는 문제도 검토 중이다.

불교여성개발원 이화 사무국장은 "전국에 포진된 여성불자 108인의 인적 네트워크와 8월 15일 개통되는 홈페이지 등을 매개로 불교여성개발원의 사업을 확대 · 조직화할 방침"이라며 "여성불자들의 신행욕구와 사회적 역할 실천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강신재 기자 thatiswhy@buddhapia.com



모국의 사찰에서… 천태종(총무원장 운덕)이 제3차 세계한인입양인대회 참가차 모국을 찾은 각국의 해외입양인 430여 명을 초청, 8월 5일 서울 우면동 관문사에서 한국불교 체험행사를 열었다. 이들은 4시간여 동안 환영행사와 저녁 공양에 이어 작법무와 택견, 민속예술단의 공연을 지켜보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관련기사 11 · 20면 사진=고영배 기자

'암자 1번지' 답게…

재정공개 · 공의운영 · 선풍진작 등 '혁신 방안' 내놔

해인사 원당암

해인사 산내 암자 중 가장 먼저 건립되었다고 해서 '암자 1번지'로 불리는 원당암. 조계종 前 종정 혜암 스님이 주석하며 선풍을 높였던 곳이기도 한 원당암이 재정공개, 공의에 의한 사찰 운영, 선 수행 풍토 진작 등을 통해 '최고의 도량'이 되겠다고 나섰다. 한마디로 사찰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원당암 내에 연구실을 두어 합리적인 사찰운영과 시대에 맞는 포교 및 수행 방법을 마련할 방침이어서 산사의 암자가 불교계에 일으킬 신선한 바람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핵심은 투명한 사찰운영. 지난 6월부터 원당암 원주 소임을 맡은 진각 스님은 종무원 포교국장을 지냈던 경험을 바탕으로 원당암 운영에 투명한 결재시스템을 도입하여 수입과 지출 일일보고서를 작성하는 한편 매월 회보를 통한 사찰 수입과 지출의 회계 공개를 약속했다.

진각 스님은 "결재시스템이 처음에는 좀 복잡하고 번거로워 보이지만 오히려 공감대를 형성한 결재 체제가 훨씬 합리적이고 능률적이며, 대중화합과 사찰운영에 있어 올바른 기틀이 된다"고 말했다.

조계종 前 종정 혜암 스님의 사상과 업적을 기리는 선양사업도 '혜암 스님 선양사업 추진 위원회'를 조직 추진한다.

문도는 물론 재가 유발상좌 등 사부대중이 두루 참석하여 공의에 의해 매사를 진행할 것을 밝힘에 따라 문집편찬 사업, 사리탑 건립과 사진첩, 비디오, 영상물 제작 등이 속속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원당암은 시대에 맞게 대중에게 다가서는 포교 및 수행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로의 회향을 통한 상생의 삶을 강조하면서 그 방안도 연구하고 있다.

우선 눈길을 끄는 것은 문서포교지로 활약하게 될 회보 <달마선원>. 8월 창간호로 발행된<달마선원>은 8면으로 혜암 스님 법어를 비롯해서 원당암의 소식을 담고 있으며, 앞으로 재미있는 내용을 기획, 증면 발행하여 청소년들이나 일반인들에게 다가갈 예정이다.

12월부터는 수련원장의 소임을 두어 체계적인 수련프로그램을 기획하여 100명 수용가능한 수련원에 템플스테이를 상설화할 계획도 있다.

선 수행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를 감안해 서울, 대구 대전, 안동, 마산, 창원, 거창 등에 재가수행자들을 위한 선원도 잇따라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 원당암은 어린이집, 유아방의 운영과 사회 어려운 사람에게 회향할 수 있는 사업추진도 고려 중이다. 또한 스님들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거창이나 합천읍내에 원로스님을 모실 복지공간 건립도 구상하고 있다.

진각 스님은 "사찰은 스님과 불자, 국민 모두가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돼야 하며, 원당암의 모든 계획은 이런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해인사 원당암=배지선 기자

석 · 목조 문화재 종합관리책 절실

정부합동점검반, 관리부실 29건 파악

석조 및 목조 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문화재종합관리계획의 수립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7월12일부터 23일까지 국무총리실 '정부합동점검반'이 전국 32개 시 · 군지역의 주요 석 · 목조 문화재를 대상으로 관리 실태를 표본 점검한 결과 18개 시 · 군 29건의 문화재에 대한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8월 3일 문화재별 특성 및 상태에 따른 유지보수, 매뉴얼 작성 등 문화재종합관리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토록 문화재청 및 시 · 군에 촉구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양주 회암사지 쌍사자 석등(보물 제389호)은 부실 보수공사로 보수부분 일부가 탈락된 채로 방치돼 있으며, 담양 개선사지 석등(보물 제111호)은 지주석 보수공사 부실로 지주석이 파손돼 있다.

또 부여 무량사 5층 석탑(보물 제185호), 구례 논곡리 3층 석탑(보물 제509호) 등은 석탑이 기울어져 훼손이 우려되는 상태이고, 제천 장락동 7층 모전 석탑(보물 제459호), 창녕 술정리 동3층 석탑(국보 제34호) 등은 수풀 속에 방치돼 보호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창녕 술정리 동3층 석탑은 혜일 스님(창녕 관음정사 주지)과 향토사학자들의 보존노력 결과 탑 주변정비 공사 여건이 마련됐으나, 군청이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없이 공원화 계획 및 도로 건설을 강행해 문화재 훼손이 우려가 큰 곳이다.

합동점검반은 부실관리의 원인을 △문화재별 관리 · 보수 연혁 정리 미흡 △문화재 관리 매뉴얼 부재 △문화재관리 전담인력 부족 및 전문성 부족 △현상 유지 목적의 보수 등으로 진단하고, 이에대한 대책으로 △문화재종합관리계획에 입각한 체계적 관리 유도 △지속적인 실태조사 실시 등을 제시했다. 박익순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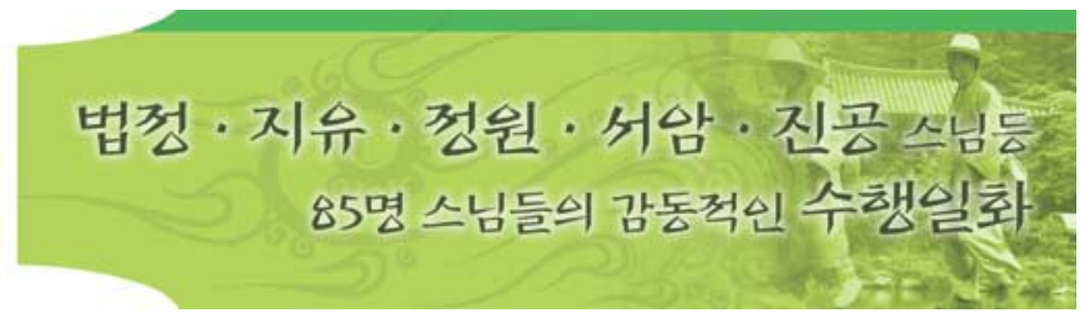
그림 · 조태호

정관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12, 13면에서 만나세요)

여름휴가관계로
금주 24면 발행

수요일은 1080 누르고 福 짓는날!
우리이웃
전국어디서나 일반전화 · 휴대폰으로
1080 누르면 '관음손'이 됩니다
나눔의 손잡기 기금모금
ARS:060-700-1080





스님 요즈음 뭘 하십니까

수행자로 사는 보람과 기쁨, 스승과 도반들과의 따뜻한 인연 등이
정운 스님 특유의 맑고 정감 어린 문체에 실려 잔잔하게 표출된
이책을 읽노라면 문득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고 싶어진다.

"종교는 내 속에 잠재돼 있는 에너지의 방향전환이다. 또 비우는 연습이다.
현실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다 인정하고 방향을 전환한다면 이보다 더 멋진 생활이 있을까 싶다."

- <스님 요즈음 뭘 하십니까> 中에서



여시아문
www.yosiamun.com 종로구 견지동 110-33 Tel : 02)737-0695 Fax : 02)737-0696

스님이야기

최근 발간된 '스님이야기'는 지묵 · 효림 · 현진 스님 등이 수행길에서 만난 스님 85명의 일화를 소개했다. 엄숙함의 베일을 걷고 보아도 수행자로서 고결한 자세와 인간미가 도드라진다.

- 조선일보

합천 해인사 주지이면서도 절 주변을 돌며 관광객이 버린 담배꽁초와 휴지를 주웠던 지월 스님, 코피 나도록 얻어맞아도 상대방에게 주먹질을 하지 않았던 무술 고수 대오 스님 등 다양한 수행승 이야기가 진솔하게 펼쳐진다.

- 동아일보

지묵 · 허주 · 수완 · 정운 · 원옥 스님 등 15명의 스님이 필자로 나서 『무소유』의 저자 법정 스님, 전형적인 학자풍의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 스님, 20여 년 가까이 장좌불와, 오후불식을 해오고 있는 지유 스님 등 곁에서 지켜본 스님들의 수행 모습을 솔직담백하게 독자들에게 전하고 있다.

- 연합뉴스



큰스님 법어는 너무 어려워요

1년에 몇 차례 불교계 신문과 중앙일간지에 실리는 큰스님들의 법어는 우리 불자들의 가슴을 뿌듯하게 해준다. 혼탁하고 어수선한 세속의 바람 속에서 푸른 산, 맑은 물처럼 살아가는 수행자를 만나기가 어디 쉬운가?

게다가 그 수행자가 바로 내가 믿는 종교의 큰 어른이시니 회색 가사를 입은 스님 사진을 보기만 해도 흐뭇해지는 불자는 나뿐만이 아니리라.

그러나 법어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사정이 좀 달라진다.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워 솔직히 공감이 가지 않는다.



깨달음의 경지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니 그 은근한 맛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그리고 나와 같은 인간뿐만 아니라 우주계에 퍼져있는 모든 생명체를 대상으로 말씀을 하시니 너무 낯설게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다.

설상가상으로 한시(漢詩)로 내려주시면 한자를 공부하여 그 깊은 문자의 맛을 본 사람이 아니고서야 더더욱 생경하기만 하다.

분명 불교계 신문과 중앙일간지에 실린 것으로 보자면 법어라는 것이 세속의 인연을 모두 끊고 치열하게 수행하는 선승만을 위한 말씀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법어를 대하면 왠지 그분들만의 세계에서 통하는 암호인 것만 같아 섭섭하다. 큰스님들의 법어가 가슴 뭉클하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것이다.

지금 부처님의 가르침이 필요한 사람은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떨려난 가장, 내 가족의 행복만 전부라고 생각하는 주부, 성적이 오르지 않아 자살을 결심하는 청소년, 병석에 누워 죽음 저 편의 세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환자, 아무리 소유해도 만족할 줄을 모르는 어리석은 부자, 그리고 무수한 사람을 죽여 놓고는 어떻게 참회해야 할지 몰라 오히려 더욱 성을 내고 있는 범죄자 등 불쌍하기 그지없는, 2004년도를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인 것이다.

물론 일일연속극의 대사처럼 뻔하고 쉬운 내용이 아니면 아예 알아볼 마음조차 내지 않는 우리 불자들도 반성을 해야 한다.

하지만 '스승님 가르침처럼 훌륭한 말씀은 천박한 언어가 아니라 우리 바라문들이 쓰는 고상한 언어로 전해져야 한다'고 건의하던 두 비구를 그 자리에서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하신 부처님의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문투 법어 대중적이해 곤란
쉬운 우리말글로 큰 가르침을…

기업체 사장이 직원들에게 "이번에 ○○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듯이…"라고 소개하거나 할머니가 손주를 달래면서 "큰스님 말씀처럼 우리 ○○도 훌륭한 사람 되어라"라며 큰스님의 법어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오르내린다면 얼마나 좋을까.

불자는 물론이요 불교를 비난하거나 무관하게 살아가던 사람들 까지도 모두다 '아, 불교는 이걸 말하는 구나'하고 무릎을 탁 칠 수 있도록 큰스님들의 말씀은 이 현실에 간절하고 솔직하게 전해져야만 할 것이다.

■ 이미령(동국역경원 역경위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채수삼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교구마다 노인복지시설' 가시화

조계종 10개 본사 내년예산 반영 요청

전문인 투입·각종 편의시설 등 계획

조계종의 교구별 노인복지시설 설치사업이 최근 보건복지부 심의를 통과해 기획예산처로 이관됨에 따라 보다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기획예산처에서 정부예산안 편성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교구본사는 용주사, 신흥사, 직지사, 동화사, 은해사, 불국사, 해인사, 범어사, 고운사, 금산사 등 10곳. 이중 신흥사와 금산사는 치매치료가 가능한 실비전문요양시설로 신청해 놓은 상태다. 기획예산처를 통과하면 올 11월 국회 예산심의를 통과하는 일만 남게 된다.

이 사업은 요양기능을 갖춘 노인복지시설을 교구별로 설치 · 운영함으로써 노스님이나 거동이 불편한 스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뿐만 아니라 교구 본사 지역 내 일반 노인들도 수용해 지역포교 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노인복지시설은 교구별 실정에 맞춰 건립된다. 280평에서 300여평 규모에 50~70여명 기거가 가능하다. 건립비용 중 50%는 중앙정부, 20%는 광역자치단체, 25%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사찰 자부담이다. 운영비용은 조계종에서 펼치고 있는 '자비의 보험금 나눔 운동' 등을 통해 충당될 계획이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교구별 노인복지시설은 숙소 외에도 의무실, 물리치료실, 간호사실, 자원봉사실, 오락실 등으로 꾸며진다. 여기에는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의료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의료인 자격을 취득한 시설장과,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생활복지사, 전담 의사 또는 촉탁 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 조무사, 물리치료사, 생활지도원 등이 노스님들의 편의를 돕게 된다.

조계종은 올해부터 정부예산 반영작업을 추진해 연차적으로 24교구 본사 모두 설치할 계획이다. 말사도 건립 부지만 확보하면 설립 신청이 가능하다. 이 같은 계획이 완료되면 9백여 명으로 추산되는 조계종 원로스님들의 노후복지 뿐만 아니라 종교계 복지문화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이용권 사무국장은 "총무원, 본사, 사회복지재단 공동으로 전문간병자원봉사자를 양성할 계획"이라며 "중풍, 치매, 임종환자 간호 등에 대한 전문 교육을 받은 자원봉사자들이 적극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07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질환자와 45세 이상 노인성질환자를 대상으로 국가가 각종 서비스를 책임지는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가 실시된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수경·종광 스님 국립공원위원 위촉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수경스님(사진 왼쪽)과 경주 기림사 주지 종광 스님이 최근 국립공원위원회 신임위원에 위촉됐다. 스님들은 2006년 7월까지 국립공원 내 개발사안을 최종 심의할 민간위원으로 활동한다. 또 최재천 교수(서울대), 서지은 교수(우석대), 손재용 부위원장(북한산주민대책위원회), 강혜순 교수(성신여대) 등도 신임 위원으로 위촉됐다.

강유신 기자

몽골국립大 한국어과에 장학금

태고종, 10명에 전달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위한 해외포교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태고종도 이에 적극 가담하고 나섰다.

태고종 대표단은 7월 23일 몽골국립대학을 방문, 한국어과 재학생 10명에게 1년간의 학비를 장학금으로 전달했다. 또한 체덴담바 몽골 대통령 종교특보와 오찬을 함께하고 양국의 불교교류와 몽골불교의 현황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어 태고종 대표단은 몽골불교 지도자들과 만나 몽골불교의 활동과 승려교육 및 수행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양국 불교교류와 발전를 위해 지속적인 교류를 갖기로 합의했다. 박봉영 기자

조계종 특별분한 심사

미필·제적 말소자 대상

조계종이 분한신고 미필로 인한 직권제적자 및 승적말소자에 대해 특별 분한 심사를 올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진행한다. 신고인은 각종 서류를 첨부해 재적교구본사로 제출하면 된다. (02)2011-1701

남동우 기자

"나는 불자 - 뚜렷하게 알았어요"

1200여 청소년 속리산서 신나는 3박4일

제7회 파라미타 청소년전국연합캠프

"전국에 있는 또래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체험을 하는 동안, 가슴 속에 막연하게 자리 잡고 있던 불심(佛心)이 보다 분명하고 뚜렷해진 느낌이에요."

8월 4~7일 충청북도 속리산 유스타운. 전국에서 모인 1200여명 천진동자들은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열띤 구도열과 해맑은 웃음으로 한여름 무더위를 한껏 날려버렸다. 바로 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원택)의 푸른 마음 밝은 꿈을 위한 캠프 '제7회 파라미타 청소년 전국연합캠프'가 열렸기 때문.

이번 캠프는 각 지부별 활성화와 역량강화를 위해 지난해까지 중앙에서 격년제로 개최했던 것을 올해부터 각 지부별 순회개최 형식으로 매년 진행하기로 해 많은 관심이 집중됐다.

첫날 입재식을 시작으로 아이들은 문수 · 보현 · 관음 · 미륵 분단으로 나눠져, 담당선생님들의 지도에 따라 연꽃 만들기, 사경체험 등의 신행활동과 국립공원생태답사, 물놀이활동 등의 과정활동, 법주사 답사 및 예불 · 발우공양 체험 등의 답사활동, 모험활동, 산행 등의 산행활동 등을 시작했다.

"발우공양은 평등정신과 절약, 공동, 복덕, 공양정신 등을 함양할 수 있는 불교수행의 근간입니다."

답사활동을 위해 법주사를 찾은 아이들은 강원 학인스님들의 설명에 흐트러짐 하나 없는 자세로 체험해보며, 발우공양에 담긴 뜻을 이해하려고 애썼다.

"처음 발우공양을 해봤는데, 스님이 설명하신 그 의미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짧은 시간 동안 마음이 평온해지고 깨끗해진 느낌이에요."(조예실, 전북 금산중 3년)

같은 시간, 수련관 곳곳에서는 사경, 탁본, 전통등만들기, 가람만들기 등 신행활동과 과정활동이 펼쳐져 보다 쉽고 재미있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할 수 있도록 도왔다.


파라미타 청소년협회장 원택 스님과 함께 연등을 만들며 즐거워하는 청소년들.

특히 '참여와 화합의 벽 그리기' 행사는 아이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만남과 화합, 평화와 통일 등을 염원하며 그린 그림을 서울 청계천 '참여와 화합의 벽'에 장식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였기 때문. 삼삼오오 모인 아이들은 자연을 나타내는 8가지 색깔을 이용해 새싹과 산 · 들판 등의 자연모습, 여러 직업의 사람들이 얼싸안고 환히 웃는 모습 등을 그리며 생명의 소중함과 화합의 중요성 등을 저절로 익히고 있었다.

"지금 표현하는 세상은 이 그림처럼 손바닥만 하지만, 부처님 가르침처럼 자비와 평등이 가득한 세상으로 만들고 싶습니다."(황정은, 평택 청담정보통신고 1년)

법주사=김은경 기자

우 · 리 · 절 · 은 · 불 · 자 · 여 · 러 · 분 · 을 · 사 · 랑 · 합 · 니 · 다

곤지암 우리절

◆ 교통편
1. 강변역 → 광주 → 곤지암 1113-1
2. 잠실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1
3. 양재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2

천도재 기도도량 · 대비주 기도도량 우리절!

우리절 정기기도 · 법회

요 일	시 간	법 회 명	강의내용
매주일요일	10-14시	일요가족법회	자경문강의
매주수요일	10-15시	목련사랑법회	화엄경강의
〃	10-15시	수능자녀기도	〃
〃	10-15시	지장경독송회	〃
매주목요일	10-15시	대비주기도회	예참문강의
셋째화요일	14-17시	부산 · 동선회	주제별특강

◆ 특별기도

[1] 2005학년도 수능특별기도 :
2004년8월 8일-11월 17일(만101일간)
기도성취도량 우리절에서 마음에 뜻하신 바 반드시 이루십시오.
2004년7월 11일-8월 30일(만50일간)

[2] 천도의 명절 백중기도
2004년 7월 11일-8월 30일(만50일간)

[3] 사랑의 명절 칠석기도
2004년 8월 15일-8월 22일(만7일간)

금주의 발원

[새벽쇳송-1]
장엄스런 이종소리 온법계에 두루하여
철위산은 무너지고 유명계도 밝아져라
삼악도와 온갖지옥 그고통이 사라지고
일체중생 모두함께 바른깨침 이루어라

청정하고 거룩하신 비로자나 교주시며
연꽃으로 장엄하신 자애로운 세존께서
보배처럼 고귀하신 그 말 씀 연설하고
진주처럼 영롱하신 크신진리 펼치시니

티끌마다 들어가고 세계마다 원융하신
십조구만 오천에다 마흔여덟 글자로써
일승원교 크나크신 대방광불 화엄경에
두손모아 마음모아 지성귀의 하나이다

과거현재 미래불의 그세계를 알고픈가
법계성을 관찰하라 일체가다 유심조라

파지옥진언 : 나무 아따 시지남 삼먁삼못다
구치남 옴 아자나 바바시 지리 지리 훔

대한불교조계종 우리절 http://www.urijeol.com / 우리절.com /우리절.net 우)464-881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상림리178 전화 031)763-4674-5 / 팩스 031)763-2150

더위먹은 보수작업…신라 불상 화재

안전시설 없이 복원 작업…"문제없다" 대처 안일
소유-관리 분리된 문화재 보호체계 개선 지급

건봉사 능파교 붕괴에 이어 또다시 지방자치단체의 의뢰를 받아 정비 보수 작업 중이던 통일신라시대 석조여래좌상(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92호)이 화재로 훼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8월 2일 오전 5시께 경북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에 있던 석조여래좌상이 불에 타 하단 부분이 파손된 것을 마을주민 이석달(53)씨가 발견, 당국에 신고했다. 화재는 보수공사 도중 불상하단을 받쳐놓은 플라스틱 재질의 운반용 팔레트에 촛불이 옮겨 붙으면서 발생했다. 불상은 전신이 불에 타 오른쪽 허벅지 부분에서 오른쪽 발목까지 금이 갔고 머리위에 놓여 있던 지붕돌이 파손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경주시청 문화예술과는 지난 5월부터 오는 9월 6일까지 문화재 보수업체인 (주)한성에 석가여래좌상 주변 정리 및 복원정비 작업을 의뢰했었다.

안계리 석조여래좌상은 석굴암 본존불의 제작 양식을 그대로 이어 뛰어난 조각기법으로 인해 보물급 이상의 유물로 평가받아왔으며 지난해에는 조계종 문화부가 주변 지역 발굴조사를 실시했었다. 조계종은 발굴과정에서 석불의 좌대 상 · 중 · 하단을 복원하고 최근에 문화재 지정을 준비해왔으며 경주시도 이 일대의 복원정비 사업을 벌여왔다. 지난 5월부터 진행된 복원공사 현장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막는 안전시설을 하지 않았으며, 화재가 나기 3일전에는 보수업체가 석불을 원래 있었던 위치에서 약 1.5m 가량 옮겨 방치해 놓은 상태였다.

이와 관련 경주시측은 "원래 파손정도가 심한 유물로 문화재적 가치가 낮았다"고 평가하고 "현재 파손된 석불의 보존처리를 문화재청에 의뢰 중이라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밝혀 문화재 담당 공무원의 낮은 의식 수준을 그대로 드러냈다. 그러나 석불의 훼손상태를 처음 발견한 주민들과 경주 문화관련 단체들은 "지자체의 허술한 복원공사 현장 관리감독이 이런 참변을 불러왔다"며 경주시청과 보수업체를 함께 비난했다.

이와 관련해 조계종 문화부는 "소유권과 관리권이 국가와 지자체로 분리되어 있는 현재의 석조 문화재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한 이러한 사고는 얼마든지 재발할 수 있다"며 "문화재 보호법 개정 등 지자체의 문화재 정책에 대한 책임의식과 전문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불에 타 훼손된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석조여래좌상. 사진=배지선 기자

경주=배지선 기자 jjsun@buddhapia.com

만해마을서 세계교수불자대회

17~19일, 각국서 200여명 참석 지구촌 화합 모색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연기영)는 8월 17~19일 만해마을에서 미국, 일본, 영국, 태국, 대만, 한국 등의 교수 불자 20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세계 교수불자대회를 개최, 현대의 가치관 혼란에 대한 불교적 치유법을 모색하고 국제 화합을 도모한다.

이번 대회는 크게 학술발표(17 · 18일)와 분과토론(19일)으로 치러진다.

대회 첫 날인 17일에는 기조강연으로 커렐 워너(영국 런던대) 교수가 '불교와 평화', 츠요시 나카노(소카대)교수가 '불교교단의 정치참여의 의의와 과제', 이준(건국대) 교수가 '불교적 실상과 현대과학의 비교문화적 교감' 등을 발표한다.

둘째 날인 18일에는 '종교문명간의 대화'를 주제로 태국의 임티야즈 유세프(어섬션대) 교수가 '이슬람과 불교의 대화', 댄 러스트하우스(미주리대) 교수가 '불교 종파간의 대화' 등을 발표한다.

또 '한국불교와 종교문화'를 주제로 김은규 성공회대 교수가 '불교와 기독교, 그 상생의 길'을, 조용헌 원광대 교수가 '불교와 사주학'을, 동국대 유흔우 교수가 '신유학과 불교의 대화' 등을 발표한다.

셋째 날인 19일에는 △정치 경제문제와 불교 △현대 과학과 불교 △문화예술과 불교 △사회 · 교육문제와 불교 △여성문제와 불교를 주제로 분과토론이 열린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오현 스님(백담사 회주) 법문, 아침 · 저녁 예불, 참선, 불교예술 공연 등이 프로그램에 포함돼 외국의 교수 불자들이 한국 불교의 신행 및 문화를 자연스레 접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18일 학술발표회를 마친 후에는 아시아교수불자연합이 창립될 예정이다. (02)720-6618

박익순 기자

지율스님 단식 40여일 '건강 위험'

무더위 속 사투 불구 정부 무관심 일관
불교계 '천성산 환경평가 재실시' 건의


8월5일 호남 · 제주지역 조계종 본사 스님들이 청와대 앞 지율 스님(맨 오른쪽)을 방문했다.

지율 스님의 청와대 앞 단식 시위가 40일을 넘어서면서 스님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이에 따라 불교계에서는 '도롱뇽 소송인단 100만인 서명 범불교 운동본부' 구성에 박차를 가하는 등 '천성산과 지율 스님 살리기'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 사태에 대해 수수방관하는 초기의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6월 30일 시작된 지율 스님의 청와대 앞 단식 시위가 8월 8일로 40일째를 넘어서면서, 천성산 고속철도 공사 중단을 위한 스님의 정진도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스님은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후 40일을 넘긴 단식 두 번을 포함해 120여 일째 단식을 하고 있다.

단식이 40일을 넘으면 자칫 목숨을 잃는 위험을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지율 스님은 현재 간장을 섞은 물만을 마시며 무더운 길 한복판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 스님은 "천성산 문제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생명을 경시하고 폭력적으로 대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단식을 하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책임을 결코 놓지 않겠다"는 결연함을 보였다.

스님의 단식이 한계 상황에 이르면서 천성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불교단체들의 발걸음도 한층 바빠지고 있다. 불교환경연대, 중앙신도회, 참여불교재가연대, 인드라망생명공동체 등 불교단체들은 8월 3일 '도롱뇽 소송인단 100만인 서명 범불교운동본부'를 구성하기 위한 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키는 한편, 같은 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을 방문해 천성산 구간 공사 중단과 환경영향평가 재실시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조계종 호남 · 제주지역 교구본사인 금산사 백양사 화엄사 송광사 대흥사 관음사 선운사 소속 주지 스님들도 8월 5일 지율 스님을 지지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로써 조계종 사찰 주지 스님 전원이 지율 스님의 단식 시위에 뜻을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해외에서도 뉴질랜드 유학 중인 이승욱 씨 등이 7월 30일부터 외국인과 한인 동포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에 동참을 요청하는 영문 메일을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8월 4일 청와대를 관람하겠다고 찾아온 '도롱뇽의 친구들'의 진입을 강제로 막았을 뿐만 아니라, 지율 스님에게 "공사 진행에 관해 이야기가 다 끝났다"는 입장을 비서관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사고 있다.

강유신 기자

문광부 추천도서에 불서 선정

<시공불교사전> <원효 철학 에세이>, <한국의 불상조각> 등이 '2004 문화관광부 추천도서'에 선정됐다.

문화관광부는 학술출판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해 선정하고 있는 '2004 문화관광부 추천도서-학술부문'에 어학, 사회과학, 종교 · 철학, 역사, 문화일반 · 문화재 등 9개 분야 250종의 책을 8월 5일 선정 발표했다.

분야별 불교 관련 서적으로는 종류 · 어학 분야에 <시공불교사전>, 종교 · 철학 분야에 <동양종교와 서양사상> 등이 선정됐다. 또한 역사 분야의 <티베트와 중국의 역사적 관계>, 예술 분야의 <한국의 불상조각> 문화일반 · 문화재 분야의 <한국의 당간과 당간지주>도 추천도서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www.mct.go.kr

여수령 기자

불서읽기모임 모니터요원 모집

독서를 통해 불교를 배우고 생활화하기 위한 불서 읽기 모임 '붓다와 떠나는 책 여행'은 10월 정식 출범을 앞두고 불자들의 독서 취향과 모임 운용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모니터 요원을 모집하고 있다.

모니터 요원은 8월 18일부터 9월 15일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2시간 가량 모임을 갖고 선정 도서를 읽은 소감과 난이도, 모임운용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면 된다. 모니터 요원에게는 <선방일기>(여시아문), <무소유>(범우사), <번뇌 업 고통>(민족사) 등 5권의 책을 무료로 지급한다.

8월 13일까지 전화나 이메일(minjoksa@chollian.net)로 신청 가능하고 발표는 16일에 한다. (02)722-7679

여수령 기자

비키니 수영복에 불상 넣은 업체 사과

여성 비키니 수영복에 부처님 모습을 그려 훼불 논란을 일으켰던 미국 속옷업체가 스리랑카에 사과했다.

주한 스리랑카 대사관측은 "지난 4월부터 부처님 모습을 비키니 수영복에 새겨 판매해오던 미국 속옷업체인 빅토리아즈 시크릿(Victoria's Secret)이 최근 스리랑카에서 수영복을 수거하고 불자들에게 사과했다"고 8월 5일 밝혔다.

이는 지난 달 스리랑카 대법원이 상업적 목적으로 종교적 상징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린 후 나온 결과다. 다라 나가마 쿠살라 다르마 스님은 부처님의 이미지가 새겨진 비키니 등의 유통을 금지해 달라는 신청을 대법원에 냈었다.

이와 관련 주한 스리랑카 비제야시리 대사는 7월 13일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을 예방, 부처님 상호를 상업화하는 문제에 대해 범불교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남동우 기자

단기출가 인기 이렇게 높을 줄이야

월정사 입교신청 쇄도
상설화 · 기간 연장 검토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가 단기출가학교(본지 483호 1면 기사참조) 입교 신청 쇄도로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월정사측은 "8월 1일부터 6일까지 접수한 결과 30명 정원에 80명이 입교 신청을 하는 등 단기출가학교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신청 마감일 9월 4일까지 접수를 받은 뒤 내부 심사를 통해 최종 결과를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청자를 살펴보면 남성 46명, 여성 34명으로 남성들이 보다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연령대는 10대에서 70대까지 고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2~30대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이와 관련 월정사측은 "휴직계를 내고서라도 입교하고 싶다는 직장인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 40세 이하까지만 입교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과 관련 "나이 때문에 정식 출가도 못하는데 단기출가라도 해보자"는 항의성(?) 전화도 있다며 "일단 신청하면 내부검토 뒤 연락주겠다"는 답을 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예상보다 호응이 높자 월정사측은 단기출가학교를 '상설화'하고 기간도 한달에서 안거 개념을 기준으로 두세 달로 늘리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033)332-6664~5

남동우 기자

http://www.uu.ac.kr

좋은 因을 지읍시다
희망을 키워가는 보람을 드립니다

우리 대학은 10년 역사의 성과를 발판으로 환동해권 중심대학으로 전진하려는 꿈과 희망을 실천하여 가기 위한 발전기금을 모집합니다. 기탁해주신 기금은 **학교시설물 건립, 장학금 지급, 학부발전기금, 여성축구단 후원** 등의 목적으로 쓰입니다. '교육을 통한 사회발전'을 염원하는 여러분의 사랑을 받아 지역의 문화와 사회발전의 중심축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덕대학교에는 희망과 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발전을 향한 열정과 노력이 있습니다. '위덕사랑 나누기'에 여러분들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현금기부

무통장 입금
무통장 입금시 입금내역 및 인적사항을 전화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대구은행 : 204-05-001750-2(예금주 : 위덕대학교 총장)

CMS(자동이체)
금융결제원과의 CMS(자금관리서비스) 출금이체 이용계약에 의하여, 기탁자가 거래 은행에 직접 가시지 않고도 원하시는 기간동안 자동이체로 분할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납부
위덕대학교 기획홍보팀으로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위치 : 위덕관(본관) 2층 203호

비현금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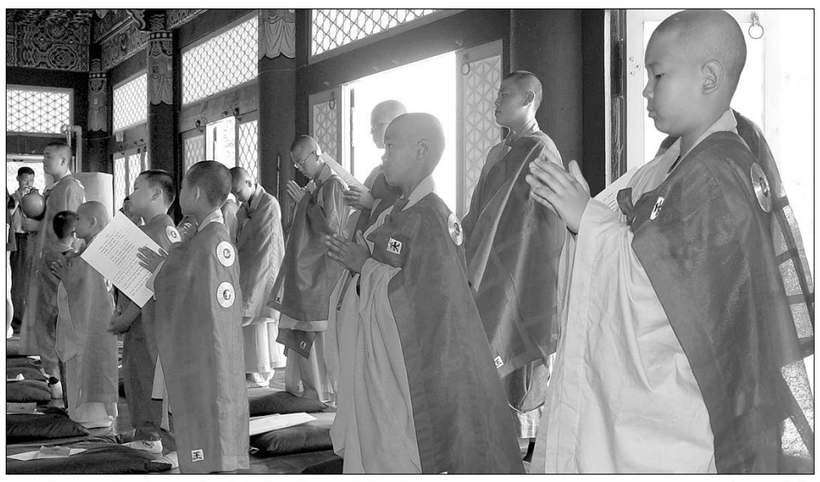
유가증권 및 부동산
시장에서 판매가 가능한 유가증권(주식 · 채권) 및 부동산(건물 · 토지)을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유형고정자산
교육 및 연구활동을 위한 도서자료, 각종 실험기자재, 비품 등을 기증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위덕사랑 나누기' 기금과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기획홍보팀으로 연락주십시오.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소 : 780-713, 경북 경주시 강동면 유금리 525번지 위덕관 203호 기획홍보팀
▮전화 : 054-760-1053 ▮팩스 : 054-760-1059 ▮ E-mail : ghlee@uu.ac.kr

환동해권 복지중심대학
위덕대학교
UIDUK UNIVERSITY

꾸러기들 의젓한 사미되다



담양 용화사 대웅전에서 구오사미계를 받고 있는 동자승들. 사진=이준엽 기자

담양 용화사 구오사미계 첫 개설
방학마다 수행 프로그램 운영

"이 절은 천지신명과 부모님께 출가허락을 청하는 삼배입니다."

무더위가 맹위를 떨치던 8월 3일, 동자승들이 대웅전에서 넙죽 넙죽 절하는 동안 법상에 오른 수계사 수진 스님(해동율맥 9대 · 용화사 아일다율원장)은 "선근 복이 있어 절도 잘하네"라며 마치 자신이 사미승이 된 것마냥 신이 났다.

이날 담양 용화사에서 구오사미계(驅烏沙彌戒)를 받고 출가한 동자들은 모두 16명. 이들은 멀리 경기에서 제주에 이르기까지 전국각지에서 모인 어린동자들로 8월1일부터 7일까지 열리는 사미수계산림에 참가중이다.

"구오사미계란 절의 음식을 나르거나 마당에 널어놓은 곡식을 보고 날아드는 까마귀를 쫓던 어린 행자가 사미십계를 받고 사미가 되는 것으로, 이번에 처음 개설했습니다."

수계사 수진 스님은 "태고종 종법상 18~45세가 되어야 수계산림에 참가할 수 있어 사찰에서 보육하는 학생행자나 사미가 되고싶은 아이들을 위해 특별히 이번 수계산림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수계산림의 생활은 새벽 3시30분에 일어나 1시간 30분간 진행되는 새벽예불을 필두로 참선, 울력, 사시마지, 발우공양 등 승려로써 갖춰야할 기본습의를 익히고 대중생활을 한다. 다만 방학 중인 학생이란 특성을 살려 '달마 호신술' '레크리에이션' '캠프파이어' 등의 프로그램이 추가될 뿐 여느 수계산림에 비해 한 치의 흐트러짐 없는 승려생활이다. 이번 사미수계산림은 가사, 장삼을 일상화하도록 하기위해 미리 수계식을 거행했다.

"직접 절에서 생활해 보니 스님생활이 힘들어요. 그래도 일찍 일어나는 것만 빼면 재미있어요."제주에서 온 덕조 스님(속명 김성현. 동광초 4년)은 "정기적으로 다니는 사찰은 없지만 왜 그런지 몰라도 어려서부터 스님이 되고 싶었다"며 그래도 삭발한 머리가 어색한지 머리를 쓰다듬는다.

처음으로 구오사미계 수계산림을 마련한 수진 스님은 이번 수계산림을 위해 어려운 한자 의식문을 한글로 바꾸어 특별교재를 만들었다. 수진 스님은 "일찍이 사미계를 받고 수행자 인연을 지어놓으면 어떤 어려운 일이든 스스로 해낼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로 탄생한 사미승들은 용화사 홈페이지(hwww.dyyonghwasa.or.kr)에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활동하게 된다. 앞으로 용화사는 여름(8월1일) 겨울(2005년 1월1일) 방학 때마다 일주일씩 구오사미수계산림을 개설하며, 이번에 계를 받은 사미승들도 수계산림때마다 재교육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이들은 18세가 되면 구족계를 받고 비구가 된다.

이준엽 기자

부산불교련 신임회장에 대성 스님



부산불교연합회는 8월 5일 연합회 사무실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새 회장으로 범어사 주지 대성 스님(사진)을 선출했다.

삼광사 주지 도원 스님 의장으로 진행된 이날 이사회에서 대성 스님이 만장일치로 선출됐으며, 수석부회장 도원 스님, 상임부회장 정각 스님, 부회장, 감사 등 기존 회장단이 유임됐다. 부산불교연합회는 대성 스님 회장 취임 법회를 9월 초 열 예정이며 그전에 사무총장, 사무국장 선임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천미희 기자

섬마을 아이들 육지로 나간 이유

완도 신흥사, 여름학교
초등생 60명 도심문화 즐겨



완도 신흥사(주지 법일)는 7월 25일부터 일주일간 '낙도어린이 초청 장보고학교'를 운영했다.

지역주민을 위해 처음 마련된 이번 여름학교에는 보길도, 청산도, 신지도, 생일도 등 완도관내 10여개 섬마을 초등학생 60여명이 참가했다.

장보고 학교는 한문학당을 비롯해 다도, 도자기만들기, 만화 그리기, 물 로켓만들어 쏘기 등 체험학습과 사경, 연등의식, 수계식 등 불교의식으로 진행됐다. 또한 교육기간 중 백양사 참배, 광주 놀이공원 나들이(사진), 영화관람을 통해 그동안 섬에서 누리지 못한 도회지 문화를 마음껏 즐기도록 했다.

이준엽 기자

강서예술촌 시민쉼터로 거듭나

서낙동강권 공원 조성 맞춰

부산지역 예인들을 위한 창작 공간인 강서예술촌(촌장 강세우)이 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거듭난다.

강서구청은 8월 4일, 강서예술촌 부지를 수만평 규모로 확충해 시민들의 휴식공간, 농업체험 시설 등으로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청은 최근 시가 추진 중인 서낙동강권 수변공원 조성 추진과 발맞춰 평강천에 접해 있는 강서예술촌을 수 만평 규모로 확충하고 시민들의 쉼터로서의 기능을 확대시킬 계획이다. 한편 강서예술촌은 강변축제에 맞춰 8월 30일까지 제 2전시실에서 '시와 그림이 있는 풍경전'을 개최한다. (051)972-3912

천미희 기자

원각사 7월 '원각' 창간
송광사 사보 판형 키워

송광사는 매월 발간하는 사보를 8월호부터 판형(4×6 배판)을 키우고 편집을 다양화 했다.

새롭게 선보인 월간 <송광사>는 '조계의 향기' '성보순례' '만다라' 등의 코너를 신설해 송광사와 관련된 문화를 칼라로 소개하고 있다. '나의 송광사 시절'에는 송광사 원로스님들로부터 잊혀져가는 사찰생활을 듣고, '죽비소리'에서는 승속을 떠나 누구나 필자로 참여해 잘못된 세상사에 따끔한 불침(佛針)을 놓도록 했다.

이에 앞서 광주 원각사(주지 도제)도 7월 사보 <원각(圓覺)>을 창간했다. <원각>은 대중들을 포교하기 위한 문서포교지로 매호 3000부씩 계간으로 발행된다. 송광사 (061)755-0107, 원각사 (062)223-3168

이준엽 기자

법화경 사경 봉안 독송대법회

제주 조천 평화통일불사리탑(주지 설송)은 제59돌 광복절을 맞아 8월 14~16일 '법화경사경 봉안 독송대법회'를 봉행한다. 법회는 법화경 독송, 사경 봉안, 108회 탑돌이, 포살법회 등 3일동안 기도와 헌공, 예참의식으로 진행된다. (064)783-8801

박봉영 기자

대구사원주지연합회
창립23주년 기념법회

대구사원주지연합회가 8월 4일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창립 23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대구사원주지연합회 회장 원명 스님과 사원주지 연합회 명예회원 무공 스님, 동화사 주지 지성 스님, 대구불교방송 사장 성타 스님 등 사부대중 100여명이 참석해서 지역불교 발전과 사원주지연합회의 번영을 기원했다. 또한 회원 사찰간의 화합과 발전 방향등이 논의됐다.

원명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요즘 사회는 자신보다 남을 생각하는 마음가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지혜와 자비로 사회의 어둠을 밝히는데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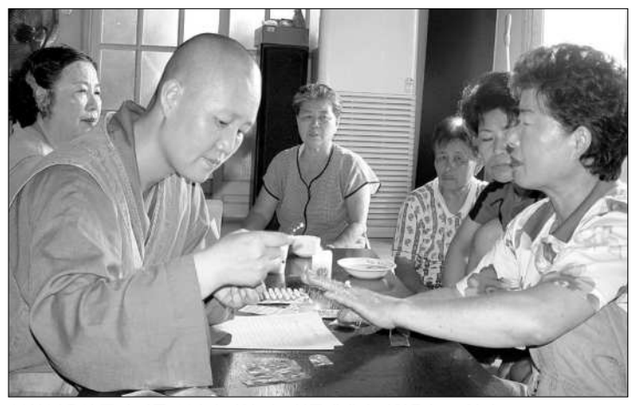
이날 창립 기념법회는 무공스님의 고희를 축하하는 자리를 겸해 이뤄졌으며, 사원주지연합회는 앞으로 해마다 양력 3월 3일에 창립기념 행사를 봉행 할 예정이다.

배지선 기자

지금, 우리 절에서는…

부산 낙은사

아픈 마음까지 헤아려 주는 도량



부산 낙은사 주지 자륜 스님이 지역 어르신들에게 수지침을 놓고 있다

매주 금요일 지역민에 수지침 봉사
독경 한글화로 '쉬운불교' 전하기 앞장

부산 낙은사(조실 혜지) 법당에서 수지침 봉사가 한창이다. 낙은사 주지 자륜 스님은 관절통, 소화불량 등을 호소하는 이들에게 수지침을 놓고 뜸을 뜨며 부처님 가르침을 풀어 놓는다. 육신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찾은 이들이지만 이야기처럼 이어지는 자륜 스님의 법문에 마음까지 말끔히 치유되는 느낌이다.

가난과 병으로 고통 받는 이들을 부처님의 도량으로 이끌기 위한 방편으로 시작한 수지침 봉사는 4년째를 맞았다. 매주 금요일마다 정기적으로 봉사를 할 땐, 법당에 앉을 틈이 없을 정도였지만 최근엔 인연 닿는 대로 봉사를 하고 있다. 그래도 동네에 환자가 발생하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제일 먼저 낙은사 문을 두드릴 정도로 자륜 스님의 정성스런 수지침 봉사는 정평이 나있다.

이처럼 언제나 고통 받는 중생과 함께 해온 낙은사는 혜지 스님이 1979년 도심 포교를 발원하며 창건했다. 이후 혜지 스님은 1986년부터 98년까지 부산불교연합회 부회장을 역임하며 부산불교 발전에 역량을 보태왔고 법무부 교정교화 부산교도소 법사단장을 지내며 사비를 털어 재소자 교화에도 힘써왔다. 특히 혜지 스님은 80년대 한글 독송을 시작해 뜻도 모르고 외는 한문 불교를 한글불교로 바꾸는데 선구자적 역할을 했다. '한글예송집'을 손수 번역해 펴내고 한글로 된 경을 독송하며 불자들의 이해를 도운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받았다.

경부선 철로변에 위치한 낙은사는 작은 규모의 도량이지만 중생과 함께 숨쉬는 포교도량이자 대한불교해인종 총본산의 기능을 다하고 있다.

5년 전인 1999년 혜지 스님이 청년불교, 대중불교, 한글불교를 제창하며 창종한 해인종의 창종이념을 펴기 위한 중심도량인 것이다. 마을 주민들과 몇 마디만 나눠보면 낙은사의 포교 원력과 그간의 활동들을 쉬이 짐작할 수 있다. "경로당 어르신들 보살펴 주고, 동네 행사 때마다 쌀, 음료수 등을 부족한 것 없이 보태주니 우리 동네 문제 해결사죠."

박판순(65) 보살의 낙은사 칭찬에 옆에 있던 황연희 보살도 거들고 나섰다. "아픈 사람 치료해주는 고마운 스님덕분에 부처님도 자주 뵙고 너무 좋지요."

지역민들을 위한 정신적 귀의처로 자리 잡아온 낙은사는 대한불교해인종 총본산 건립 불사를 발원하고 있다. 200명이 넘은 제자를 키워낸 혜지 스님은 젊은 인재 양성을 위한 수련시설, 강원, 선원 등을 갖춘 여법한 본산 건립 불사를 발원하며 종도들의 뜻을 모아 나가고 있다. (051)322-5918

부산-천미희 기자

2004년도 정토불교 조계종 교육연수원 교육생 모집
선 카이로프락틱, 운동처방, 선 내공체술

1. 본 교육연수원의 설립취지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홍보하기 위한 출가수행자 및 법사들의 포교방편과 스님들의 자활력을 갖춤으로써, 병고에 시달리는 중생구제와 더불어 보시금이나 불전에 의존하지 않고, 주며 베푸는 떳떳한 스님을 양성키 위해 **정형외과 의사와의 대화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유능한 '카이로프락터'**로서의 정통교육을 힘씀에 있다.

2. 교 과 목 : 카이로프락틱 교정 이론 및 실기(해부학, 스포츠맛사지, 근육학, 운동처방 포함)
디스크(목, 흉추, 요추, 선추), 오십견, 두통, 관절통, 편마비 등의 교정 방법을
미국 팔머대학의 교재로 확실히 교육시킴

3. 과 정 : 2급과정 교육기간 2개월(총 108시간) 교육연수원장 명의 자격증 발급
1급과정 2급과정 수료자로서 교육기간 1개월(총 54시간), 카이로프락틱 마니 플레이션

4. 모집방법 : 2급과정 30명(선착순)
● 지원자격 : 출가수행 스님 및 법사
● 입학금 및 강의료 : 출가수행 스님으로서 승적증명서 제출자는 무료 (단, 식대 및 교재대 20만원)
● 원서접수 : 2004년 8월 7일 ~ 8월 31일 까지

5. 입학일시 : 2004년 9월 2일 13시

6. 원서교부처 : 정토불교 조계종 교육연수원 교학과 042)635-8186, 8187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동 241-14 호산빌딩

사단법인 정토불교 조계종 교육연수원

불교지도자와 제가불자를 위한 불교강좌
경기북부 교양대학 개설 공고

1. 대학개설 취지
전통불교의식을 체계적으로 전수하여 여법하게 전통의식을 생활불교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자(스님, 교임, 포교사)를 양성하며, 기초불교교리 강좌등을 통해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화합 불교사상을 널리 펴서 진정한 불국토를 이루는데 있음.

2. 교 과 목
전통의식반(제공의식 포함)
● 주 2회 (화,목) ● 시간 : 15:00 ~ 17:00
▶기초
▶연구(현장실습)

지도자 과정반
● 주 1회 (금) ● 시간 : 15:00 ~ 17:00
▶불교 교리 ▶현장 포교 ▶제공의식
▶신행상담 및 방법론 ▶서예, 활법, 참선

3. 교육기간(6개월)
● 원서접수 : 2004년 8월 11일 ~ 9월 4일 ● 개강일시 : 2004년 9월 7일 오후 3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장

4. 특 전
본대학은 조종파 교육도량으로 수료후 수료증 수여와 사찰 및 포교당 창건시 지원 및 편의제공

5. 교 통 편 : 차량운행

3. 문 의
경기북부종무원 부설 교양대학 교무처
전화 : 031)864-0033 팩스 : 031)864-0103
경기도 양주군 남면 매곡리 380번지 기원정사

한국불교 태고종 경기북부 종무원 부설 교양대학

'이기느냐, 아님 지느냐?' 직장인들의 불청객 '스트레스'. 업무환경의 지속적인 변화, 여기에 뒤쳐져서는 안 된다는 강박관념. 직장인들이 일과 인간관계에서 겪는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상사에게는 '깨지고', 부하한테는 '치이고'. 자의반 타의반 스트레스를 달고 사는 셈이다.

직장인들이 이런 극심한 스트레스를 술과 유흥으로만 풀어야 할까. 아니다. 지혜로운 일터불자들은 불교의 가르침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

신행경력 20년 이상 된 '베테랑 일터불자' 4명에게 그 해소비법을 들었다. 일터에서 어떤 경우 스트레스를 받는지, 또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가는지 지상좌담으로 엮는다.

여름특별기획-일터불심 10대 화두

① 일터, 마음 닦는 수행처
② 직장 동료 · 상사 · 후배, 모두를 도반으로
③ 아직도 출퇴근 시간에 졸고 있습니까?
④ 하루 5분 수행, 인생이 달라진다.
⑤ 스트레스, 불교에 치유법 多 있다.
⑥ 술과 담배 그리고 과식은 신행의 적
⑦ 제대로 불교 믿으면 저절로 부자 된다.
⑧ 한달에 한번 집중 수행 필요
⑨ 틈틈이 읽는 불서, 인생을 풍요롭게
⑩ 인터넷은 신행정보의 보고


송도근 건설교통부 불자회장


임완숙 전국교사불자연합회장


정상현 춘천시청 도반회장


장영효 MBC 불교연구회장

상대 이해하는 마음이 열쇠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 수행기회로 삼는 지혜를 …"

지상좌담 참가자
- 송도근(58 · 건설교통부 불자회장)
- 임완숙(58 · 전국교사불자연합회장)
- 정상현(56 · 춘천시청 도반회장)
- 장영효(55 · MBC 불교연구회장)

 # 이런 상사와 부하 직원에게 '열' 받는다.

송도근: 상사에게서는 업무처리 방법에서부터 취향까지 자신의 스타일만을 강요당할 때 가장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부하직원들이 지시 업무의 중요성이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때 참으로 답답해 스트레스를 받아요.

정상현: 조그만 실수도 봐주지 않고 화부터 내는 상사가 가장 힘들어요. 부하 직원의 경우, 지각이나 결근 등 근무태도가 불량할 때 지적을 합니다.

임완숙: 이런 상사가 제일 힘듭니다. 합리적이고 원리원칙에 의한 일 처리가 아닌, 사사로운 권위나 이익을 위해 독단적으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말입니다. 그리고 무리하게 일처리를 하고는 책임 회피할 때 가장 밉지요. 또 되도록 일을 맡지 않으려고 부하 직원이 이리저리 핑계거리를 찾을 때에도 상사로서 스트레스를 받지요.

장영효: 사적인 일을 자주 부탁하는 상사가 힘듭니다. 업무지시를 받을 때는 아무 말이 없다가 뒤에서 투덜대는 부하 직원도 스트레스를 주는 원인입니다.

 # '하심(下心)'과 '역지사지(易地思之)'

장영효: 모든 일을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어떤 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스트레스는 어디서 온 것인지 하고 자문하면서 그 실체를 보려고 합니다. 나의 잘못은 없는지 먼저 돌아보는 것이 불자로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임완숙: 입장 바꿔 생각해보는 것이 최선입니다. 상대방이 처해 있는 상황을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때론 따로 만나 흉금을 털어놓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부하직원의 경우, 적당한 기회를 봐서 잘못을 지적해줘야 합니다. 또 해명할 기회도 줘야 하죠. 상사든 동료든 부하든 같은 일터에서 '공업(共業)'의 인연으로 만났으니 서로가 소중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정상현: 스트레스는 바로 하심과 인욕 공부의 기회라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번뇌가 있어야 수행도 잘 됩니다. 일터에서의 스트레스를 마음공부하기 위한 바탕으로 삼으면 어떨까 합니다. 특히 동료나 부하직원의 경우, 잘못이 눈에 띄더라도 자비심으로 품어줘야 합니다.

 # 연기법을 생각하라

송도근 : 일체만물의 존재원리인 연기(緣起)법을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사유하는 방법으로 직장 스트레스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기의 입장에서 보면 스트레스 또한 독립적인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과 결과가 되는 사안들이 서로 의지해 일어나는 것에 불과하지요. 때문에 참선 수행은 스트레스를 깔끔히 거둬내는데 유익합니다.

정상현: 나는 염불과 심호흡을 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풉니다. 업무 자체가 사유재산권을 다루는 일이기에 해당자간 한 치의 양보가 있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갈등과 타협이란 줄타기를 해야 합니다. 이런 업무속성상 염불은 한 편으로 쏠릴 수 있는 감정의 변화 흐름을 잡아주어 효과를 확실히 보고 있습니다.

임완숙: 나는 관법명상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요히 마음의 움직임을 바라보며 내 상태가 지금 어떤지 점검합니다. 그러면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느끼는 순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금방 해답을 얻게 됩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스트레스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지요.

장영효: 상사에게 꾸중을 받거나 부하직원을 질책하고 나면, 과연 내가 잘 한 행동인가를 반성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심하게 한 것은 아닐까' 등 한동안 마음이 어지럽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절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참회를 하지요.

 # 감명 깊은 경구에 스트레스가 '확'

장영효: 부처님 법에는 세상을 잘 살아가는 모든 방법이 오롯이 담겨있는 것 같아요. 특히 <금강경>에 나오는 '一切有爲法 如夢幻泡影 如露亦如電 應作如是觀(일체유위법 여몽환포영 여로역여전 응작여시관)'이라는 경구는 늘 삶의 지혜를 줍니다. '모두가 실체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면, 모든 것이 부질없다'는 이 말씀에서 집착하는 것의 어리석음을 알게 되니까요.

정상현: <수능엄경>에 있는 다음의 경구를 늘 새깁니다. '물은 둥근 그릇에 담으면 둥글게 되고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네모가 된다. 하지만 물 그 자체는 모양이 없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것을 잊어버리고 마치 처음부터 전혀 배우지 못했던 것처럼 생각한다'. 결국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물처럼 유연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잘 넘기고 있지요.

송도근 : 문수 보살이 무착 스님에게 설한 '若人靜坐 一須臾(약인정좌일수유), 勝造恒沙七寶塔(승조항사칠보탑), 寶塔畢境碎微塵(보탑필경쇄미진), 一念淨心成正覺(일념정심성정각)'이란 법문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잠깐 참선하면 항하사 모래알 같이 많은 보탑을 쌓는 것보다 공덕이 높다. 보탑은 끝내 무너져 티끌이 되지만, 한 생각 깨끗한 마음은 정각을 이룬다'는 말씀을 새기다 보면, 스트레스는 원래 있는 것이 아니고 잠시 일다마는 파도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임완숙: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이라는 말은 언제나 힘이 됩니다. '이르는 곳마다 항상 주인이 돼 행동하라'는 경구를 생각하면, 아무리 화나는 일이 있어도 마음을 너그럽게 쓸 수 있어요. 직장인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직장 내의 모든 것을 바라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주인의식을 가지면, 적극적이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도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가게 돼 책임의식도 가질 수 있지요. 그러다보면 자연히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요. 말 그대로 하루하루가 '날마다 좋은 날'이 되지요.

정리=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우리불자회는요

안양시청 공무원 불자회

안양시 석수1동에 가면 삼성산(三聖山)이 있고 안양사가 있습니다. 안양사는 안양시 명칭의 유래가 되는 사찰로서 왕건이 창건한 통일신라 말기의 절입니다. 안양(安養)이란 이름은 서방극락국의 또 다른 이름인 셈입니다.

이토록 안양시는 지명부터 불교와 인연이 깊은 곳입니다. 하지만 지난 1973년 시로 승격한 이래 공무원불자회는 구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2003년 3월, 뜻을 함께 하는 시청 불자 공무원 7명이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고 공동 신행생활의 모임을 결성하기로 원을 세워 드디어 올 6월 21일 시청 강당에서 용주사 주지 정락 스님을 모시고 창립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안양시청 공무원 불자회 창립을 위해 처음 발기인 7명이 모였을 때, 우리는 불자회 창립 의미를 이렇게 정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지녀야 할 덕목과 사명은 스님과 흡사하다' 는 생각을 함께 했지요. 가령, 국민의 세금인 예산과 물자를 내 것처럼 아끼고 절약하는 것이 계율을 엄격히 지키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불자님들, 이쯤 되면 '공무원의 덕목과 스님의 생활'은 비슷하지 않나요? 원칙의 준수, 청렴과 검소, 그리고 근면해 잘 배우고 널리 베푸는 스님. 결국 바른 생활을 해 나가는 점에서 스님과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

창립을 준비하면서 어려움도 적지 않았습니다. 회원들의 신행생활 수준과 정도는 개인마다 다르고 차이가 있었습니다. 부처님오신날에 등 달러 그날만 유일하게 절에 찾아가는 분, 포대화상을 보고 '금복주 닮은 분을 왜 절에 모셔 놓았을까' 늘 궁금해 하던 분 등 정도의 차이가 달랐지만 대부분이 불교의 '불' 자도 모르는 회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불자회원들은 얼마나 변했을까요? 이제는 절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천수경>을 하면서 목탁도 쳐 보았지요. 향과 촛불을 켜는 의미도 압니다. 성지순례를 다니면서 금복주가 포대화상이란 것도 알게 됐습니다. 성도일에는 철야기도도 해보았습니다. 찬불가도 부를 줄 압니다. 이러한 공부들이 전부는 아니지만 부처님의 세계에 문을 두드리고 발을 들여놓게 된 것을 크게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안양지장선원 불교대학을 운영하고 계시는 현호 주지 스님의 도움이 컸습니다. 불자회 회원 46명 중 36명이 단체로 불교대학에 입학하여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23일부터 일주일에 하루 수요일 저녁 7시부터 두 시간씩 기초교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공부시간에 회원들의 눈망울은 늘 초롱초롱합니다. 출석률 95%. 환상적이지요. 이 기운을 계속 밀어부쳐 견성의 경지까지 가기를 서원해봅니다. ■전영순(기초교리반 총무)


안양시청 공무원 불자회원들이 올 6월 안양지장선원 불교대학 야간 기초교리 특별반 입학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무원 사명과 덕목 스님 생활과 비슷"
회원 대부분 불교대 입학 … 공부에 재미

2003년도 불교역사를 한눈으로 『현대불교신문 합본 9집』 발간

현대불교신문 2003년 합본집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하 두 권으로 나누어 제작되었으며, 2003년부터 호당 32면으로 증면되어 더욱 풍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현대불교신문 합본집은 큰스님 법문, 이해하기 쉬운 불교교리, 생활의 지혜, 불교문화자료 등이 수록되어 있어, 불자님들에게 더 없는 불교의 길잡이가 될 것이며, 스님들에게는 수행의 반려자가 될 것입니다.



■ 구입 안내
- 구성 : 상권 2003년 1월(402호) ~ 6월(427호)에 발행된 현대불교신문
  하권 2003년 7월(428호) ~ 12월(453호)에 발행된 현대불교신문
- 판형 : 신문원형 그대로 (40cm×55cm)
- 절차 : 신청 → 입금확인 → 발송
- 가격 : 상하권 총 80,000원
- 입금계좌(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국민 245-25-0001-461 | 농협 053-01-236053 | 우체국 010041-01-010042

■ 주문 및 문의
- 전화 (02)737-0090(直) (02)737-8881(代) | 팩스 (02)737-0697
- e-mail : sclee@buddhapia.com
  현대불교신문사 경영관리국 관리부

■ 지난 호 구입가격은 60,000원(발송비무료)입니다.
지난호는 1998년도,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합본이 신청가능합니다.
재고가 많지 않으므로 빨리 신청하세요



삶의 나침반 '현대불교' 이웃과 나눠요



"현대불교는 내 생활의 오아시스." 성북파출소 경찰 불자들이 법보시로 배달된 '현대불교'를 읽으며 법담을 나누고 있다.

현대불교를 보면 불교공부가 저절로 …

매주 '현대불교' 기다리는 성북파출소 경찰관들

최근 발생한 강력 사건 등으로 눈코 뜰 사이 없는 8월 4일 서울 성북파출소. 김두식 성불회 회장, 심상무 경사, 임상모 순경은 분주한 와중에도 오늘 아침도 법보시로 배달된 현대불교신문을 펼쳐 들고 이야기 꽃을 피운다. 오늘의 화제는 하와이 무량사에서 열리는 청소년 영어 · 역사체험 캠프.

"세상 참 좋아졌어. 이제는 미국 절로 어학연수를 다 떠나는군. 절은 산에만 있을 줄 알았던 영어를 배우러 미국 절에 간다니…."

"그것도 몰랐어요? 회장님. 전 세계에 한국 사찰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는 이번 주말에 불교 애니메이션을 빌려 볼 생각이에요. 현대불교신문에 보니 이번 주말 코엑스 빌딩에서 <오세암> 같은 불교 만화 영화를 상영한다는군요. 얘들하고 보러 가세요."

이렇게 경찰 불자들이 빼놓지 않고 현대불교를 애독하는데는 이유가 있다. 이들은 현대불교가 다양한 불교계 소식을 듣고 불교 공부를 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심상무 경사는 "경찰 불자들은 직장불자 코너를 읽으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즐겁게 일하는 직장 불자들의 신행을 배우고 있다"며 "현대불교신문은 바쁜 직장인들이 쉽고 재미있게 불교를 접하고 배울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가르쳐준다"고 고마워했다. 현재 40여 명 경찰 불자들로 구성된 '성불회'는 매해 불우청소년들을 돕기 위한 장학금 지급, <법공양> 보급 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법보시 고맙습니다

■진주교도소

늘 잊지 않고 '현대불교'를 보내주시는 불자님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주 보내주시는 신문으로 저희들은 유익한 불교정보를 접하면서 한층 더 의미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다시 한번 교도소 불자들을 대신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교도소

어떤 인연으로 현대불교를 보게 됐는지 모르지만 매주 보내주시는 신문을 감사한 마음으로 잘 읽고 있습니다.

현대불교를 읽다보니 어느덧 제가 곧 출감을 앞두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현대불교신문의 애독자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정성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법보시하니 기쁨 두배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희망을"

■옥영식(66 · 부산 사하구 · 전직교사)

2002년부터 조금씩 용돈을 아껴 현대불교 법보시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법보시는 매주 '현대불교'를 읽으며 느낀 것을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일 같다. 특히 살아있는 불교의 가르침을 전하는 한마음선원 대행 큰스님의 법문을 여러 사람이 함께 누릴 수 있기에 더욱 가슴 뿌듯하다.

우리의 문제를 불교란 훌륭한 거울에 비추어 갈 길을 제시하는 현대불교신문을 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기를 기도드린다. 법보시를 통해 어려움에 빠진 어떤 사람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정말 흐뭇하다.

1구좌 1천원으로 자비와 지혜의 법등 밝힙시다

'현대불교'는 소외된 이웃과 우리 사회를 지켜가는 분들에게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고자 군부대, 경찰서, 교도소, 양로원, 고아원, 병원 및 사회 복지단체 등을 대상으로 '현대불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 불국토를 가꾸어 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매월 2천여 법보시 후원자가 동참하여 매주 1,244부의 신문이 군장병 · 교도소 수형자 · 군 · 경찰 병원 등으로 발송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43만여부의 신문이 포교사 기능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보시는 일시적이지만 법보시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무한한 공덕의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금강경>을 통해 "사구게 하나라도 남에게 일러주는 공덕이 삼천 대천 세계를 가득 채울 만큼의 칠보로써 보시한 공덕보다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 **법보시 동참방법**: 매월 1,000원 1구좌 이상 전화로 신청

■법보시 동참 문의 및 안내
현대불교신문사 고객부
(02)737-0090(직통), (02)737-8881(대표), 팩스(02)737-0697.

●법보시 받는 단체 ·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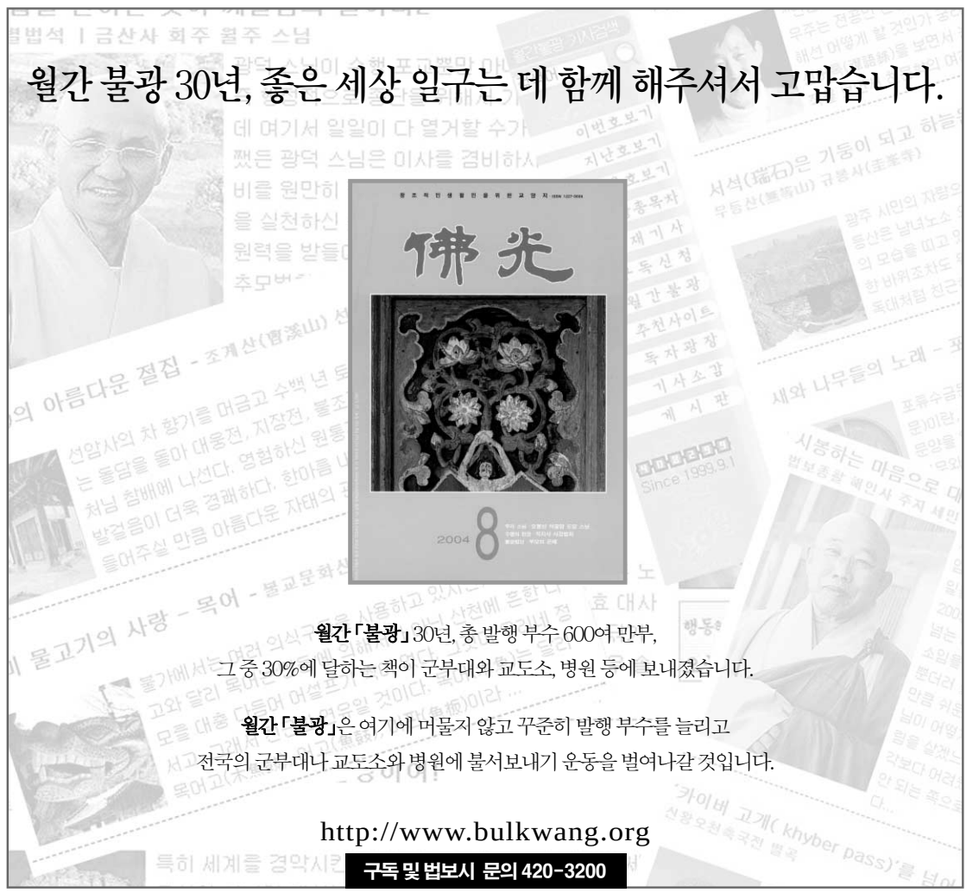
※2004년 8월 11일 현재(매주 발송 현황)

구 분		발 송 처	보시 부수
경찰	경찰병원	2	6
	경찰서	190	194
교화기관	감별소	4	12
	교도소	46	253
	교정청	2	6
	구치소, 감호소	13	48
	소년원	12	36
군부대	국군병원	9	11
	군법당	363	421
복지단체	기업복지재단	9	9
	노인복지	24	24
	복지관련대학	37	37
	복지단체	48	48
	복지협의회	6	6
	부랑인복지	4	4
	불교병원	9	61
	아동복지	24	24
	장애인복지	11	11
	지역복지	19	19
	청소년복지	14	14
합계		846	1,244

'현대불교' 법보시 후원 동참에 감사드립니다

강대덕행 강덕순 강명자 강미숙 강민경 강순희 강영신 강점숙 강춘계 경연혜 계미영 고경옥 고흥 고필선 공덕화 공정심 공평근 곽동희 곽명순 곽성순 곽우진 곽은아 곽중경 곽춘자 구길자 구명보 구수연 구순희 구진주 구필회 권경숙 권구현 권두상 권명아 권미경 권오응 김강산 김건용 김경수 김경옥 김경훈 김경희 김광삼 김광숙 김규순 김규정 김금옥 김기성 김기춘 김길 운 김나령 김남규 김달순 김덕임 김동자 김동찬 김명란 김명숙 김명숙 김무재 김문자 김미래 김미연 김미진 김병일 김봉란 김봉애 김비연 김상 김상호 김석자 김선남 김선아 김선영 김선화 김성순 김수옥 김수정 김숙자 김순금 김순련 김순복 김순복 김순분 김순선 김순옥 김순자 김순희 김승호 김애자 김여경 김연수 김염순 김영삼 김영선 김영선 김영수 김영순 김영식 김영애 김영옥 김영자 김영출 김옥남 김옥선 김옥순 김옥정 김용순 김용재 김용철 김용호 김원용 김원호 김유학 김윤관 김윤자 김은식 김인태 김재방 김정규 김정규 김정렬 김정숙 김정애 김정옥 김정욱 김정원 김정희 김주현 김준만 김준숙 김준형 김중철 김지숙 김지영 김지혜 김진근 김진선 김진영 김춘희 김태곤 김택곤 김학수 김향숙 김현우 김현주 김현진 김현화 김형운 김형태 김혜옥 김화남 김화인 김효래 김효상 김희순 김희주 나귀례 나민자 나숙희 나순옥 남국석 남선자 남여원 남유선 남종진 남주희 남현우 노성일 노성재 노실호 노영애 노윤택 단영숙 도미라 도태순 류동연 류송우 류정오 마정혜 마진호 마혜정 맹남균 문경숙 문두상 문상철 문숙희 문순조 문의성 문의성 문재근 문정희 민경애 민성곤 민정원 민진옥 박경수 박경옥 박경자 박경환 박경희 박공임 박기숙 박기순 박남순 박말이야 박무용 박무주행 박미자 박배훈 박봉기 박봉순 박상기 박상섭 박선애 박선영 박성수 박수영 박숙자 박숙희 박순애 박신영 박양주 박연숙 박연신 박영춘 박옥경 박옥남 박옥정 박용무 박용배 박용욱 박원희 박은미 박은주 박은숙 박인서 박의자 박인선 박장미 박재윤 박정상 박정숙 박정순 박정옥 박정자 박정희 박종수 박종희 박주찬 박주호 박지연 박진우 박지자 박찬 박천혜 박철홍 박청길 박춘미 박춘봉 박태 박태균 박향옥 박현동 박현순 박현주 박형채 박혜경 박혜리 박혜선 박혜천 박화재 박희순 방명섭 방순자 변은자 배민화 배춘자 배태열 배현옥 백현기 백혜원 변영희 봉창욱 봉철웅 봉현주 상현스님 서경자 서미옥 서병학 서영주 서예숙 서울월곡청소년 서원석 서윤이 서의숙 서재영 서춘건 석영수 선덕스님 선현자 성경순 성낙옥 성재영 손순옥 손영실 손현석 송동호 송연희 송은경 송재업 송정구 송종화 송필재 송희경 수원보현사 신남선 신동호 신상균 신수영 신영찬 신재철 신정규 신조현 신진임 신진희 신창순 신현순 신현조 신혜경 신희순 심경우 심숙희 심영애 심원식 심현보 안광기 안병윤 안양본원 안은희 양세욱 양순조 양연숙 양연숙 양연희 양영모 양익수 양재호 양준원 양태환 양흥용 여상배 염흥수 오광자 오미덕 오병덕 오상숙 오승훈 오신재 오정애 오종근 오지은 오창희 오학규 오현규 오현희 오형만 옥영식 우동렬 우지예 위영란 위주환 유경자 유금열 유보향 유영미 유종옥 유지호 유진옥 육성희 윤기석 윤기원 윤기홍 윤대수 윤병창 윤상현 윤석완 윤선영 윤순희 윤여형 윤영숙 윤정연 윤정일 윤제학 윤종숙 윤지웅 윤지웅 윤지은 윤춘매 윤춘희 윤현숙 윤혜선 윤혜숙 윤혜성 윤희원 이강희 이건우 이건주 이경남 이경숙 이경애 이경영 이경원 이경주 이구자 이군자 이귀순 이규달 이규만 이근기 이근혜 이기오 이길복 이길순 이단식 이대섭 이동주 이동필 이두영 이명규 이명숙 이명준 이명희 이미경 이미금 이미나 이병태 이보편 이복동 이복성 이복희 이산궁 이상옥 이상태 이성용 이숙경 이순덕 이순복 이순자 이순화 이순희 이승윤 이승훈 이신정 이여주 이연보 이연애 이연호 이영경 이영민 이영숙 이영자 이영진 이영환 이영희 이옥순 이왕구 이왕진 이용법 이용진 이우순 이우진 이우환 이운화 이원상 이유순 이은구 이은숙 이은희 이재숙 이정순 이정안 이정우 이정임 이정헌 이정희 이종섭 이종성 이종재 이준섭 이준재 이지영 이지현 이진선 이진순 이찬수 이창연 이창호 이창환 이청 이춘근 이태인 이태희 이필희 이한희 이해 이형신 이형호 이혜숙 이훈노 이훈로 이희숙 임경희 임광기 임금지 임명옥 임선희 임영애 임옥빈 임옥빈 임온 임용식 임용호 임정숙 임종구 임종덕 임종미 임춘희 임형준 장문규 장미 장미숙 장성윤 장영남 장재원 장정자 장정희 장해기 장현만 장혜선 장희숙 전계영 전병수 전수남 전수영 전유신 전은희 정경남 정구순 정규열 정근희 정금란 정금자 정대자 정미련 정백기 정보향 정성남 정수자 정연경 정영숙 정영신 정옥녀 정운경 정윤채 정익규 정인순 정인자 정정숙 정차효 정창남 정창래 정필순 정하석 조경숙 조계희 조공옥 조귀자 조명래 조명숙 조미란 조민규 조병호 조봉호 조영석 조옥순 조원희 조정희 조진한 조혜숙 조혜옥 조화봉 주경숙 주정숙 주정옥 주희숙 지명구 지혜선 진말련 진수명 진영숙 차민영 채은훈 천병길 천상봉 천수해보살 청무스님 최경락 최금철 최병조 최복섬 최상훨 최선영 최순옥 최영봉 최영숙 최옥자 최원주 최은희 최인자 최정희 최종열 최종원 최준성 최준영 최태영 최학우 최행규 최현민 최형선 탁순례 태순덕 하근수 하미경 하미희 하재한 하정희 한경윤 한경자 한기영 한기준 한동원 한마음선원 강릉지원 신도회 한마음선원 광명지원 신도회 한마음선원 광주지원 신도회 한마음선원 대구지원 신도회 한마음선원 대전지원 신도회 한마음선원 목포지원 신도회 한마음선원 문경지원 신도회 한마음선원 본원 신도회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신도회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신도회 한마음선원 제주지원 신도회 한마음선원 중부 · 경남지원 신도회 한마음선원 진주지원 신도회 한마음선원 청주지원 신도회 한마음선원 통영지원 신도회 한세진 한숙희 한영옥 한윤경 한은섭 한인식 한정옥 한철화 한화윤 허경순 허미옥 허성국 허재승 허태영 허태환 현남순 현미숙 호소희 홍경옥 홍경숙 홍경화 홍순아 황월자 황경숙 황금영 황논철 황순수 황순심 황영숙 황용숙 황인순 황인형

(2004년 8월11일 현재 · 가나다 순)



월간「불광」30년, 총 발행 부수 600여 만부,
그 중 30%에 달하는 책이 군부대와 교도소, 병원 등에 보내졌습니다.

월간「불광」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꾸준히 발행 부수를 늘리고
전국의 군부대나 교도소와 병원에 불서보내기 운동을 벌여나갈 것입니다.

http://www.bulkwang.org

구독 및 법보시 문의 420-3200

열린 대학교육, 평생교육의 선두 http://cce.khu.ac.kr

경희대학교 사회교육원 학생 모집

기문명리학 (입문반 / 고급반) 사주, 작명, 택일, 양택, 단시 등을 기문역학으로 파악하고 실생활에 응용하는 과정
● 입문반(신규 수강생) 수 19:00 ~ 22:00 (15주) 300,000원 ● 고급반(기존 수강생) 목 19:00 ~ 22:00 (15주) 300,000원
※ 입문반은 60세 이상 수강자에게 수강료 50%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웰빙관상학 우리 얼굴, 신체 모든 부의의 형태와 기색을 살펴 운명 변화, 풍수, 웰빙법 연구
● 오전반 월 10:30 ~ 12:30 (15주) 200,000원 ● 오후반 월 19:00 ~ 21:00 (15주) 200,000원

한국전통민속문화 한국인의 전통무속신앙, 자연숭배사상, 풍수지리를 연구, 현장답사 및 실습체험
● 금 19:00 ~ 21:00 (1학기 15주, 1년 과정) 200,000원

한문해석법 체계적인 한문해석법 습득과 사서의 하나인 孟子를 독해하는 과학적인 한문 교육
● 목 13:00 ~ 15:00 (15주) 200,000원 ※ 60세 이상 수강자에게 수강료 50%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한시창작 한시의 역사와 작법을 습득하고 고문 이해, 명시 감상 및 창작을 통한 한시장르 연구
● 목 10:00 ~ 12:00 (15주) 200,000원

▶특 전 : 경희대 총장명의의 수료증, 도서관 이용 ▶접수기간 : 2004년 8월 27일(금)까지 (방문접수 : 평일)

개 강	2004년 9월 6일(월)부터
접 수 처	동대문구 회기동1 경희대학교 사회교육원 (네오르네상스관 2층)
문 의 처	☎ (02) 961-0870~2 FAX (02)961-0873 홈페이지 http://cce.khu.ac.kr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자세한 교육과정을 보실수 있습니다.)
교통안내	지하철 1호선 회기역 하차 1번출구(마을버스 정문하차)

대구불교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무료제작
문의) 053-427-5114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FM 105.5MHz
www.dgbbs.co.kr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오전 진료가 시작되기전부터 캄파하주민 300여명이 진료소앞마당에서 의료진을 기다리고 있다.

나눔의 손잡기 우리이웃 현대불교신문 · buddhanews.com



동국대 참사람의료봉사단은 7월15~31일 불교국가인 스리랑카로 건너가 현지주민 5000여명을 진료했다. 사진은 '라무투가라' 사원에서 진료중인 봉사단원들.

동국대 참사랑 봉사단 스리랑카 의료봉사 현장

동국대 양 · 한방 의사들과 학생들이 스리랑카의 가난한 작은 마을에 자비의 인술(仁術)을 전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참사람봉사단은 7월 15일부터 31일까지 스리랑카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전개했다. 매년 동남아 불교권 국가를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실시해온 동국대는 스리랑카의 '캄파하', 조계종의 지원으로 건립된 '조계종 마을'이 있는 '라트나푸라' 그리고 '카루타라' 지역을 중심으로 봉사 활동을 펼쳤다. 이번 의료봉사에는 동국대 부속병원 의사, 한의사 및 학생들로 구성된 의료지원팀과 일반학과 학생 봉사지원팀 등 모두 27명이 참가했다.

국경없는 약사여래 손길 "감사 또 감사"

봉사단원 27명, 조계종 마을 · 캄파하 · 카루타라서 활동
관절염 · 영양부족 등 심각, 국민 90% '병원 혜택' 못 누려



동국대 참사랑봉사단은 의료원 산하 양 · 한방의사 및 학생 27명으로 구성됐다.

스리랑카 정부의 공식초청 형태로 입국한 봉사단 일행은 공항에서부터 현지인들의 특별대우를 받았다. 봉사단은 입국심사 없이 곧바로 VIP룸을 통과해 스리랑카 정부 대표인 '쿠레이' 웨스턴주 수석장관과 '라산테' 교통부 부장관의 환영을 받았다. 숙소인 '비야가마' 호텔로 가는 도중 공항 벽에는 싱할라어로 적힌 봉사단의 사진이 눈에 띄었다.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우리 봉사단의 진료 일정과 내용을 작년 사진과 곁들여 미리 안내한 홍보 포스터라고 했다. 이미 TV와 신문을 통해 전국에 홍보가 되어 있다는 말에 일행들은 적잖이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동 중간에 차창으로 보이는 이국적인 풍경도 인상적이었다. 차선도 없는 도로 위를 고급 승용차와 달구지, 소 떼가 한데 뒤엉켜 있었다. 그리고 그 사이를 비집고 지나다니는 주민들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이곳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새삼 깨달았다. 이곳에서 우리는 아시아 인구 80%가 교육과 의료혜택을 받지 못해 고통당하고 있는 절대 빈곤의 현실을 그대로 실감할 수 있었다.

봉사단이 머물렀던 비야가마 호텔의 사장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외국인인 동국대 의료봉사단이 대신 하는 것에 많은 부끄러움과 고마움을 느낀다"며 현지에 머무는 동안 상당한 편의를 지원해 주었다.

봉사단 방문에 현지 언론매체 대대적 보도

진료 첫날은 일본 서대사(西大寺)에서 세운 '란무투가라' 사원의 강당을 진료실 삼아 치료를 시작했다. 봉사기간 동안 우리가 대한 환자는 대부분 노인들이었고 양방환자보다는 한방 쪽에서 봐야할 지병이 있는 환자들이 몰리는 편이었다.

스리랑카는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국립 병원이 있지만 치료약이 거의 없고 예약 후에도 8~10개월을 기다려야 진료가 가능하다. 물론 고급 수준의 사립병원들이 일부 있지만 국민의 90%는 이런 사립병원의 혜택과는 거리가 멀다.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부항시술을 해주고 있다.

스리랑카 불교계는 소승불교의 전통 탓에 아직 의료복지문제를 해결할 여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고, 최근 타 종교인들이 의료봉사를 빌미로 선교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대해서도 무방비 상태였다.

봉사기간 중 7월 19일에는 진대호 단장을 포함한 일부 의료진이 '조계종마을'로 파견을 나갔다. 인근지역에서도 가장 오지인 이곳은 스리랑카의 대표적 빈민가로 지난해 홍수로 마을 전체가 사라져 버린 곳이다. 다행히 우리나라 조계종의 후원으로 약 200여 채의 가옥이 새로 지어져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은 곳이다.

이곳에서는 특히 혼자 걷지 못해 업히거나 안겨서 오는 이들이 많았는데 오랜 가난과 극심한 노동으로 관절염 같은 퇴행성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의 경우 영양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했다.

봉사단은 조계종 마을에서 한방진료를 중심으로 약 90명의 환자를 돌봤다.

진대호 단장은 "불룩 나온 배, 깡마른 손발은 한눈에도 기생충에 감염된 아이들의 심각한 건강상태를 짐작할 수 있었으며, 간단한 구충제 투여와 약간의 영양만 공급할 수 있어도 상당히 호전 될 수 있어 보였다"고 밝혔다.

약 얻으려 1~2시간 기다리는 가슴아픈 현실

2차 진료지역인 카루타라로 이동하기전 봉사단은 불치사 난다 스님의 안내로 부처님의 치아 사리가 모셔진 경내를 참배했다. 봉사단은 이곳에서도 스님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진료를 실시하고 컴퓨터와 의약품 일부를 기증했다.

1차 진료지였던 캄파하 보다 형편이 더 어려운 2차 진료지 카루타라는 치료보다 약을 얻기 위해 봉사단을 찾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에게는 잠시 왔다가는 의료진의 손길보다도 두고두고 의지할 수 있는 몇 알의 알약이 더 절실하다는 사실에 의료진들의 가슴을 저미게 했다. 찾아온 환자들의 40%정도는 기본적으로 관절 질환과 피부병을 앓고 있었다. 심한 경우에는 살갗이 새까맣게 각화된 채로 걸음조차 옮기지 못하는 이들도 있었다.



진대호 단장(왼쪽)이 라산테 교통부 부장관에게 컴퓨터와 의약품 등을 기증하고 있다.

의료봉사 기간동안 현지인들은 문화적 특성인지 느긋해 보였고 자기 차례가 돌아올 때 까지 1~2시간은 묵묵히 기다리는 대단한 참을성도 보였다. 무표정한 얼굴로 멍하니 있다가도 우리 단원과 마주칠 때면 부끄러운 듯이 미소 짓는 그들의 모습에서 순수함을 엿볼 수 있었다.

하루 600여명 진료, 호전된 모습에 피로 잊어

봉사단 의료진들은 1, 2차 진료 기간동안 하루 평균 500~600명의 환자를 진료해야 했다. 캄파하 지역에서 벌인 1차 진료의 마지막 날인 21일에는 하루에 720명을 진료하기도 했다.

보통 한국에서 의사 1명이 하루에 진료할 수 있는 환자는 최대 50~60명 수준인데 의료봉사기간 동안 양 · 한방 의사 1인당 평균 100명이 넘은 환자를 돌보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다.

"밀려드는 환자를 모두 받기 위해서는 식사나 화장실 가는 시간조차도 줄여야 할 만큼 정신없이 진료에 매달렸다"는 강남한방병원 김경옥 한의사는 "현지인들의 한방치료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실제로 증세가 호전된데 대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피곤함을 잊을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의료봉사 마지막 날인 7월 30일 오전에는 스리랑카의 '라자팍스' 총리를 예방했다. 영빈관에서 동국대 측이 기증할 '마이크로 수술기'의 간단한 시범을 보였다. 라자팍스 총리는 자국민들에게 의료봉사를 해준데 대해 고마움을 표시하고 봉사단에게 스리랑카 대통령 명의의 표창을 수여했다.

다음날 봉사단원들은 "그동안의 5000여명 진료가 이 나라 국민들의 의료 현실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우리들의 치료가 가난한 주민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귀국 비행기에 올랐다.

글 · 사진/스리랑카=김규헌(동국대 학생복지실 직원)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주) 행복만선 Tel.02)730-0705
여름 특별기획안내 (호화유람선으로 하는 중국여행 및 사찰순례)
삼보에 귀의 하옵고
당사는 중국과 제주도를 현지 직영
운영하는 전문 여행사로서
불자님을 위한 중국여행과 제주도 여행을
안내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성원을 기대합니다.
○ 호화유람선 진천페리로 매주 화요일 출발
• 천진. 북경 7일(피운사,와불사,옹화궁) ₩ 390,000원
• 천진. 북경. 낙양 7일(소림사,백마사,용문석굴) ₩ 490,000원
• 천진. 북경. 오대산 7일(운강석굴,화엄사,현통사) ₩ 590,000원
○ 호화유람선 진천페리로 매주 금요일 출발
• 천진. 북경. 내몽고 8일(호화호특) ₩ 520,000원
• 천진. 북경. 패상초원 8일(포타라궁,보녕사) ₩ 520,000원
○ 호화유람선 위동페리로 매주 목,토요일 출발
• 청도. 제남. 곡부 6일(천불산 만불동,영암사,잠산사) ₩ 390,000원
요금포함내역(공통사항)
- 포함사항 : 왕복 선박료, 호텔 (4성, 4성 2인1실), 입장료, 여행자 보험, 항만세, 선내 다인실 기준, 전일정 식사 (선내 포함)
- 불포함사항 : 중국 비자비, 현지 가이드 기사 팁, 개인경비
중국 불교 성지 순례
1. 관음도량 보타 낙가산 5일 79만원
2. 지장도량 구화산 황산 5일 79만원
3. 보현도량 아미산 낙산 5일 85만원
4. 문수도량 오대산 운강석굴 5일 69만원
5. 소림사 백마사 용문석굴 5일 69만원
6. 달라이라마 티벳 8일 169만원
호화 유람선 선상에서 수륙제 및 소원성취 방생 대법회 가능 (진행 및 인원 상담)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 737-8881 (代)
· FAX : 02) 737-0697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 법당 : 36평
- 명부전 : 33평
- 요사 : 110평
- 부지 : 3800평
- 가액 : 30억

- 위치:강원 강릉
- 법당:10평
- 요사:20평
- 부지:1350평
- 가액:4500

- 위치 : 전북
- 법당: 15평
- 요사: 25평
- 부지: 350평
- 가액: 1억5천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 011)713-5634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
- 대지 : 300평
- 임야 : 2천5백평
- 인등 : 3천개
- 가액 : 8억원(절충가능)

011-9338-2993
소개업자 일체사절

포교원안내

- 위치: 대구시 달서구 4층 중 2층
- 방3, 부엌1, 화장실1, 법당30평(총 70평)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3000만원(절충가능)

011-822-6104

포교당안내

- 위치 : 부산 범어사 입구
- 평수 : 400평
- 현재포교당운영중
-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포교활동을 하실 인연있는분을 찾습니다

011-848-0006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충남 예산군 덕산면 읍내리
- 삼존불, 산신탱화, 후불탱화 등 모든시설 완비
- 평수 : 40평
- 가액 : 1천만원 월 30만원
- 스님 몸 안좋은 관계로 급 안내 모든집기 일체 포함

041)337-8078
011-332-8079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
- 부지: 1000평
- 법당: 30평 목조
- 요사: 30평
- 가액: 9억

- 위치: 서울
- 대지: 25평
- 인법당: 23평
- 가액: 8천
- 포교요충지 급매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포교당,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지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통일시대 최대 투자처 경기 연천 土地 다량보유 상담환영

포교당안내

- 위치: 경기 시화 신도시
- 시설완벽 최고급
- 내부실평수 53평, 베란다 약 20평
- 난방 전기 큰방2, 거실겸주방 1, 샤워실겸화장실2, 엘리베이터, 주차장완비
- 가액: 보증금2천 시설비3000만원, 월60만원

031)432-7406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남 부여 (산세수려하고 경관 최고)
- 평수 : 대지 200평,건평30평 (방4,부엌,거실,욕실) 건물20평
- 임법당1, 정원, 창고, 텃밭, 지하수2
- 신축건물, 벽돌, 기와
- 가액 : 1억5천만원(절충가능)

011-792-6910

포교당안내

- 경기도 고양시 시청근처 3층건물 중 3층 80평
- 법당, 요사채, 주방, 방5개
- 보증금 : 1500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 2500만원

011-307-3473

신축사찰안내

- 대구 파계사 옆 2차선 포장도
- 대205평 텃밭110평 건물70평
- 목조형 철근조 02년말 준공 남향 1층 방5 거실, 욕실, 주방, 보일러 2층 큰법당, 주지실, 거실, 조무실
- 요산 요수 자연 앞냇물 뒷山竹林
- 가액: 2억5천(답사후 절충)

016-875-9833

토 굴 안 내

- 위치: 충남 금산군 남이면 소재
- 대지 : 110평(전통한옥, 등기필)
- 건물 2동(안채, 사랑채)
- 심야전기 시설이 완비된 아주 깨끗한 전통 한옥
- 스님토굴이나 가족휴양처로 최적으로 장소
- 가액 : 9천만원

041)753-3766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
- 대지: 400평
- 법당: 25평
- 요사채: 20평
- 가액: 3억5천
※바다가 보이는 암자

- 위치: 해운대
- 대지: 2천평(지상권)
- 법당: 15평
- 요사채: 15평
- 가액: 3억3천
※전망최고, 별장식 암자

<전원주택>
- 위치: 진주 진성
- 대지: 700평
- 건물: 35평
- 가액: 1억6천
※멋진 별장식 토굴

부산 영남지방 풍수전문 사찰 컨설팅(양도, 인수하실 스님 상담환영, 절대보안유지)

佛國불사 051)508-7570 / 018-563-9575
홈페이지 www.boolguk.com
(홈페이지에 오시면 다양한 매물(50개)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사찰안내

- 위치 : 전북 남원
- 부지: 3천 2백평, 법당, 요사 완비
- 납골시설 100기 (분양완료시 2억이상 수익가능)
- 대규모 납골사업 가능한 부지 조성 완료
- 가액: 1억 5천만원(전세가능)
- 기도정진할 스님 특별조건
- 납골탑만 매매가능

011-9415-6831

도심의 사찰

- 위치: 원주시내 (40년된 사찰로 조그마한 야산에 있음)
- 대지 : 200평
- 대웅전, 지장전, 용왕, 산신각, 요사채2동, 스님방 별도
- 가액 : 2억 5천만원

011-327-5863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울산 중구 반구동 (최고적지)
- 시설 완벽 최고급
- 내부 실평수 약 50평
- 가액: 보증금 시설비 포함 1900만원, 월 50만원
- 불사관계로 급히 양도

010-4871-8577

물좋고 산세좋은 도심속 암자

- 건평 100평
- 법당 : 15평
- 요사채, 주차장완비
- 40년 역사 가건물
- 가액 : 2억 7천만원

011-9303-8550
051)301-8555

포교당안내

- 위치 : 부산시 온천3동
- 71평 3층, 법회즉시가능
- 가액: 전세 7천만원 (5천만원에 월20만원)
- 포교당 15년 됐음
- 시설비 없음

011-9571-1710

사 찰 안 내

[포교당]
- 위치 : 서울시내 강남 (지하철역 200m)
- 법당 : 35평 ●요사 : 방 2개
- 보증금: 일천만원/ 월 일백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 최고요지의 포교당임

[토굴]
- 위치 : 해인사 가야산 (국민관광호텔근처)
- 부지 : 180평 ●건물 : 50평
- 양도가 : 1억5천(대출가능)
- 1200년된 법수사 사지 3층석탑 옆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11)530-1975 / 011)688-3521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사찰(급)안내

- 위치: 광주광역시 평동 공단 인근
- 대지: 207평 1층 요사채 25평 2층 법당(목조) 25평
- 삼존불, 지장보살, 신중
- 가액: 9천만원(전세 5천만원)

062)943-3330
011-9600-8002

절터안내

- 위치: 경북 봉화군 춘양면 근교
- 평수: 전 2000평 (터 정리됨)
- 토굴 14평, 방 3개, 기름보일러, 부엌1동
- 상태: 독립된 청정계곡 도로포장됨
- 가액: 5800만원

010-4752-2758

토굴암자안내

- 위치: 강원도 홍천 남면
- 법당, 요사채, 텃밭, 주방, 기름보일러
- 가액: 상담후 결정

010-6388-0159

인도성지사찰운영하실분

- 부처님 성도지 부다가야 고려사
- 평수 : 2400평
- 법당, 요사 40평
- 사무실, 화장실 15평
- 경비실 10평

011-307-3473

사찰안내

- 위치 : 전남 장흥군
- 면적: 임야 대지 포함 11400평
- 법당: 목조 40평
- 요사: 벽돌 110평 1동 창고겸 요사 45평 1동
- 가액: 3억7천만원

011-9457-7060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청도군 비슬산 자락
- 부지 : 1140평(건축가능지역)
- 특징 : 양 옆 맑은 개울과 솔숲
- 가액 : 1억 4천만원

016-367-2112

포교당안내

- 위치 : 경기 시흥
- 4층건물중 4층
- 평수 약 100평
- 방 4개, 법당 30평, 공양간 30평,
- 목욕탕, 화장실, 집기일체
- 가액: 2천만원에 월 50만원 시설비 5천만원

1588-1086
031)434-9020

한마음 납골묘 납골당

사찰 경내에 본사의 비용(무상)으로
납골묘(석재)를 설치해 드립니다
사찰에서는 일체의 부담이 없음
한마음 석재 납골묘 납골당 고원합장

011-348-0668 / 031)318-0616

토굴 겸 암자안내

- 위치 : 경북 청도군 비슬산 자락
- 부지 : 1140평(건축가능지역)
- 특징 : 양 옆 맑은 개울과 솔숲
- 가액 : 1억 4천만원

016-367-2112

포교당안내

- 위치 : 부산 진구 양정 1동
- 4층건물중 3층 전세
- 법당 20평, 방3개, 큰주방 1개
- 특징: 내부시설 최고급 홍송으로 꾸밈
- 물품대: 모든집기 일체포함 답사후결정
- 가액: 보증금 2000만원, 월 50만원

016-266-1931

포교당안내

- 위치 : 청주시 상당구 율양동 3층건물에 3층
- 평수 35평, 법당, 방2개 살림가능
- 가액: 2000만원에 월 10만원 시설비 500만원

043)833-0069
011-460-4676

포교당안내

- 위치 : 대구시 사장통로 입구
- 면적 30평
- 보증금 없음 월세 35만원 시설비 2천5백만원(절충가)

011-502-8033

포교당안내

- 위치 : 부천시 대부시장 입구 3층
- 법당, 스님방, 주방, 사무실 등
- 법회시설 완비
- 가액 : 보증금 5백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 1천만원

019-226-5901

포교당안내

- 위치 : 경기 양주시 백석읍
- 평수 87평(실평수 150평) 2층건물(1층 30평, 2층 30평)
- 가액: 시설비 포함 2억 (아파트 밀집지역)
- 입주 즉시 법회 가능

011-398-2773

일반주택사찰

- 위치 : 경남 거창군 운양면
- 대지 159평 건물 45평
- 삼존불, 신중탱화
- 가액: 8천만원

019-503-7959
055)942-9156

포교당 안내

- 위치: 부산 동래구 사직동3동
- 평수: 38평
- 전세 1000만원, 월세 25만원 권리금 1000만원

051)503-0908
019-291-5558

당신도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울수 없는 과정과 비법을 3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때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단기과정!! 속성비결!!

사암침술 강좌

맥을 터득해야 사암침술을 자유자재로 시술 할 수 있습니다. (초,고급과정)
- ▶ 내용 : 12경락과 경근, 사암도인침구요결, 장부의 허실증 판단, 황제내경맥진법, 맥조절방법, 처방요령, 침술즉효요법(一鍼法), 뼈교정법, 종합실습
- ▶ 개강 : 2004. 9. 1 (주 · 야간반 : 3개월 완성)
※ 침술사 자격증도 교부합니다.

매화역수 강좌

간단한 수리학(1~9)만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나며, 명리수준을 최고위 과정까지 높여 드리는 국내유일의 강좌로 년운과 월운은 물론 일운까지 정확하게 적중시키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 ▶ 개강 : 수시

사 암 침 술 학 회

장소 : 화암빌딩 402호(종로3가 지하철 12번 출구 옆)
문의 : 011-307-2975. 02)2267-9136

사찰(급)안내

- 위치: 대구 파계사 근교
- 대지: 306평, 건평: 60평
- 법당(20평), 산신각(5평),
- 큰방 5개, 화장실 3개
- 산세가 수려하고 경관이 뛰어나 기도처로 최적지임
- 가액: 1억8천만원(웅자별도) 답사후 가격절충 可

011-9371-0856

사찰안내

- 위치:충북 옥천군 옥천읍 옥각리 부근
- 대지 100평 및 사용평수 100평 건물 법당 25평, 산신각 5평, 요사채 18평, 11평
- 모든시설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음
- 가액: 1억3천만원

043)733-8186
011-9405-8186

사찰안내

- 위치 : 포항시 죽장 하옥
- 법당, 요사, 대지 200평, 밭 500평, 반듯이 붙어있음
- 산세와 경치를 보고 기도도량 찾는 분, 아주 좋은 곳임
- 가액: 1억5천만원

011-9302-0343
054)262-6673

사찰별장(급)안내

- 위치 : 아산 천안역 40분온양 도고온천 15분 포장 도로접
- 대지 : 200평 건물 30평 2동, 유실수 조경 합 773평 727평(감나무, 호도나무 포함) 106평(대지 돌담 감나무 등 오래된 집)
- 가액 : 상담 후 결정

041)332-1069
019-9141-8751

포교당안내

- 위치: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경남호텔 뒷편 아파트 밀집지역
- 40평, 모든시설 일체 완비
- 가액: 2천만원, 월 180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02)2212-0686
016)396-1624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남 부여 (산세수려하고 경관 최고)
- 평수 : 대지 200평,건평30평 (방4,부엌,거실,욕실) 건물20평
- 임법당1, 정원, 창고, 텃밭, 지하수2
- 신축건물, 벽돌, 기와
- 가액 : 1억5천만원(절충가능)

011-792-6910

포교당안내

- 위치 : 강원 문막읍 동아리 농공단지 부근
- 방4, 화장실2, 욕실2, 주차장, 텃밭, 창고 기타 등
- 종중땅 부지 400평에 건물만 매매
- 가액: 2천5백만원(등기있음) 도지세 1년에 쌀 2가마니 값

011-9186-0667

포교당안내

- 위치 : 암사동 현대아파트 정문앞 지하철역 인근 대로변
- 법당: 35평 큰방1, 옥상방 3개
- 옥상: 35평 총 60평이상
- 스님 노환으로 사정상
- 가액: 보증금 5천만원,월 80만원 시설비 2800만원

011-714-3635/02)481-3635

토굴작은암자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 대지 66평, 요사채 30평,
- 보일러방 5개, 입식주방, 샤워실, 마당에 텃밭있음, 비품일체
- 가액: 2천7백만원

011-9560-9197
011-9350-8879

포교당안내

- 위치: 서울 중랑구 망우1동 망우 4거리
- 4층건물에서 3층
- 법당 30평, 방 2개, 부엌 1개
- 삼존불, 지장전, 산신, 칠성, 신중
- 보증금 2천만원, 월30만원
- 시설비 3천만원

019-571-1732

포교당안내

- 위치 : 서울 중랑구 상봉2동 (새서울 극장 옆)
- 평수 75평 삼존불 소불 3백분 집기일체(즉시법회가능)
- 가액: 보증금 5백만원에 월 125만원 시설비 3천만원(절충가능)

031)585-2090
011-320-2529

포교당 안내

- 위치 : 인천시 부평구청 뒤 2분거리 4층건물중 3층, 35평
- 법당, 공양실, 친견실, 삼존불, 지장단, 신중단, 영가단, 앰프시설, 사무기기, 포교서적 완비 시설A급
- 보증금 2천만원에 월 15만원 시설비 550만원

032)511-4974
부전스님 필요하신곳 연락바랍니다

▮중국의 '동북공정' …왜곡되는 고구려 · 발해 불교

중국의 고구려사 강탈 시도가 노골화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고구려사가 한국 역사로부터 삭제됐고, 최근에는 '고구려사는 중국사의 일부'라는 지침이 일선 교육기관에 하달됐으며, 같은 관점에 입각한 대학교재가 출간되기도 했다. 2005년에 있을 교과서 개정에 이런 관점이 반영된다면 중국의 청소년들은 고구려사를 자국사로 인식하며 자랄 것이고, '고구려 영토의 완전한 수복'을 꿈꾸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이와 같은 중국의 전방위적 고구려사 강탈 움직임에 놀란 정부는 '조용한 대응'이라는 방침을 적극적인 대응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에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피고, 역사왜곡을 주도하는 동북공정(東北工程, 동북지역연구프로젝트)의 실체를 알아본다. 아울러 중국 내에 남은 고구려와 발해의 불교유적을 통해 이들 두 나라의 불교문화사적 의의를 확인해본다.



장천 1호 고분의 예불도(중국 길림성 집안시). 중앙의 여래좌상을 향해 예불 올리는 부부가 보인다.

불교 초전성지가 중국역사로 간다?

영토분쟁 염두에 둔 '역사 빼앗기' 안될 말
민족 정체성 · 불교문화 지키기 적극 나서야

●위험천만 고구려사 왜곡

중국이 고구려사를 자국의 역사로 편입하려 애쓰는 이유는 무엇일까. 만주 역사에서 고구려사가 차지하는 위상과 그 의의를 이해하면 답은 절로 나온다.

고구려는 고조선, 부여를 계승해 만주와 한반도 북부를 약 7백여 년간 지배한 고대국가다. 고구려의 유민과 영토, 사람들, 그리고 문화 · 정신은 다시 발해로 이어진다. 즉 고구려사는 고구려의 광활한 영토는 물론 고조선 · 발해의 역사와 결부돼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고구려의 역사를 잃게 되면 우리는 고조선과 발해에 대한 권리 또한 주장할 수 없게 된다.

그 영향은 치명적이다. 우선 우리는 단군의 자손이라는 민족적 정체성을 잃게 된다. 또 우리 역사의 시원이 백제 이후로 내려가고, 활동 영역은 한반도 안쪽으로 축소된다. 불교사적 측면에서의 문제 또한 심각하다. 고구려는 삼국 가운데 최초로 불교를 받아들여 백제와 신라에 전해준 초전(初傳) 국가다. 따라서 고구려사를 빼앗기면 불교의 초전(初傳) 성지를 잃는 것이며, 찬란했던 고구려와 발해의 불교문화 또한 남의 것이 되고 만다.

고구려사가 우리에게 역사 · 문화 · 민족적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고 한다면, 중국에게는 영토문제와 조선족 통합이라는 실리적 측면에서 의미를 가진다.

고구려사를 편입하면 중국은 만주 지역 지배의 역사적 근거를 확보하게 돼, 남북통일 이후 제기될지 모르는 간도 영유권을 둘러싼 시비로부터 훨씬 자유로워진다.

그 효과는 영토뿐 아니라 그 안에 살고 있는 조선족의 정체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중국에서 조선족들은 고구려인으로 통한다. 중국인들이 조선족을 욕할 때 '고구려 놈들'이라는 의미의 '꺼우리 팡즈'라는 말을 쓸 정도. 그런데 고구려사가 중국사로 편입된다면 조선족들은 자연스레 중화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될 것이다.

고구려사가 우리 것임은 엄연한 사실인데 뺏고 뺏기는 것이 가능할까? 이에 대해 역사학자 이이화 씨는 "세계가 고구려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인식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역사를 뺏긴 것"이라며 "고구려사를 뺏기는 것은 민족 자존심에 큰 생채기를 남기는 것으로 절대 용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동북공정의 실체

동북공정의 정식명칭은 '동북 변강(변방을 의미)의 역사와 그에 따라 파생되는 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프로젝트'다. 추진 주체는 중국사회과학원과 동북 3성의 공산당위원회 선전부가 조직한 '동북공정영도협조기구'며, 2002년부터 5년 기한으로 추진되고 있다. 여기서 동북이란 중국의 동북지역에 해당하는 길림 · 요녕 · 흑룡강성을 뜻한다. 동북공정 이외에도 중국은 외몽고 지구, 남사군도 등지와 관련해 유사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동북공정은 그 중 중국이 가장 공들이고 있는 프로젝트다.

동북공정의 목적은 한반도 정세 변화 속에서 동북지역에 대한 안정적 지배를 확고히 하는 데 있으며, 그와 관련 역사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중국 동북 3성과 주요 유적 지도

즉 밖으로는 남북통일 후 야기될 수 있는 간도를 둘러싼 영토분쟁에서 논리적 우위를 점하는 한편, 안으로는 조선족의 동요를 사전 차단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그러나 고구려사가 중국사라고 하는 주장의 근거는 설득력이 없다.

중국은 △고구려가 한사군의 하나인 현도군에서 출발했다는 점 △중국에 조공을 바쳐온 종속국이었다는 점 △멸망 후 대다수 유민이 중국으로 흡수돼 고려나 조선과 무관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한다.

이에 대해 한국의 학계는 △고구려가 한사군을 축출해내며 성립한 국가로, 중국 왕조와 대결하며 대등한 수준까지 발전했다는 점 △조공 관계는 당시의 관행이며 교역의 한 방편이었다는 점 △고구려 유민의 대다수는 발해와 통일신라로 돌아갔다는 점 △중국 역사책인 <송사(宋史)>에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임이 명기돼 있다는 점 등의 사실(史實)을 근거로 맞서고 있다.

이와 같은 중국의 고구려사 강탈 시도는



성문사터(중국 길림성 집안시)

고조선 · 발해사로 이어질 전망이다. 2004년 연구과제 가운데 '고조선의 역사와 발해의 귀속문제'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발해 유적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준비작업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휘탁(고구려재단 연구위원) 박사는 "중국에게 국민 통합과 영토적 통합은 국가 존립에 직결되는 문제인데다 경제성장에 따른 중화주의의 부활로 패권주의적 색채가 더 강해질 것"이라며 "이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중국과의 관계 등을 감안해 실리를 취할 수 있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국 내 고구려 · 발해 불교 유적

고구려에 불교가 전래된 것은 전진(前秦)의 순도 스님이 고구려에 불경과 불상을 전한 372년. 375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찰인 성(초)문사와 이불란사가 당시 수도인 국내성(중국 길림성 집안시)에 지어진다.

하지만 두 절의 위치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발굴 성과를 통해 미루어 볼 때 국내성 동쪽에 있는 동대자(東大子) 건물지가 성문사 터로 추정되고 있을 뿐이다. 동국대 문명대 교수는 "동대자 건물지에서 발굴된 석좌가 불상석좌대일 가능성이 있고, 함께 발굴된 연화문수막새와 귀면문수막새 등이 사원건축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절터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이 맞는다면 동대자 건물지는 우리나라 불교의 초전성지인 셈이다. 하지만 발굴 후에 공장 등의 건물이 들어서 더 이상 초전 성지의 자취를 찾을 수는 없게 됐다.

고구려의 불교는, 고국양왕이 391년에 불교를 신봉하라는 칙령을 내리고, 광개토왕이 392년에 평양에 9개의 절을 창건하는 등 왕실의 보호 속에서 일상생활로 빠르게 스며든다.

지난 7월 1일,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중국의 '고구려 왕국의 수도와 무덤군'에 포함된 장천 1호 고분의 예불도는 불교가 생활 속에서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다.

이 고분은 사원을 연상시키는 벽화로 구성돼 1970년 발굴당시에도 화제가 됐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덤 안으로 들어가 고개를 쳐들면 바로 여래좌상과 눈길이 마주치도록 배치돼 있고, 여래좌상의 측면에는 부부가 오체투지로 배례 공양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다. 그리고 보살과 연꽃, 비천, 기악천 등으로 장식된 천정부는 극락정토를 연상시킨다. 연꽃 속에서 머리를 내밀고 있는 어린아이들 모습은 연화화생을 통해 정토에서 새롭게 태어나고자 하는 염원을 보여준다. 삼실총, 오회분4 · 5호분 등 연화화생 표현이 나타나는 고분은 많다.

또 장천 1호 고분의 예불도는 고구려 초기 불상의 모습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초기 불상의 모습을 그림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불도의 불상 모습을 근거로 할 때, 이와 비슷한 모습의 서울 뚝섬 금동불좌상이 고구려 초기 불상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편 발해의 불교문화는 고구려의 것을 계승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발견된 발해의 절터는 40여 곳으로, 주로 발해의 중심지역들에 집중돼 있다. 이 가운데 사찰 형태를 갖추고 있는 곳은 상경성(중국 흑룡강성 영안시)의 흥륭사가 유일하다. 하지만 청대(淸代)에 중건되면서 본래 모습을 많이 잃은 것으로 보인다.

불상은 대략 1천여 점이 발견됐다. 발해 불상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보여주는 양식은 전불(塼佛)이다. 틀빼기를 해서 구워 만든 전불은 상경성과 팔련성(중국 길림성 훈춘시)의 절터에서 많이 출토됐다. 둥글고 입체적인 형태를 띠고 있으며 고구려 원오리 절터에서 출토된 전불과 흡사해 고구려의 영향을 추측케 한다. 또 고구려 옛 영토 지역에 해당하는 팔련성에서는 이불병좌상(二佛竝坐象)이 발견됐는데, 같은 대좌에 자리한 두 불상이 바싹 붙어 있는 모습으로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형태다. 이불병좌상은 <법화경> '견보탑품'에서 석가 · 다보불이 나란히 앉아 설법하는 것을 도상화 한 것으로, 발해시대에 법화사상이 융성했음을 보여준다.



이불병좌상 사진제공=서울대박물관



영광탑(중국 길림성 장백현)

불교의 영향은 무덤 양식에서도 발견된다. 발해는 무덤 위에 건물을 짓는 풍습을 갖고 있었는데, 건물이 탑으로 바뀌어 독특한 형태의 양식을 보인다. 발해 번성기를 이끌었던 문왕의 딸인 정효공주의 무덤(중국 길림성 화룡현)이 그 대표적인 예다. 지금 온전하게 남아 있는 탑으로는 전탑 양식의 영광탑(중국 길림성 장백현)이 유일하다.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기사 넘쳐 '우희종 교수의 불교와 생명과학' 쉽니다.



일주문



법상종 12대 총무원장에

법상종 총무원 부원장 해월 스님(안성 쌍미륵사 주지)은 8월 1일 제12대 총무원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05년 10월까지.



스리랑카 등 남방불교 3개국 순례

대각종 총무원장 만청 스님은 8월 12일까지 스리랑카, 태국, 미얀마 등 남방불교 3개국 성지순례 및 연수차 6일 출국했다.



故 김순덕 할머니 추모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 나눔의집 원장 원행 스님은 8월 15일 역사관 개관 6주년 기념식 및 故 김순덕 할머니 추모재를 봉행한다. (031)768-0064



미얀마 친선대사에 위촉

부산 삼광사 주지 도원 스님은 7월 27일 한국주재 미얀마 대사관에서 내윈 대사로부터 미얀마정부가 수여하는 친선대사 위촉장을 받았다.



불교기본교육 수강생 모집

청주 관음사 주지 현진 스님은 8월 31일까지 불자예절 및 불교기초교리 등의 제2기 불교기본교육 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043)256-6254



세계연꽃축제 개최

안동 덕왕사 주지 용각 스님은 8월 30일까지 덕왕사에서 연꽃사진전시회, 국악한마당 등의 '제1회 세계연꽃축제'를 개최한다. (054)853-38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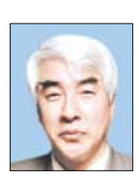
'탑골 자원봉사학교' 개최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지완 스님은 8월 11~13일 3세대 통합 자원봉사 프로그램 '탑골 여름자원봉사학교' 행사를 개최한다. (02)739-9501~3



美 로메리카 불교대서 관선무 강의

영화 '달마야 놀자'의 무술지도를 맡았던 광원 스님이 8월부터 3개월간 미국 L.A 관음사 로메리카 불교대학에서 관선무와 불교선학강좌를 진행한다.



유럽불교 체험 성지순례

한국불교연구원장 정병조 동국대 교수는 8월 2~12일 연구원 회원과 일반 불자들과 유럽불교체험 성지순례를 떠난다.



임종석 의원 초청 희망법회

조계사청년회 정우식 회장은 8월 7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우리당 임종석 의원을 초청, '통일이 희망이다' 주제로 희망법회를 봉행했다.



무량 스님이 '평화의 종' 형틀에 새겨진 문양을 살펴보고 있다. 종 아랫부분에는 세계 각국 어린이들이 손잡고 춤추는 그림이 담겨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2백여 나라 '평화 단어' 종에 새겨요"

LA 태고사 '평화의 종' 조성하는 무량 스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바깥의 상징을 통해 내면세계를 갈고 닦을 필요가 있습니다. 평화의 종을 통해 평화를 말로 설명하기보다 그냥 보여주고 느끼게 하고 싶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한국식 사찰 태고사(Mountain Spirit Center)를 건립중인 무량 스님(사진)이 방한했다. 경내에 설치할 '평화의 종' 주조의식을 참관하기 위해서다.

7월 30일 서울 조계사에서 만난 스님은 "종소리를 들을 때엔 모든 생각이 멈추고 소리에만 집중하게 된다"며 종소리를 통해 평화가 실천되기를 희망했다.

평화의 종은 신라시대 성덕대왕신종(봉덕사종)인 에밀레종을 기본 유형으로 하고 있다. 종의 표면에는 '평화'에 해당되는 2백여 개의 각 나라 언어들이 적혀있다. 제일 위쪽에는 한국어, 중국어, 영어, 산스크리트어 등의 네 가지 언어로 '어울려 함께하는 삶' '세계 평화' '인류 화합' 등에 해당되는 말을 새기기도 했다.

무량 스님은 1959년 미국에서 태어나 예일대학을 다니던 중 숭산 스님(서울 화계사 조실)의 법문을 듣고 불교에 귀의했다. 숭산 스님에게 '오직 할 뿐'이란 가르침을 받고 불법에 든 무량 스님이 '평화'를 화두로 든 까닭은 9 · 11 테러에 있다.

"사람들이 싸우는 것은 '욕심' 때문입니다. 최근 미국이 벌이고 있는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때문에 데모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데모 또한 또 다른 방식의 싸움입니다. 다른 형식의 데모가 바로 평화의 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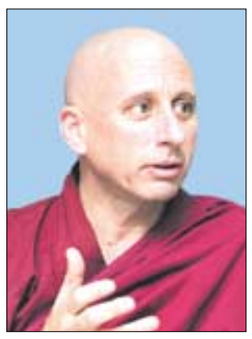
환경친화적인 삶의 양식을 시험하기 위해 10년째 태고사 불사를 진행 중인 스님은 "친환경적이지 않으면 절 지을 의미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를 위해 태양열과 풍력을 이용하고, 우물도 직접 팠으며, 통신도 모두 무선으로 하고 있다.

태고사는 현재 요사채와 대웅전이 마련된 상태다. 지난 5월 30일 기공식을 한 종각은 올 9월 19일 건립 10주년 기념식에 맞춰 마무리될 예정이다. 스님은 이 외에도 기숙사, 선방, 암자, 일주문, 사천왕문, 누각 등도 구상중이다. 또 사막부지인 태고사 주위에 댐을 건설해 숲을 조성하고 싶은 바람도 있다. 언제 완공되는가란 질문에 "당신이 같이 일하면 빨리 끝날 것"이라고 유머로 답하는 무량 스님. 스님은 그동안의 수행과정을 낱낱이 밝힌 자서전을 올 9월초 도서출판 열림원에서 발간한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달라이 라마의 마음공부' 쓴 브릴랜드 스님

"한국 불자들 열정에 감동"



"법문을 듣는 한국 불자들의 진지한 눈빛과 태도를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달라이 라마의 마음공부>를 펴낸 미국인 니콜라스 브릴랜드(Nicholas Vreeland · 사진) 스님이 7월 28일부터 8월 17일까지 21일간의 일정으로 방한했다. 브릴랜드 스님은 미국 배우 리차드 기어의 '기어 재단'과 함께 1999년 달라이 라마의 뉴욕 방문을 주선하는 등 티베트 불교 알리기에 앞장서고 있다.

73년 부탄과 시캄 등을 여행하며 불교를 처음 접하게 된 스님은 달라이 라마에게 계를 받고 85년 인도 라토 수도원에서 정식으로 불교를 배우기 시작했으며 98년부터 미국 티베트센터에 몸담고 있다.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대전 자광사에서 법회를 연 스님은 "자신의 자비심을 기르고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준다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가르침을 전했다.

"최근 서구에서는 '불자'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달라이 라마와 티베트 불교에 대한 '지식'이 늘어난 것에 불과합니다. 불자의 수적 증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인이 얼마나 수행을 하고 깨달음으로 나아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불교의 인상에 대해 스님은 "한국불교에 대해 거의 모르기 때문에 보이는 현상만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전제한 뒤 "조직적인 승단과 열성적인 불자들의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인도 라토 수도원에는 티베트에서 망명한 100여 명의 스님이 재정적인 지원이 거의 없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한국 불자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001) 91-8301-245-605, ratodrat@yahoo.co.in

여수령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회원배가운동으로 신행증진 시킬터

법륜불자교수회 새 회장 조현춘 교수



"많은 교수님들이 참석하여 불교발전을 위해 같이 연구할 수 있는 법륜불자교수회가 됐으면 합니다."

7월 24일부터 25일까지 경주 남산 천룡사에서 열린 제33차 법륜불자교수회 하계수련회 및 정기총회에서 제9대 회장에 선출된 조현춘 교수(경북대학교 심리학과 · 사진)는 불자교수들의 활발한 참여를 통한 교수회 운영을 다짐했다.

"불교에 관심을 두고 주변에 머물러 있는 잠정적 불자교수들을 발굴하는데 중점을 둘 생각입니다. 또 신입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참여하는 불자로 신행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습니다."

조 교수는 특히 회원 교수들이 각 재적사찰 신도회의 주축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우수 모범사례를 찾을 계획이다.

배지선 기자 jisun@buddhapia.com

염불만일회, 법화사서 성지대회



민족통일과 국가경제 위기 극복을 발원하는 제6차 전국염불만일회 '2004 7차년도 제주 법화사 성지대회'가 8월 1~3일 제주도 서귀포시 법화사에서 열렸다.

전국염불만일회(회장 김재일)가 주최하고 법화사(주지 시몽) 주관으로 열린 이날 대회에는 시몽 스님, 김재일 회장 등을 비롯해 예강한 용인시장, 염불만일회원, 제주불자 3백여 명이 참석해 염불수행을 통한 불국정토 건설을 염원했다.

시몽 스님은 인사말에서 "재가불자들이 염불수행을 통해 한국불교 발전의 주춧돌이 되어 달라"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 앙코르와트 보물전 관람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 총무부장 무관 스님, 사서실장 심경 스님, 문화부장 성정 스님 등은 8월 4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앙코르와트 보물전'을 관람했다. 이 자리에는 이명박 서울시장, 한국박물관협회 김종규 회장 등도 함께 했다.

삼전복지관, '맘짱! 친구사랑' 캠프



서울 삼전종합복지관(관장 선재)은 7월 30일~8월 1일 경기 양주 북부상공회의소 연수원에서 청소년 25명이 참가한 가운데 '맘짱! 친구사랑' 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천염염색 체험, 포스토 게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갈등에 찌들려 사는 당신 - 무심(無心)으로 떠나라!

명상가 문화영의 생활명상집 〈무심無心〉! — 훨훨 날 듯한 마음의 자유를 드립니다!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
영풍문고 베스트셀러 !
반디앤루니스 베스트셀러 !

각계인사들이 추천한 2004년 최고의 명상서!

삶을 보는 새로운 시각
명상도 선(禪)을 향해 가는 수행의 일부일진대,
부처님의 지혜를 좀 더 쉬운 언어로 세상에 알려야 하는
저희들로서는 반가운 동반자를 만난 기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삶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되리라 믿습니다.
— 백 창 기 (대한불교 조계종 중앙신도회 회장)

방송계에서 살아남는 법, 무심!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방송계에서 오래오래
살아남는 첫째는 실력이지만 그 못지 않게 원만한 인간성이나
처신도 빠뜨릴 수 없다.
방송계에서 살아남는 법 역시 '무심' 안에 있다.
— 이숙영 (DJ, 아나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포기해 버려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포기해 버리라고 한다.
얼마가 간단하면서도 명쾌한가!
어쩌지도 못하면서 짊어만 지고 있는
마음의 짐들을 후련히 날려준다.
— 고성균 (전 KBS 원주국장)

대인(大人)은 라이벌을 오히려 키운다
"금영이도 무심을 읽었더라면 장금을 키웠을텐데.."
'대인(大人)은 라이벌을 오히려 키운다'라는 대목을 읽고,
조목조목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책이다.
— 홍리나 (연기자)

삶을 내 마음대로 살기
우리는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아름답게 살려고 하지만, 맘대로만 안되는 게 현실이다. 가고 머무름에 뜻이 없는, "無心"을 통해 삶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지 않을까?
— 황량 (KBS 심의 위원)

법으로 해결 못하는 마음의 문제는 무심으로
책에서 감동을 받은 후로, 의뢰인들에게도 선물하곤 한다. '무심'이 법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들의 갈등을 상당부분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 최수영 (변호사, 한국 디지털 대학 겸임교수)

마음이 시원해지는 비결
날씨가 시원해지는 비결은 없지만
마음이 시원해지는 비결은 있었다!
— 아나운서 태의경

누구에게나 버겁지 않은 '진리'
'무심'은 누구에게나 버겁지 않은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다. 내일 아침엔 내가 만드는 노래에도, 내가 진행하는 방송에도
이런 인간적인 '무심'이 깃들 것 같다.
— 작곡가/방송인 이호섭

그때 그때 고민 해소하기
그때그때 고민을 해소하는 방법을 얻었다.
30분씩 햇볕을 받으며 걷기, 10분씩 흥얼거리기
거울 볼 때마다 웃는 연습하기
내 마음에 날개를 날아준 아름다운 만남
— 방송인 이소연

마음속에 머금어지는 향기
마치 최상품의 차와 같다
가슴의 먹구름이 걷히고
마음속에 향기가 머금어진다.
— 월간 茶人 편집장 김영희

"허리에 대신 걱정해주는 주머니를 차고
근심,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을 넣어라"
- 〈SBS-TV〉 '오픈 스튜디오'강의 교재로 채택

"일일이 반응하다 피곤해지기,
무심으로 대하여 자유로워지기"
- 〈MBC-TV〉 '문화읽기'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마음처방 제시"
- 〈조선일보〉

"직장인 명상캠프를 운영하는 저자가
소개하는 무심 명상법" - 〈한국일보〉

근심걱정을 잊고 무심으로 사는 법!
소프라노 조수미의 긴 손톱에 담긴 자유로움!
아름다운 죄, 사랑을 흔내주는 방법은 복수가 아닌 무심!
폐위된 광해군이 18년 동안 유유자적 기쁘게 산 경지!
근심걱정과 화를 금방 잊어버리는 축복받은 건망증!
무심의 경지에서 지치지 않고 쌩쌩하게 일하기!
수치심을 벗으면서 얻는 훨훨 날 듯한 마음의 자유로움!
즐거운 죽음, 소풍 가듯 죽는 방법!



명상마을의 자연인, 문화영
방송작가이며, 아루이 명상 지도자이다.
충북 진천의 명상마을 '명상아루이 수선대'에서
별과 바람과 더불어 자연인으로 살고 있으며,
그곳에 명상을 배우러 찾아오는
사람들을 지도하고 있다.

NAVER 검색창에 무심 을 쳐보세요!
인터넷에서 무심을 읽어보세요 : www.Mymusim.com

도서출판 수선재 TEL 02)391-9315 FAX 02)391-9314

명상가 문화영의 생활명상집
무심



불자 세상보기

이 희 재
광주대 철학과 교수

속셈 빠른 중국을 보며

최근 중국 산동과 충칭 등에서 열린 아시안컵 축구대회를 보면서 중국응원단들이 한국을 응원하지 않고 이슬람권의 중동의 여러 나라를 편드는 모습을 보았다. 이런 광경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은 씁쓸한 기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중국은 세상의 중심의 중국이라는 중화사상으로 일철된 역사를 갖고 있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변방의 주변국들을 오랑캐로 표현해 왔고, 한민족을 동이(東夷)라 하여 동쪽 오랑캐라 칭하는 오만을 부려왔다.

그러나 중국은 축구에서만큼은 한국을 두려워하는 공한증을 느낀다고 한다. 이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큰 나라답지 않은 '치사한' 매너임에는 틀림이 없다. 더구나, 우리의 역사인 고구려사를 자신들의 변방사라느니 혹은 중국사라느니 하며 억지주장하는 우스꽝스런 태도에 중국우월주의 혹은 제국주의적 오만이 느껴져 더욱 그렇다.

몇 년 전 한국의 불교단체에서 달라이 라마를 초청했을 때 중국은 우리 정부를 위협해 한국 입국을 막았던 일을 상기하면, 요즈음 고구려사 왜곡 등은 상호존중의 태도가 아니라 독선적이며 일방주의적 태도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지금 현대사속의 경이가 있다면 그것은 중국의 오만과 독선에도 불구하고 시종 자비심으로 티베트 망명정부를 이끄는 달라이 라마의 겸손과 미소다. 나라를 빼앗긴 원한과 복수심을 극복하고 오히려 중국을 미워하지 않는 자비정신에서 불교의 본질과 정신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세계적 지도자이다.

중동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오늘날 테러와 반테러의 반문명적, 반생명적 풍토의 배경에는 종교적 배경이 깔려있음을 볼 때, 중국의 압제에서 보여주는 달라이라마의 미소는 인류가 나아가야할 방향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전에는 중국의 편협한 중화사상에 매몰되어 티베트의 문화, 예컨대 조장이나 일처다부의 풍속 등에 대해 오해하고 야만시했지만, 지금은 그러한 풍속이 불교의 윤회사상에 근거한 것임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역설적이지만 중국이 아닌 유럽과 미국의 티베트 문화와 달라이 라마에 대한 찬탄에서 유래한 것임을 생각할 때 같은 불교인으로 그 편협했음이 부끄러울 뿐이다.

축구에서 보여주는 중국관중들의 대한민국에 대한 비우호적 태도, 우리의 역사인 고구려사를 왜곡하고 우리 문화유산이 산재한 지역이 현재 자신들의 통치영역에 있다고 해서 억지를 부리는 중국의 태도를 보면서 티베트를 강점한 중국의 제국주의적 태도를 피부로 실감할 수 있다.

한자문화권인 우리나라는 근본적으로 티베트보다는 중국문명에 대해 동질적이고 친근감과 우호의식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들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하는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여 중국의 비위를 맞추고 장단에 놀아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지금은 첨단무기로 무장한 초강대국 미국도 그 일방주의로 인해 더이상 도덕적 정당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세계인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오히려 첨단무기와 자살테러가 없이 오로지 자비심과 비폭력으로 티베트의 독립을 염원하는 달라이 라마의 미소가 인류평화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시대다.

나라 안팎에서 벌어지는 생명경시와 폭력으로 얼룩진 뉴스를 보면서, 다시 한번 이 땅에 달라이 라마의 방문이 실현되기를 발원한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여성 불자들의 '희망' 살리기

흔히 한국불교는 보살불교라고 말한다. 여기서 보살이라는 것이 뜻하는 의미는 다시 말할 필요 없을 것이다. 그만큼 한국불교는 여성불자의 신심 위에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혹 이 보살불교가 한국불교의 문제요 병폐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는 본말이 전도된 이야기이다. 조선조 오백년의 암흑기와 해방 후의 혼란기, 그저 불교가 살아남는 것이 급선무였던 그 시기를 여성불자들의 신심으로 버텨온 것이다.

문제는 그 시기가 지나고 이제는 좀 더 향상된 의식 위에서 신행이 이루어져야 할 시기가 도래했는데도 그에 걸맞은 교육을 통해 그들의 의식을 일깨우지 못한 종단과 불교계 지도층의 나태함에 있다. 불교를 지탱해 온 그들의 장한 신심을 시대상황에 맞는 올바른 신행으로 이끌어주지 못한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 다시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여성불자들 스스로 깨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불교여성개발원이 전국의 여성불자 6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성불자 의식조사' 분석을 토대로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했다는 소식은 여성불자들의 힘이 한국불교를 바꾸는 힘으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새로운 태동의 소식이다. 한국불교의 토대를 이루는 여성불자들을 아래로부터 바꾸어나가겠다는 구체적인 움직임의 시작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역할과 환경에 알맞은 수행과 신행 프로그램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된다면 기복 위주의 신행이 지양되고, 진정한 불교의 생활화가 뿌리를 내리게 될 것이다. 불교의 기층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여성불자들이기에, 그들의 변화야말로 한국불교를 건강하게 만드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만 한다. 그러하기에 더더욱 이토록 중요한 문제에 있어 지원은커녕 거의 방치했다는 것에 대해 불교계와 종단은 깊이 반성해야 할 일이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으나 이제라도 불교여성개발원 등을 중심으로 한 여성불자 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비롯하여, 여성불자들의 힘을 올바로 이끌어 한국불교를 바꾸어 나가려는 방향으로 획기적인 정책수립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

■ 성태용(건국대 교수)

이렇게 들었다 세계 한인입양인대회

"친족의 그늘은 시원하다. 샤카족은 붓다인 나를 낳았으니 나의 가지요 잎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 나무 밑에 앉았노라." 〈증일아함경〉

"이렇게까지 고국이 우리를 반겨줄지 몰랐습니다. 한국을 사랑하고 나를 낳아주신 한국인 부모를 사랑합니다."

8월 5~8일 서울에서 열린 '제3차 세계 한인입양인대회' 참석자들은 고국의 따뜻한 관심과 열띤 환영에 감격스러워했다. 15개국서 온 430여 입양인들은 가족찾기 등 각종 행사를 통해 '조국의 그늘이 시원함'을 피부로 느꼈으리라.

그동안 해외에 보내진 입양인들은 15만명이 넘는다. 50~70년대는 전쟁과 가난으로 인해, 80년대 이후는 미혼모에게서 난 아이들이 해외로 보내져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고아수출국'이란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지만 뿌리깊은 혈통주의와 입양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 때문에 국내입양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해외입양인들은 대부분 나이가 들수록 고국에 대한 진한 그리움과 친부모를 만나고 싶다는 간절한 핏줄애를 토로한다. 그들 다수가 교육수준도 높고 안정된 직업을 가졌다. 따라서 자신들의 경험과 능력을 바탕으로 조국인 한국과 입양국의 가교 역할을 하고, 조국의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싶어한다. 높은 교육수준과 능력에다가 진한 조국애마저 있는 이들이야말로 국제화시대에 우리나라가 활용할 수 있는 또다른 소중한 인적 자원이 아닐까 싶다.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으려하고, 모국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어하는 입양인들에 대비되어 원정출산, 도피성 유학, 기러기 아빠, 이민 등이 날로 성행하는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일면이 떠올라 입맛이 씁쓰레하다. 입양인들에 대한 관심이 반짝 하는 일회성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화로 전환돼야 할 것이다. ■ 이경숙(취재부장)

독자의 소리 - 이렇게 생각한다

스님 노후문제 해결 나서자

스님들 중 64%가 '노후 건강 걱정한다'는 기사를 읽었다. 부처님의 진리를 펼치는데 전념하여야 할 스님들이 노후생활을 걱정하며 산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또한 스님들이 노후에 절에서 지내지 못한다는 사실은 한국불교의 병폐를 보는 것 같아 서글프기까지 하다.

이 문제는 사실 작은 일은 아니다. 노후생활을 보장받기 위해 젊었을때 재산을 모아야 하고 제자를 많이 두려고 한다.

토굴로 불리는 사설암자를 마련하려고 한다거나 불필요한 불사를 계속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수행자가 재산을 모은다는 것은 불교를 세속화시키는 주된 요인 가운데 하나로 한국불교의 위상을 낮추기도 한다.

현재 전국의 사찰에서 각종 불사가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스님들의 노후거처를 마련하는 불사가 추진되고 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책임을 따지자면 한사람 또는 한 부류의 잘못이라 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이 되도록 방치한 사부대중 모두의 책임이다.

따라서 스님들의 노후복지를 해결하는 것도 모두가 나서야할 일이다. 종단은 종단대로, 스님은 스님대로, 재가불자는 재가불자대로 할 일이 있다. 각자 위치에서 한국불교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스님들의 노후문제를 고민해보자.

모든 스님들이 노후문제를 걱정하지 않고 수행이나 포교, 강론 등에 전념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해본다. 진공(붓다뉴스)

불교계 단결된 모습 보여주길

이명박 서울시장의 서울 봉헌 발언은 공직자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한 종교편향성 발언이라는 점에서 많은 불자들에게 모욕감을 주었다. 많은 불교단체가 이 발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불교계의 대응은 뜻을 하나로 모으지 못한 채 혼란스러워 보이기까지 하다.

범불교대책위원회에서는 7월 19일 개인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을 미진하지만 사과로 받아들이는 쪽으로 일단락 지은 반면, 최근 동산반야회 등 7개 불교단체는 이 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한 것이다. 범불교대책위원회의 결정과 최근의 손해배상소송은 같은 불교계의 성명을 대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상반되어 일반인은 물론 불자들도 불교계 노선이 무엇인지 혼란스럽다.

120여개의 불교계 단체가 소속되어 있는 범불교대책위원회가 불교계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같은 손배소송이 뒤늦게 터져 나온 것일까.

단체 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불교단체들은 불교계의 목소리를 대표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좀 더 신중을 기해주길 바란다. 이지희(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개발보다 환경이 먼저다

지율 스님의 세 번째 단식이 벌써 한달을 넘겼다. 10년만의 더위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지율 스님은 뭇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몸을 다시 불사르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던 단식을 보았던 사람으로서 착잡함과 안타까움이 밀려올 뿐이다.

사실 지율 스님의 단식은 이미 예정돼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터널공사가 강행됐기 때문이다. 부실하게 실시됐던 천성산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해야한다는 여론 앞에서 꿈쩍도 않던 고속철도건설공단과 참여정부의 반환경 정책이 결국 지율 스님을 다시 청와대 앞으로 데려온 셈이다.

사실 지난해 불교계의 명분 없는 양보로 북한산 관통도로와 천성산 관통터널 공사가 재개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불교계의 환경운동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 순간에도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온몸을 내던지던 지율 스님의 모습에서 한국불교가 아직 살아있음을 느꼈었다. 부디 지율 스님이 건강하게 다시 수행자의 모습으로 되돌아 갈 수 있도록 우리 불자들이 마음을 모으자.

이영수(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현대' 만평 심 민 섭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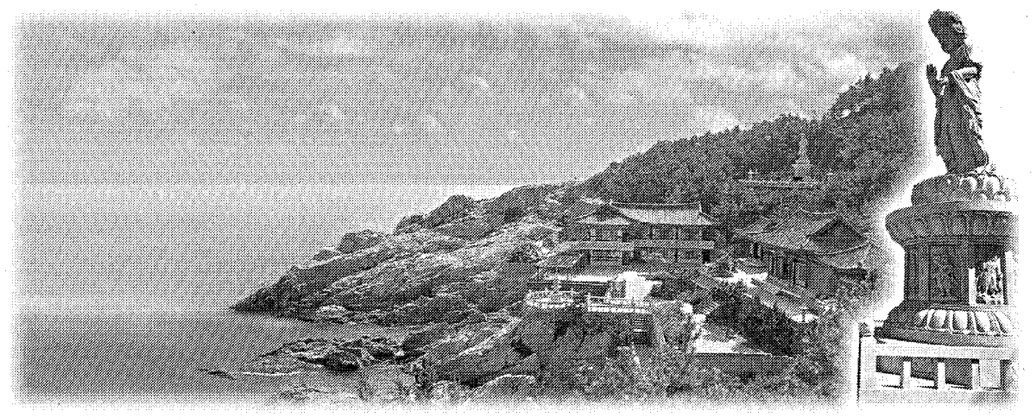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055) 963-9583 · 상담문의:055) 355-5626 산마을 토종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삼사순례 및 방생도량

귀의 삼보하옵고,
해수관음도량인 **해동용궁사**는 앞은 푸른 바다요, 뒤는 산으로 **삼사순례**나 **방생법회** 하는데 가장 좋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전국의 佛子님께서는 甲申년 새해를 맞이하여 해동용궁사에 오셔서 많은 공덕을 성취 하시기 바랍니다.



◀ 대형 주차장 완비
◀ 입장료 무료
◀ 점심공양 가능
◀ 방생물 배달해 드림

www.yongkungsa.or.kr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해동용궁사
전화: 051) 722-7744,7755

안양규 교수의
경전이야기 <32>



쿨한 사람이 되자

요즘 자주 사용되는 단어 중에 '쿨(cool)'이란 단어가 있다. '쿨'은 요즘의 세태와 대중문화를 설명해 주는 핵심적 코드로 유행하고 있다. 원래 '시원한'이란 의미의 '쿨'이 요즈음 젊은이들에게 '멋있다, 세련됐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어떤 제품을 소비하면 쿨해질 수 있다는 메시지가 담긴 광고까지 나오고 있다. '쿨'이란 단어는 인터넷에서 많이 볼 수 있으며, 책 제목에도 쿨이 등장하고 있고, 심지어 가수 이름에도 쿨이 있다. 시원하고 멋진 사람을 '쿨한 사람'이라고 한다. 각종 모임이나 단체에서 쿨한 사람들이 선호된다. 배우자가 바람이 나도 징징대지 않고 미련 없이 떠나 보내는 여자야말로 요즘 영화와 드라마 등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쿨한 여성의 모델이다. 남편의 불륜을 보고도 단호하고 침착한 표정을 잃지 않는 힐러리도 쿨하다. 마음 속 분노와 욕망을 억누르고 겉보기에 침착함을 유지하는 사람을 쿨하다고 부른다.

원래 '시원하다' 라는 말은 더위에서 벗어난 쾌적한 심리 상태를 지칭하는 말임에 틀림없다. '춥다' 라는 말도 더위에서 자유롭게 된 상태를 지칭하지만 쾌적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호되지 않는 것이다. 무더운 더위는 심신을 무기력하게 만들기도 하고 짜증나게 한다. 30도가 넘는 찜통 더위가 연일 기승을 부리면 사람들은 열대야로 제대로 자지 못하고, 불쾌지수가 높아져 주위 사람들과 다투기도 한다. 심한 폭염으로 농작물이 타들어 가고 축사의 가축은 죽어가고 심지어 사람의 생명마저 잃게 된다. 우리나라와 달리 인도와 같은 열대의 나라에선 40도 이상의 기온이 올라가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기도 한다. 작열하는 태양의 볼볕 더위나 용광로의 열기는 가히 살인적임을 누구나 알고 있다. 붓다는 이런 종류의 화염보다 더 위협적이고 치명적인 불꽃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 탐욕의 불꽃, 분노의 불꽃, 무지의 불꽃, 이 세 가지 불꽃이 가장 무서운 불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인도 불교 경전에선 이 세 가지를 삼화(三火)라고 한다.

<이티붓타카(Itivuttaka)>에서 붓다는 제자들에게 삼화(三火)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비구들이여! 세 종류의 불꽃이 있다. 무엇이 셋인가? 탐욕의 불꽃, 증오의 불꽃, 무지의 불꽃이 그것이다. 탐욕의 불꽃은 감각적인 쾌락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서 활활 타오르고, 증오의 불꽃은 살생에 휩싸여 있는 사람들에게서 활활 타오르고, 무지의 불꽃은 붓다의 가르침을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활활 타오르고 있다. 이 세 종류의 불꽃을 알지 못하고 중생들은 쾌락에 빠져 자신을 해치고 있다. 밤낮으로 붓다의 가르침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항상 부정관(不淨觀)을 닦아 탐욕의 불꽃을 끄고, 자비심을 지녀 분노의 불꽃을 끄고, 바른 지혜로 무지의 불꽃을 끈다. 3종의 불꽃을 소멸한 사람은 고통에서 벗어나게 된다."

3화는 손발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태운다. 평상시에 우리는 3화를 잘 느끼지 못한다. 3화가 우리 마음 속에 없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 3화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3화가 없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탐욕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지 못하고 숨어 있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는 것이지 탐욕의 불꽃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일단 탐욕의 불꽃이 왕성하게 타오르면 탐욕의 대상을 향하여 돌진하게 된다. 이런 모습을 부처님께선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고 있다. 일상 생활에서 우리는 탐욕으로 싸움이 일어나 서로 다치는 일을 자주 접한다. 분노의 불꽃에 휩싸여 자신과 주위 사람을 해치는 경우도 쉽게 볼 수 있다. 부부 싸움 끝에 홧김에 집에 방화하여 가족들이 모두 참사하는 경우가 분노의 불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잘 보여 주는 예이다. 무지의 불꽃은 탐욕이나 분노의 불꽃과 달리 더 은밀해 잘 드러나지 않지만 더 근본적인 것이다. 어리석은 행동은 항상 무지나 오해에서 비롯된다. 어리석게도 특정 이념이나 사상을 가지게 되어 수많은 생명을 해치는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인종차별주의나 공산주의 등 무지의 소산으로 이것에 희생된 사람은 얼마나 많은가?

가장 무서운 불은 탐욕·분노·무지의 불
三火 없애면 고통 사라지고 마음 시원

중생들은 3화로 마음 속을 태우며 살고 있다. 따라서 고통의 원인인 세 가지 불꽃을 없애면 고통이 사라지고 시원해지는 것이다. 마치 훨훨 타오르던 불도 그 땔감이 다하고 나면 꺼져 버리는 것과 같이 탐, 진, 치의 3화가 꺼진 것을 부처님은 열반이라 하였다. 3화를 소멸시킨 사람을 아라한 또는 붓다라고 한다. 붓다야말로 진정 시원한 열반을 성취하였으므로 쿨한 사람인 것이다. 속(마음)이 시원한 사람이 바로 쿨한 사람이지 속에선 3화를 간직하면서 외형적으로 멋지게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다. 더운 여름 쿨한 사람이 되어 보는 이로 하여금 시원함을 느끼게 해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여름 선물이 있을까?

■ 동국대(경주) 불교학과

'무감각과 나태' 성불의 敵

지상 백고좌

정관 스님

(부산 영주암 회주)





정관 스님은, 화두가 잘 안 들리는 이에게는 염불선을 권한다. '관세음보살' 이나 '옴마니반메훔'을 일념으로 염하다가 시절인연이 무르익으면 '관세음보살 하는 이게 뭔가' 하는 의심이 자연적으로 든다는 것.

멀리 광안대교가 한 눈에 내다보이는 부산 영주암 원통보전. 정관 스님이 계시는 곳이다. 선풍기가 없는 스님의 방엔 커다란 항아리에 부채들이 즐지어 꽂혀 있다. 한 낮의 햇살 속, 비탈길을 걸어 오른 뒤라 커다란 부채로 땀을 식혔다. 열려진 창으로 보이는 대숲을 바라보며 부채질을 하고 있을 때, 스님은 한 잔의 차를 우려 건네주셨다. "따끈한 차 한 잔 마시면 오히려 몸이 가벼워진다"는 말씀을 곁들였지만 차를 주신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었다.

"따뜻하지? <서장(書狀)>에 냉난자지(冷暖自知)라는 법문이 있어. 따스하고 차가운 것을 스스로 안다는 뜻이지. 차를 마시면 차다 뜨겁다를 금방 알잖아. 뜨겁고 차다는 것을 언제부터 알았을까?"

갑작스런 스님의 질문, 쉽사리 그 시작을 가늠할 수 없다. '차고 따뜻한 것을 언제부터 알았을까?'를 되뇌이고 있자니 과거로 시간여행을 떠난 듯 어린 시절을 거쳐 그 이전으로 거슬러가고 있었다.

육신은 물거품 같은 것

"생각해 보면 태(胎) 안에서 배운 것은 아니니 그 이전부터 알고 있었지? 그 태중 이전부터 아는 이 자리는 그럼 어디에 있나? 어디 있다 하고 고정시켜 버리면 그건 기독교 논리야. 동쪽, 북쪽, 서쪽 어디에 고정시켜 버리면 맞지가 않아. 어디에 있다고 점을 찍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있기는 있어. 그러니까 이 자리는 무처소(無處所)라. 그런데 처소가 없지만은 내가 말하고 싶을 때 입에 응해주고 보고 싶을 때 눈에 응해 주잖아. 그렇지만 입에서 찾으면 입에 없고, 눈에서 찾아도 눈에는 없거든. 없지만 분명히 있기는 있어. 그러니 있다고 하면 상(相)에 떨어지고 없다고 하면 허무주의에 떨어져. 그러니 '냉난자지'의 이 자리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묘한 법이야."

스님은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는 그 자리, 처소가 없지만 분명히 있는 그 자리를 일러주기 위해 '차 한 잔' 건네는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다.

"불교가 추구하는 것은 냉난자지의 그 자리를 탐구하는 거야. 불교는 독거락(獨居樂), 독거안식(獨居安息)을 추구해. 그러나 말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냐. 직접 증득해야지. 처소도 모양도 빛깔도 없는 냉난자지의 이 자리는 석가모니 부처님에게만 해당되는 자리가 아냐. 차다, 따뜻하다를 아는 그 자리는 흑인에게도 백인에게도, 축생에게도 벌레에게도 다 해당되는 자리야. 말이 다르고 표현이 다를 뿐이지 따뜻한 것은 따뜻한 것으로, 찬 것은 찬 것으로 알기 때문에 본래지(本來知)야. 본래부터 아는 자리, 그러니까 본래부터 성불이라는 말이 나오지. 그러나 나와 닿는 연(緣)이 없으면 따뜻한지 찬지 모르잖아? 연에 의해 나한테 닿아 인식이 생기면 그 인식 때문에 차다 뜨겁다, 산다 죽는다가 생겨. 그러니 인식을 벗어나면 죽음이 없어. 그러니 본래지에 죽음은 없는 거지."

생사가 없고, 시공이 없으며 공포도 없는 이 본래지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일깨워 주기 위해 스님은 <죽음이 없는 낙(樂)>이라는 책 출간을 앞두고 있다. 혼탁한 세상, 방향을 잃고 돌아가는 세상에 바른 길을 열어 주고픈 마음에서다.

스님은 바른 견해가 절실한 시대에 와 있지만 그

- 불기 2549년을 맞이하여 원일카렌다에서는 참신한 기획과 디자인으로 2005년 카렌다를 불자님께 널리 보급하고자 제작 하였습니다.

2005 원일 불교카렌다 출시!!!

카 렌 다

· 1.000부이상 주문시 표지그림으로 귀 사찰을 넣어서 인쇄를 원하시면, 무료로 해드립니다. (사진 또는 필름사용 가능)
· 각 사찰카렌다 독판을 저렴하게 제작하여 드립니다.
· 문의사항 전화주시면 카다록을 보내드립니다.

후회없는 선택!
원일카렌다!

15년 전통
최고의시설
최상의제품

원일문화사
서울시 중구 인현동 1가 38-8
TEL:02)2277-0304
FAX:02)2268-6732
www.wonil-c.co.kr

현대불교신문
창사10주년
독자사은대잔치

※ 탄허스님의 육성법문 일부분은 탄허닷컴(www.tanheo.com) 육성듣기 코너에서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출고정가 15만 12만 6000원

참고교재 1권 포함
5만원(74.8%할인)

단!
"500분"께만!
기회를 드립니다

<<탄허스님의 佛·儒·仙·華嚴 특강(CD18매)>>

탄허스님 육성 강의
(동양사상 특강 CD)

탄허 대종사께서 1977년과 1982년 동안거 기간에 전국 강원의 중강이상의 스님 80여 명을 대상으로 하루 8시간씩 강의한 내용을 녹음한 250여 개의 테이프를 간추려 18장의 CD에 담아 처음으로 공개하는 스님의 육성 강의

■ 판 매
책 방 : 여시아문 전화 02)737-0695(www.yosiamun.com)
마 하 몰 : 주문전화 02)732-1520 (www.mahamall.co.kr)
주 소 :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33



차를 마실때는 '차고 따뜻한 것을 아는 그놈'을 의심하라는 정관 스님. 차 마시고 밥 먹는 일상사에 도(道)가 살아있다고 누누히 강조하셨다.

것에 눈뜬 사람은 드물어, 부처님 법을 널리 펴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불교는 정견(正見)에서 출발해. 바로 보란 말이야. 육신은 이슬 같고 물거품 같고 번갯불 같다는 각성이 있어야 해. 진리는 영원이지만 육체는 잠깐이라는 감각이 있어야 존재가치를 살릴 수 있는 거야. 무감각과 나태는 성불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이야."

스님은 무감각한 사람은 성불할 수 없고 불제자가 될 수 없다는 극단적인 말을 할 만큼 평소 '깨어있는 정신'을 강조해 왔다. 올바른 감각이 있어야, 즉 깨어있어야 자기 방향이 생기기 때문이다. 감각이 있으면 조금 이탈해도 곧바로 돌아올 수 있지만 감각이 없으면 길을 잃은 줄도 모르고 헤매게 된다는 것이다.

간화선의 생명은 의심

철저한 자기 관리를 위한 정관 스님만의 방편이 하나 더 있다. 매일 불(佛)자를 열 번 쓰는 것이다. 벌써 30년을 한결같이 이어온 일과다. 그만큼 스님은 깨어있는 정신으로 스스로를 살피고 정진에 게으르지 않다.

"간절한 신심이 제일 중요해. 신심은, 몸은 시한부이고 결국 변한다는 '변함'의 인식에서 비롯돼. 우리의 몸이 늙음, 병듦, 죽음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정확한 인식 말이야. 오전에 먹던 김치가 오후에 맛이 다르면 우리는 그저 김치 맛이 변했다고 하지? 그렇지만 엄밀히 따지면 김치 맛만 변한 게 아냐. 우리 몸의 세포도 변했어. 한순간도 고정됨이 없이 변해가는 존재라는 인식이 있어야 그것에 대해 대처하기 위해 영원불멸의 자리를 찾게 돼. 신심은 불교의 첫 관문이야."

스님에게 신심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몸소 보여주신 분은 은사 동산 스님이었다. "우리 스님의 특기는 신심이었어. 사람 몸만 빌린 것이지 그냥 사람은 아니다 생각했을 정도였지." 은사스님을 회고하던 스님의 눈길이 벽에 걸린 은사스님의 사진에 한동안 머물렀다. 신심을 일으킨 후엔 어떻게 공부를 이어가야 할까?

"우리나라 불교에 혼란이 오고 있어요. 간화선을 해 보다 안 되니까 간화선 불신(不信) 운동이 나올 정도가 됐지? 간화선이 안 된다고 하는데 나는 돼. 안 되는 자기들 합리화시키려고 전체를 부인하고 있으니 그건 위험한 발상이지. 간화선으로 가야 사상(思想)이 나오거든.

사상이란 맑은 물과 같아. 밑에 뻘 물이 있다 해도 맑은 물이 내려가면 뻘 물이 차츰차츰 맑아지잖아. 간화선은 풍요로운 사상의 근원이야."

그렇다면 왜 일각에서 간화선 무용론이 일고 제3 수행법이 물밀 듯 밀려드는 것일까? 스님은 그 원인을 '의심이 없기 때문'이라고 잘라 말했다.

"진리에 대한 의심이 확고해야 간화선이 되는 것인데 그것 없이 앉아 있으니 재미도 없고 갑갑해서 열이 올라 상기병이 생기고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야. 어떤 것이든 의문이 하나 딱 걸리면 그 의문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두가 돼. 그게 화두야. 그건 고기가 낚시 바늘을 문 것과 같아. 낚시 바늘을 물고 나면 고기는 꼼짝을 못해.

의문에 걸리면 시간이 어찌 가는지, 세월이 어찌 가는지 몰라. 그러니까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자기 몰두에 심취하고 자기 성찰이 깊어지면 그것이 자기 낙이 되는 것이지. 그러나 의문이 없으면 감각도 없고 아무 진전이 없는 거지."

스님은 묵조선, 간화선, 염불선에 대한 차이를 분명하게 짚어 주며 간화선의 생명은 의심이며 그 의심은 자동차의 시동을 거는 것과 같아서 간화선의 생명과 같다고 거듭 강조했다. 스님이 화두가 잘 잡히지 않는 사람에게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의지적 작용으로 권하는 것이 염불이나 주력이다. 자동차 시동을 거는 방편이 된다는 것이다.

"의문이 들지 않는 사람한테는 의지적으로 의문을 끌어내는 방법으로 염불, 주력을 권해. 염불선(念佛禪)을 하라는 것이지. 염불이면 염불이지 무슨 염불선이냐고 비판하는 스님들도 있지만 해보면 알게 돼. '관세음보살'이나 '옴마니반메훔' 주력을 꾸준히 해 봐. 화두선이 되는 사람은 만 명에 한 명이 어려워. 그러니 화두가 안 될 때는 의지적인 염불선을 하란 말이지. 어느 순간 '관세음보살하는 이게 뭔가?'하는 의심이 생기고 그때부터 의지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염불선이라고 하는 거야. 염불선에 모든 게 다 들어 있어. 해보면 분명히 돼. 내가 그 장본인이야."

스님도 처음엔 염불로 시작했다. 졸음을 쫓기 위해 서서 관세음보살 주력을 '죽도록' 했다. 염주를 돌리면서 관세음보살 주력을 하다보니 염주 줄이 자꾸 끊어져 나중엔 철사로 바꿨지만 그것마저 끊어질 정도였다. 범어사 원효암에서 일주일 단식기도를 하며 주력을 하던 어느 순간 '관세음보살 하는 이 놈이 무언가'하는 의심이 올라왔고 스님은 동산 스님께 달려가 여쭈었다. "그대로 하면 돼." 은사스님의 대답이 아니었더라도 스님은 계속 그 길을 갔을 것이라고 할 만큼 공부 힘을 얻었다.

자기 성찰해야 윤회 벗어나

"모든 존재의 목적은 이고득락(離苦得樂)이야. 고통을 멀리하고 즐거움을 얻는 것이지. 여기서 즐거움이란 말은 즐기는 것과는 천지 차이야. 그 즐거움이란 앞서 말했던 죽음이 없는 낙을 찾는 것을 말해.

그렇지만 요즘 사람들은 순간을 즐기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 이고득락을 원한다고는 하지만 이고득락이 결코 될 수 없는 길로만 가고 있단 말이지. 이고득락은 자기 성찰, 생각하는 나, 자기를 알고자 하는 나, 자기를 깨닫고자 하는 나를 일깨워 자기를 살피고 자기를 증득하는 것을 말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나' 이것이 자기 성찰이거든. 자기 성찰이 아니고서는 이고득락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 이고득락의 길로 가는 것이 불교야. 이고득락의 길로 가기 위해 몸부림을 쳐봐. 그러면 분명히 돼요." 정리=천미희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정관 스님은

정관(正觀) 스님이 매일 새벽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하늘을 보는 일이라고 했다. 이유는 하늘을 볼수 있다는 것이 더할 수 없이 소중하고 감사해서다. 매일 '불(佛)'자 10번 쓰는 것도, 아침 예불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스님에게 모두 소중하고 감사한 일상들이다.

"마음이 편안하고 고독이 없고, 허전함이 없고, 서도 기쁘고 앉아도 기쁘고 항상 기뻐야 돼. 그것이 불교가 가는 길이야." 스님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유명 인사들의 자살 얘기를 꺼내며 "아무리 재산이 많고 명예가 높아도 스스로 독거락을 누리지 못하면 결국 실패자로 끝을 맺게 된다"고 덧붙였다.

1933년 경주에서 태어난 스님은 1954년 동산 스님을 은사로 계를 받고 57년 비구계를 수지했다. 범어사 강원을 졸업하고 쌍계사 주지, 범어사 주지 등을 지낸 스님은 지난 7월로 설립 10주년을 맞이한 '불국토' 초대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따뜻한 마음과 따뜻한 가슴만 잃지 않으면 그게 바로 복지의 출발"이라고 강조한 스님은 "불국토의 설립 이념인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신심을 바탕으로 자기 성찰의 길로 가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진각 스님의

스님이야기

연관 스님

연관 스님은 세상에 드러내기를 꺼리는 분 가운데 한 사람이다. 나는 지리산 실상사 산내 암자인 약수암에 주석하고 계실 때 처음 뵈었다.

그 때 나는 해인사에서 발행하는 월간 <해인>의 편집장을 맡고 있었는데 당시 불교계는 승속을 막론하고 현실참여를 매우 꺼리는 분위기였다. <해인>지는 시대의 조류를 잘 반영하며 또 사상적으로 잘 이끌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사회에 온 몸을 던져 부처님의 사상을 몸소 보이는 선지식을 필자로 주로 발탁하였다.

<해인>지의 '호계삼소(虎溪三笑)'라는 난은 드러나지 않게 '드러나는' 수행을 하는 제방 스님들을 소개하는 지면인데, 연관 스님을 취재대상으로 잡았다. 그 기사의 영향력을 잘 아는지 연관 스님은



그림 · 문병성

도무지 취재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대답뿐이었다.

실상사 도법 스님으로부터 약간의 사전지식을 습득한 후, 실상사에서 샛길로 한참을 오르다 보니 텁수룩한 차림의 스님이 "누구요?" 하면서 나왔다. 인터뷰를 해야 하는데, 스님은 "나는 도무지 알릴 것도, 또 아는 것도 없다, 그러나 이왕 여기까지 올라오느라고 수고했으니 잠은 재워 주겠다. 그러니 자고 내일 새벽같이 떠나라"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떠날 수 있는가? '서울에서 여기까지가 어딘데, 어림없는 말씀이지'라고 다짐하며 짐을 풀고 나서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스님께 얘기를 유도했지만 연관 스님은 속내를 잘 드러내 주지 않았다. 주굉 스님이 저술한 <죽창수필(竹窓隨筆)>을 번역한 그야말로 실력 있는 스님인데도 한사코 심도 있는 대화를 마다했다.

서재 책상위에 놓여있는 책을 훔쳐보니 벌써 번역작업에 들어간 지도 한참인 책이 깨알처럼 적혀있는 공책과 나란히 놓여 있었다. 우리가 막 다른 골목에 처한 심정으로 막무가내 답답한 소리를 해대고 무식함을 드러내니 그때서야 스님은 본인도 모르게 우리의 무식함을 잡아주기 위해 속내를 조금씩 드러냈다. 겨우 조금씩 드러나는 박학다식함을 놓치지 않으려고 깊은 밤에 그야말로 눈에 쌍심지를 켜고 밤샘을 해서 인터뷰 분량을 대략 맞췄다. 작별 인사를 나누는 아침에 번갯불에 콩볶듯 사진기 셔터를 눌렀다. 그래서 상의가 승복 대신 파카를 입은 연관 스님을 <해인>지에 실었다. 방에서는 감히 사진기를 꺼내 보지도 못했다. 사진기를 들기만 하면 아예 말문조차 꺼내지 못하게 하니 사진 찍는 것은 엄두도 못냈다. 스님은 혹여 우리가 사진을 찍을까봐 승복위에 파카를 덧입은 것이었다. '호계삼소'에서 다른 스님들의 사진은 단정한 승복차림으로 장식하고 있지만, 연관 스님의 '불량(?)해 보이는' 차림새의 사진이 <해인>지를 통해서 불교계 언론에 처음으로 실리게 된 사연이 이랬다.

그 뒤로 연관 스님 동정이 가끔 불교계 언론에 실리는가 싶더니 어느 날 다시 종적을 감췄다. 우연히 들은 바, 지난 동안거는 봉암사 선원에서 참학하였다고 했다. 두루 섭렵한 교학을 바탕으로 마음공부에 온 힘을 쏟아 부었던 게다.

<해인>지로 인해서 연관 스님과 인연이 된 후

두루 섭렵한 교학 '탁월'
권위의식 없고 소탈·검소

로는 남원 근처를 지나면 실상사 뒤편의, 소나무 아래 아담하게 황토로 짓고, 지붕은 낙엽송으로 운치 있게 올려놓은 스님의 작은 집에 가끔 들러서 차 한 잔 얻어 마시기도 한다.

연관 스님과 스스럼없이 지내는 사람들은 지위가 높은 고관대작이 아니라 들꽃 같은 민초들이다. 스님은 누구와도 소탈하게 지낸다. 권위의식이 전혀 없고 법랍 따지기를 싫어한다. 사람을 편하게 대하고 아랫사람들에게도 스스럼없이 대한다. 또 일상생활에서의 근검절약이 몸에 배어 있다. 어두운 밤이면 전기도 사람이 있는 곳만 밝힌다. 이런 점은 집을 떠나서 밖에서도 마찬가지다. 그저 의미없이 아끼는 것은 탐욕을 불러 일으키지만 있는 그대로 처처에서 만족하고 과욕하지 않는 것이 바로 도이기 때문이다.

성철 스님 만장전시회를 예술의 전당에서 했는데 도법 · 수경 스님과 함께 연관 스님이 상경해서 참관하고 내려가려고 하던 차에 그분들과 맞닥뜨렸다. 그런데 이분들 대화가 남원까지 가는 고속버스 출발하는 차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 어떻게 시간을 보낼 것인가로 서로 의논 중이었는데, 그 대화내용이 내게는 신선하게 들렸다. 연관 스님은 콩국수나 한 그릇 먹고 가자고 했다.

옛날 한 도인이 이렇게 말했다. 한 객이 도(道)가 뭐냐고 물으니 "배고프면 밥을 먹고, 잠이 오면 잔다"고 답했다. 쓸데없는 망상과 미사여구(美辭麗句)로 사람들 현혹시키지 말고 순리대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야말로 오유지족이며 청빈이 아닌가 싶다. ■ 해인사 원당암

달라이라마 존자님이 한국 불자들을 위해
티벳 불교의 원전인 입보리행론(깨달음에 드는길)을
4일동안이나 설법합니다.
평생에 만나기 어려운 이 귀한 법회에 동참하여
좋은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04년 10월 27일 ~ 10월 30일(4일간)
■ 장소 : 인도의 수도 델리
■ 주관 : 여수 석천사 石泉寺(진옥스님 061-662-1607)

한국 불자들을 위한 달라이라마의 특별법문
Dalai Lama's Dharma Teaching

달라이라마께서 <입보리행론>을 통해 인도의 위대한 불교 스승인 '샨티데바'의 생생한 법음을 들려 줄 것이며 불교 수행의 핵심을 일깨워 줄 것 입니다.
입보리행론(入菩提行論)은 보리심을 일깨워 보살행을 실천하고 이를 통해 깨달음에 이르도록 하는 수행 지침서로서 우리의 화엄경이나 법화경에 비견 할 만한 경전입니다. 달라이라마께서는 이 법문을 통해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복돋아 줄 것이며 올바른 수행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행사일정 (달라이라마 설법과 불교성지순례)

A팀 기간 : 10월24일~11월1일 9일간 (동참금 225만원)
(인천-델리-자이푸르-델리(설법)-아그라-인천)

B팀 기간 : 10월26일~11월4일 10일간 (동참금 225만원)
(인천-델리(설법)-아그라-산치대탑-아잔타,엘로라석굴-뭄바이-인천)

C팀 기간 :10월25일~11월3일 10일간 (동참금 225만원)
(인천-델리-아그라-델리(설법)-산치대탑-아잔타,엘로라석굴-뭄바이-인천)

D팀 기간 : 10월26일~11월8일 14일간 (동참금 245만원)
(인천-델리(설법)-기원정사-룸비니-쿠시나가르-바이샬리-파트나-나란다,
라즈기르-보드가야-아그라-델리-인천)

참가신청 및 문의 (자세한 내용은 연락주시면 안내문을 발송해 드립니다.)

Silkroad (주)실크로드여행사 전화: 02-720-9600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 앞)

티벳 불교의 원전을 통해 달라이라마의 살아있는 법문을 만나게 됩니다. 이번 통역은 달라이라마의 제자이며 17년간 공부한 청전스님과 티벳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국 유학생들이 맡아 진행합니다. 입보리행론은 청전스님이 번역한 교재를 제공합니다.

※ 본 행사는 신청하신 분들만 참석 가능합니다.


더위가 한풀 꺾이는 8월 말. 차인과 도예가가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진다. 사진은 지난 4월 열린 '제1회 다도구 특별 기획전' 모습.

차인과 도예가들이 만나면…

여름 무더위가 한풀 꺾이는 8월 말, 차인과 도예가들이 한자리에서 만나는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제1회 다도구 워크숍'은 차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다기(茶器)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행사로 도예가에게는 만남과 교류의 장이, 차인에게는 다기를 보는 안목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8월 26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국제도자협회(IAC, International Academy of Ceramics)의 한국총회는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행사로, '한국 차문화와 다기전' 등을 통해 우리 차문화와 다기를 세계에 알리는 자리다.

경주 기림사 '다도구 워크숍' (8월 19~20일)

제작 체험·특강·전시 등 행사 다채

월간 <Tea&People>이 8월 19일과 20일 경주 기림사(주지 종광)에서 개최하는 '제1회 다도구 특별 워크숍'에서는 다도구에 관한 특강과 주제발표, 토론, 다구 전시회 등이 펼쳐진다.

<Tea&People> 김동현 편집장은 "차인과 도예가,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우리 다도구의 미래와 전망을 논의해보자는 뜻에서 행사를 기획했다"며 "단순히 강의만 듣고 가는 행사가 아니라 전문가들에게 기술적 노하우를 배우고 다도구를 보는 안목을 기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행사 첫째 날인 19일 오후 2시에는 원로 도예가 홍재표 씨의 '도자다구의 제작과 체험' 시연행사와 함께 김동현 편집장의 '다도구의 기능과 특성', 이병인 교수(밀양대)의 '다도구 도예가들을 위한 제언' 등의 특강이 마련된다. 이어 오후 4시부터는 참여 작가들의 대표작품 및 다인소장품 전시가 열린다. 저녁 6시부터 9시까지는 일송요 황동구 대표의 '찻사발의 특성과 제작과정' 발표에 이어 참가자들의 대화마당이 이어진다. 이튿날인 20일 오전 8시부터는 기림사를 비롯, 경주의 문화유적을 답사한다. 참가를 원하는 차인과 도예가는 8월 15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02)991-7847

국제도자협회(IAC) 총회(8월 26~30일)

현대 도자 흐름·한국 다기 우수성 재조명

한편 8월 26일부터 30일까지 이천세계도자센터 및 서울 올림피아 호텔 등에서 열리는 국제도자협회(IAC) 한국총회에서도 우리 차의 향기를 느낄 수 있다. 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와 IAC 한국위원회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총회에서는 특별전으로 '한국차문화와 다기전'이 마련돼 우리 차문화를 알리는데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7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이천세계도자센터 제4전시실에서 열리는 '한국차문화와 다기전'은 한국 다기의 우수성을 재조명하고 한국 도자문화의 현대적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된 행사다. 행사 기간 동안 세계 각국의 도자 관련 필름 상영, 전통가마 불지피기 시연, 전통차 시음, 한지 제작 시연 등이 펼쳐진다.

또한 26일 개막식에는 동아시아차문화연구원(원장 박동춘)의 '선차(禪茶) 문화공연'이, 27일에는 미산 스님(조계종 총무원 국제담당 특별보좌관)의 '한국 선예술(禪藝術)의 세계' 특강이 마련된다.

유네스코 자문기관이자 비영리 단체인 IAC는 현대 도자의 흐름을 제시하고 도자를 통한 국제간 교류를 도모하기 위해 1953년 창설된 단체다. 현재 55개국 489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년마다 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031)631-6512

여수령 기자

다도구 워크숍 일정

19일

14:00~17:00 특강 및 주제발표
1.인사말-종광 스님(기림사 주지)
2.도자다구의 제작과 체험-홍재표(원로 도예가)
3.다도구의 기능과 특성-김동현(월간 <Tea & People> 편집장)
4.다도구 도예가들을 위한 제언-이병인 교수(밀양대)
16:00~21:00 다도구 작품전시 및 감상
18:00~21:00 토론 및 대화
1.인사말-법심 스님(부귀사 주지)
2.찻사발의 특성과 제작과정-황동구(일송요 대표)
3.작품감상 및 전체 토론 체

20일

08:00~11:00 문화답사 및 대화
장소:기림사

IAC 한국총회 일정

26일

08:30~09:30 이천세계도자센터 접수창구에서 참가자 등록
10:00~11:00 IAC총회 개막식 및 태평무 공연
11:00~12:30 강의 / '성리학과 서원건축' -김봉렬
14:00~17:00 광주조선관요박물관 관람
17:00~18:00 전시 개막식
19:00~21:00 환영만찬

27일

09:30~10:00 공연/거문고 독주
10:00~11:00 강연 / '한국 선예술의 세계' -미산 스님
11:00~12:00 강연 / '초지역적 문화 속에서 본 세라믹' - 이영철
14:00~17:30 여주생활도자관 관람 및 영릉 답사
18:00~19:00 선차(禪茶) 문화공연
19:00~21:00 전통가마 불지피기 및 사물놀이

28일

09:00~18:00 IAC 회원 총회 및 경기문화 투어
18:30~21:00 IAC 총회 폐막식 및 친교의 밤 행사

28~30일

서울지역 답사: 도예 작가 방문, 종묘 경복궁 인사동 방문

녹차, 여성 위암 예방에 좋다

녹차를 많이 마시는 여성은 위암에 걸릴 확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최고 절반 이하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전국 40~60대 남녀 7만3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7~12년 동안 추적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8월 4일 밝혔다. 연구팀에 따르면 녹차를 하루 5잔 이상 마시는 여성의 경우 한 잔 이하를 마시는 여성에 비해 위암에 걸릴 위험이 33%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장의 아랫부분에서 암이 생길 확률은 하루에 한 잔 이하로 마시는 여성의 약 50%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남성의 경우 음주와 흡연 등 다른 요인으로 인해 위암과 녹차의 상관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었다.

한국차인련, 지도자 연수회

한국차인연합회(이사장 박권흠)는 '제19회 전국 차생활 지도자 연수회'를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대구은행 연수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조별 토론회와 행다례 시연, 강연회 등이 펼쳐질 예정이다. 연수 참가자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한다. (02)734-5866

한국차문화협회, 하계연수

한국차문화협회(이사장 이귀례)는 8월 21, 22일 양일간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제23회 차생활 예절 지도사범 하계연수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한국차문화대학원의 발표회와 차생활 예절 지도사범 및 차문화대학원 수료식이 열릴 예정이다. 참가비 9만원. (02)701-0475

명원다도대학원 수강생 모집

명원문화재단(이사장 김의정)은 2004년 가을학기 명원다도대학원 다인과정 및 명원 차문화원 입문과정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9월 10일 개강하는 다인과정은 명원사범과정 수료자나 다도입문 8년 이상자 또는 관련학과 학위소지자에 한해 수강이 가능하다. 9월 7일 개강하는 명원 차문화원 입문과정은 차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접수는 8월 31일까지 홈페이지(myungwon.org) 또는 전화로 가능. (02)742-7190

우리 사찰 차 모임 — 부산 홍법사 무진향

끝없는 차향기 내면의 거울


무진향 회원들이 지난 5월 홍법사 동자승 출가 체험 행사에 참가한 어린이들에게 다도를 가르치고 있다.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의 다도모임인 무진향(無盡香, 회장 김정희)에선 향기가 난다. 2003년 10월에 결성돼 그 연륜은 짧지만 회원들이 전하는 차향은 다함이 없다. 기본과 전통을 중시하는 다도 모임인 무진향의 회원은 모두 18명. 그리 많지 않은 회원이지만 이들 중에는 오랫동안 다도를 생활화 해온 이들이 절반을 넘는다. 그러나 무진향을 만들면서 모두 초심으로 돌아갔다. 한 다도시연, 허공마지바라밀제 다도시연 등 무진향의 향기는 두루 퍼져 허공을 채웠다. 특히 초등학생들을 위한 다도교실은 무진향 회원들에게 차를 배우고 익힌 보람을 만끽하게 한 시간이었다.

"아이들이 차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 했는데 다도 시연이 시작되자 회원들의 일수거일투족을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볼 정도여서 깜짝 놀랐어요." 김정희 회장은 차가 세대와

다도 예절위해 절하는 법 3개월 간 교육
'외국인과…문화기행' 등 차 홍보에 진력

박수자 동다송문화원 원장을 지도강사로 초빙하면서 그간 배웠던 다도를 모두 잊고 기본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임했기 때문이다.

매주 금요일마다 다도에 관한 이론, 실습과 예절 교육을 병행하면서 회원들의 활동도 서서히 본궤도에 오르기 시작했다. 홍법사의 크고 작은 행사에서 무진향 회원들은 몸에 배인 예법으로 다도를 선보였다.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멋과 전통을 알리는 '외국인과 함께 하는 문화기행'에서도 무진향의 다도 시연은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성년을 맞은 청소년들을 위한 다도시연 등 무진향의 향기는 두루 퍼져 허공을 채웠다. 특히 초등학생들을 위한 다도교실은 무진향 회원들에게 차를 배우고 익힌 보람을 만끽하게 한 시간이었다.

"아이들이 차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 했는데 다도 시연이 시작되자 회원들의 일수거일투족을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볼 정도여서 깜짝 놀랐어요." 김정희 회장은 차가 세대와 인종을 뛰어넘는 소통의 매개가 될 수 있다는 것에 감탄하며 차에 더욱 매료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무진향 회원들이 말하는 차의 매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차는 나와 타인을 잇는 매개인 동시에 나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주기 때문이다. 이현자 부회장과 양옥희 총무는 "차를 배우는 시간은 나를 돌아보고 성찰의 시간"이라며 "행다법을 배우며 걸음 하나, 손짓 하나에 마음을 모으다보면 어느새 마음이 가라앉아 기도의 시간이 되곤 한다"고 입을 모았다.

부산=천미희 기자

인터뷰

김정희 회장
하심·배려의 마음으로 봉사



"차를 알리고 차를 대접하는 활동 외에도 우리의 행동 하나 하나가 차향을 전하는 몸짓이 되어야죠." 하심과 배려로 봉사를 강조하는 무진향은 도량 내 잡초 뽑기, 공양 시간 배식 등 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한다.

"청소년들을 위한 다도 교실과 예절 교실을 열고 싶다"는 김정희 회장은 "많은 이들이 차를 통해 차분해지고 또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된다면 그것만큼 보람있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진향은 다도를 지도하는 박수자 선생님의 독특한 수업방식인 1분 스피치 덕분에 2기생 모집을 앞두고 신청자가 줄을 잇고 있다. (051)508-0345

2004년 해인사 차문화 수련법회 안내

장마의 빗줄기가 창밖의 온 세상을 시끄럽게 합니다.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칩니다. 이때 향긋하고 맛깔스럽게 우러난 찻잔에서 편안함과 푸근함을 느낀답니다. 이러한 행복을 느끼기 위해 가야산 홍류동 계곡의 한켠에 자리 잡은 해인사에서 차 한잔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인사 다경원은 이슬처럼 맑은 물과 차향의 은은함, 자신의 심신을 맑히고, 좋은 벗들과 함께 하는 차문화를 계승 발전하고자 하는 학인스님들의 모임입니다.
다경원은 차문화 수련법회를 아래와 같이 1200년 불교문화의 종가인 가야산 해인사에서 갖고자합니다. 푸르름이 가득한 산사의 향음에서 차와 불교문화를 배우고 느끼며 자신을 돌아보는 뜻 깊은 시간이 될 겁니다.

- 주 제 : 차와 나의 부처님과 인연
- 입 재 : 2004년 8월 28일(음 7월 13일) 토요일 오후 1시
- 회 향 : 2004년 8월 29일(음 7월 14일) 일요일 오후 3시
- 장 소 : 해인사 보경당
- 참가대상 : 차와 불교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
- 특강강사 : 박희준 (향기를 찾는 사람들 대표)
  여상명 (도예가 : 전통장작가마 밝달가마)
  법진스님 (해인사 강원 대교강사)
- 참가인원 : 120명(선착순 마감)
- 참 가 비 : 4만원
- 접수안내 : Tel.055)934-3081
  - 카페 : http://cafe.daum.net/darokyungkuen
  - E-mail : whd-rhkd01@hanmail.net
    kmrbin@hanmail.net
- 신청 온라인 계좌 : 농협 843174-52-023648 (해인사 다경원)



지금 드시고 있는 보이차는 어떠십니까?
고급 보이차와 좋은 찻그릇을 만날 수 있는 곳





보이차의 품격이 다른·茶人들이 즐겨 찾는
茶友茗家

고급보이차 전문(광운조기,인급,호급차)
고급 자사호(공예사,고급공예사급)
고급 다관 및 다완
녹차,청차,말차
괘목 다반

찾아오시는길
지하철 3호선주엽역 3번출구
(그랜드백화점건너편)
031)911-1044
011-307-6620
e-mail : hajun2000@dreamwiz.com
※방문하시면 언제나 좋은 보이차 시연이 가능합니다

정목 스님이 말하는 '원효의 염불선' <8>



부처님의 지혜

수행의 길에서 진실한 믿음을 일으켜 순일하게 정진하지 못하고 중도에 단념하거나 이곳 저곳의 수행법에 기웃거리며 헛되이 세월만 보내는 것은 스스로 믿고 성취해야 할 부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깨달음 이전에 부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아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수행문마다 다르게 말하고, 다시 수행의 단계를 오를 때마다 차원 높은 이해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원효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고뇌하다가 팔만사천 법문으로 펴 보이신 부처님의 지혜를 간단하고 알기 쉽게 요약하는 작업이 필요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원효는 자신의 이론에 반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의 지혜를 성소작지(成所作智), 묘관찰지(妙觀察智), 평등성지(平等性智), 대원경지(大圓鏡智)이며, 이 네 가지 지혜의 궁극은 "일체 경계는 일심인 지혜"를 증득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네 가지 지혜는 일심의 바다에서 솟아나는 불가사의한 작용입니다. 그러므로 전체를 불지(佛智)라 하고 네 가지 지혜를 구별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보여준 것입니다.

원효는 유식(唯識)학파에서 세운 전식득지(轉識得智)설을 수용하여 네 가지 지혜를 해설합니다. 유식에서 말하는 식(識)이란 진망(眞妄)이 화합되어 청정하지 않은 분별식입니다. 8식 가운데 제8아뢰야식을 근본식이라 하며 나머지 7식은 이 근본식을 원인으로 해서 나타납니다. 분별하는 마음들로부터 무분별지로 전환하여 지혜를 얻는 것을 전식득지(轉識得智)라 합니다. 또, 전의(轉依)라고도 하는데 생사의 법으로부터 열반으로 전환하여 진여(眞如)에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원효는 유식설, 즉 마음 법에 의거해 부처님의 지혜와 정토의 경계를 해설하기 때문에 서방정토와 유심정토를 포용하여 다 함께 일심의 바다로 향할 수 있도록 회통하는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서방정토는 범부의 분별하는 마음, 물든 의식 밖에 있는 깨달음의 세계입니다. 유심정토는 분별하는 마음을 지혜로 전환하여 바라보는 경계입니다. 서방정토가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은 깨달음의 세계가 실재함을 밝히는 것이며, 유심정토를 말하는 것은 예리한 근기는 이 땅에서 깨달음으로 정토의 경계를 감득할 수 있음을 밝힌 것입니다. 원효는 근기와 업력에 따라 의혹하는 경계가 다르므로 그에 따라 구별하여 소상히 밝히고 믿음을 일으키도록 권했습니다. 그 가운데 "믿음을 성취하여 발심했는가?"라는 물음을 핵심으로 칭명염불과 관상염불을 권합니다.

근기와 업력에 따라 의혹하는 경계 달라
각각의 모습 구별해 칭명·관상염불 권해

만약 정토의 존재를 믿되 연기의 도리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성소작지를 진실로 믿고 칭명염불을 행하면 정토에 왕생하여 윤회를 벗어납니다. 근기가 예리한 자는 묘관찰지를 믿고 관상염불을 행하면 이 땅에서 정토의 경계를 감득합니다. 이것이 원효가 역설하는 염불수행법이며, 중국이나 일본의 정토가들과 다른 독창적인 정토사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소작지는 믿음만 일으키면 남녀노소, 유식과 무식을 불문하고 모두가 알 수 있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칭명염불 하는 사람이 성소작지에 대한 믿음은 일으키지 않고 "왜 유심정토를 말하여 서방정토를 부정하는 식으로 말하는가?" 라는 질문을 받으면 난감할 따름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서방정토를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안심하고 염불하시기 바랍니다.

■ 양산 정토원 원장

"분별떠나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구나라타나 스님의 통찰명상 집중수행 현장



구나라타나 스님과 문답하는 수행자들. 집중수행기간에는 묵언해야 하지만 문답시간에는 말해도 된다.

"세상살이의 즐거움을 왜 누려서는 안 되는가요?"

"부처님은 세상의 즐거움을 외면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즐거움의 순간을 한껏 즐기되 그것이 일시적인 것임을 알고 거기에 집착하지 말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8월 1일 안성 황룡사(주지 응선) 대웅전. 40여 수행자들이 진지하게 헤네폴라 구나라타나 스님(Henepola Gunaratana · 美 바와나숲 속집중수행처 원장)과 문답을 주고 받고 있다.

20대서부터 60대까지, 불자는 물론 천주교, 개신교인까지 포함된 다양한 수행자들이 저마다 집중수행(7월 31일~8월 7일) 과정에서 느낀 궁금증들을 쏟아낸다. 스님 옆에 앉은 최숙희 뉴욕 로터스달마스쿨 법사는 질문과 답변을 순서대로 정성스럽게, 때로는 보충설명을 하며 통역해 나간다. 수행자들의 질문은 답변하기 곤혹스런 문제도 적지 않다.

'나'라는 아상 때문에 업 생겨

"잠 잘 때는 무엇을 관찰해야 하나요?"

"깊이 잠든 상태는 우리 의식세계의 밑바닥에 존재하는 무의식이 작동합니다. 아비담마에서는 감각기관과 대상이 만나 순간적으로 인식이 이뤄지는 의식에 대해서만 문제 삼습니다. 따라서 잠 속에서는 마음챙김할 필요가 없습니다. 깨어있는 마음과 분명한 앎은 졸린 때나 숙면시에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나라타나 스님은 하루 전 입제식 법문에서는 <대념처경>의 오온(The five Aggregates Clinging)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법했다. 오온에 대해 명확히 알고 이를 잘 주시하면 사성제, 팔정도, 12연기법이 저절로 이해된다는 것이다. 스님은 모든 언어, 이론, 가르침 등이 오온의 작용을 통해 이뤄진다고 설했다.

"세상 모든 물체는 형태와 이름을 갖습니다. 사람들은 인지작용을 통해 관념속의 이름을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온갖 물질의 모양과 느낌, 지각, 의식작용 등은 모두 물거품 같고 허깨비 같은 것입니다. 어떠한 인식작용도 신기루와 같은 것이기에 우리를 속여 여실지견(如實知見) 즉,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사실 우리는 사물의 실상(實相)을 보지 못하고 오온을 통한 정보의 조합으로 신기루를 보는 셈입니다. 인식은 속임수로 나타나지만 '지금 이 순간' 나타났다 사라지는 현상을 주시한다면 무상한 현상을 통찰할 수 있습니다."

관념없는 상태서 마음챙김을

구나라타나 스님은 이어 영어의 양파라는 단어 'onion'을 예로 들며 오온을 설명했다.

"'onion'은 'on'과 'I', 'on'의 합성어입니다. 마치 가운데 '나(I)'라는 것이 끝없이 윤회하는 형상이죠. 과거와 미래에 걸쳐 윤회하는 것은 가운데 'I'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나'라는 아상(我相)이 있기 때문에 업이 생기고 모양과 표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I'는 양파를 계속 까나가다 보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무아(無我)임을 알게 됩니다. 나라는 것이 아무 것도 없는데 양파의 껍질처럼 커다란 관념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스님은 양파의 두 부분(on+on) 즉 탐심과 치심, 어머니와 아버지가 나(I)를 창조했다고 비유했다. 우리가 양파의 껍질을 벗겨내는 것이 바로 수행을 통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고해(苦海)에서 벗어나는 길이란 설명이다. 스님은 이 짐을 내려놓을 때를 '깨달음'이라고 말했다. 영어로 깨달음을 의미하는 'Enlightment'에는 '짐이 가벼워졌다', '마음이 환하다'는 두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

구나라타나 스님에 따르면 우리의 의식은 마술에 비유된다. 철저한 통찰명상(Insight Meditation)을 통해 관념적, 환상적인 나의 실체를 깨닫는 것이 수행이다. 스님의 위빠사나 수행법이 미얀마의 마하시 위빠사나와 크게 다른 점은 마음챙김(sati)할 때 '명칭'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점. 찰나에 일어나는 의식 현상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명칭을 붙일 시간이 없고, 명칭을 붙이면 또 하나의 관념을 만들어 완전한 집중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특히 스님이 말하는 마음챙김은 사물에 대한 일체의 시비분별이 일어나기 전, 있는 그대로 바로 직관하는 방법을 강조한다. 즉 마음챙김은 '인식이전의 마음', 어떠한 관념도 없는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조사선에서 '선도 악도 생각하기 전(不思善 不思惡)' 분별심이 일어나기 전의 마음과 같다. 한 생각 일어나기 전, 일념불생(一念不生)의 무심에서 제법을 관찰해야 한다는 선의 원리와 다를 바 없다.

경전 이해한 뒤 호흡 함께 해야

경전을 충분히 이해한 뒤, 호흡과 밀착시켜 경행하고 실생활 속에서 직관(insight)으로 마음챙김할 것을 당부하는 스님은 집중수행 기간에 <대념처경>을 수행과 일치시켜 강의하고 있었다. 강의와 좌선, 경행, 공개 문답, 개인 인터뷰 등으로 수행일정이 짜여있었다.

불타오르는 듯한 눈동자, 엷은 미소, 검은 피부가 마치 달마 대사를 연상시키는 구나라타나 스님. 스님은 평소 '통찰명상으로 지속적인 각성 상태를 유지해 모든 사물을 꿰뚫어봐야 한다'고 가르친다. '지금 여기'에 최대한 집중해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하며, 모든 괴로움이 집착과 욕망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자각하라는 것. 만물의 무상함을 깨닫고, 자아란 없으며, 모두가 흘러가는 과정에 불과할 뿐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스님은 "이런 체험 이후에는 완전한 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져 일체의 번뇌도 욕망도 없는 영원한 자유와 평화에 도달한다"고 설명한다. 특히 '나'라고 착각하는 현재 여기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감정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보는 통찰이 자리 잡을 때 욕심과 집착이 사라지고 '참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임을 확신하고 있었다.

안성=김재경 기자

美서 1968년부터 불교와 수행 지도

■ 구나라타나 스님은



78세의 노구에도 주름살 하나 없는 얼굴에 활활 타오르는 검은 눈과 남반구에서 가장 높은 산을 오를 수 있는 체력을 가진 구나라타나 스님(사진).

7월 초 보리수선원 초청으로 방한한 스님은 1968년, 스리랑카 출신 상좌부(Theravada) 스님으로서는 처음으로 미국에서 불교와 수행을 가르쳤다. 그 후 미국 워싱턴 D.C 불교 위하라 협회의 총재를 역임했으며, 아메리카 대학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수행과 불교의 가르침을 실천적으로 접맥시켜 수행을 지도하는 스님은 아메리카대, 조지타운대, 메릴랜드대에서 불교를 가르쳤다. 현재 웨스트버지니아 쉬난도아밸리에 있는 바와나 숲속 집중수행처(www.bhavanasociety.org)의 원장을 맡고 있는 스님은 캐나다, 호주, 유럽,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 세계 각지에서 제자들을 지도하고 있다. 국내에서 번역된 <가장 손쉬운 깨달음의 길, 위빠싸나 명상(Mindfulness In Plain English)>을 비롯 다수의 저서가 있다.

67년 처음 방한했을 때 어느 해인사 스님의 후원으로 한국 불교의 성지를 참배했다는 스님은 한국불자들과의 이번 만남을 무척 기뻐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Avatar.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종로구 평창동 110-4 101호
☎ 02)396-2736 · HP 010)6230-2113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heegyunwiz@hanmail.net

체험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다
5일간의 체험

깨달음에는 정해진 시간이 없습니다.
부처님 당시 마하가섭은 8일 만에 지혜의 눈이 열려 아라한의 경지에 도달하였고, 오늘날 중국 백림사와 보봉사에서는 찰나에 깨치는 3일간의 충격적 수행법이 있습니다.
깨달음에 대한 열의와 소망만 있으면 누구나 성취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수행해도 얻기 힘든 무심과 깨침을 5일간 체험해 보십시오.
그 성취와 결과는 매우 명확합니다.
이론없는 수행은 위험, 수련없는 이론은 공허

빈마음수련원 (구, 대광사)
문의: 033-435-8166 / master@binmaum.org
www.binmaum.org / 한글인터넷주소 : 빈마음

香 (천연아로마향)
자연의 향기가 새로운 세계로 안내하며 풍요로운 생활을 열어 드립니다.



aqua(과일향) bolim(플로럴부케향) grass(허브향) earth(초코렛향)

■ 뉴모닝스타 : 9,000원(개당) · 길이 : 15.5cm · 40개입 · 연소시간 : 25분



1910년 처음 발매되어 시대를 걸쳐 개발에 개발을 거듭, 지금의 MORING STAR(新 每日香)으로 태어났습니다.

Sandalwood(백단) / Pine(참솔) / Musk(사향)
Patchouli(파출리-인도산박하) / Jasmin(재스민)
Rose(장미) / Cedarwood(삼나무) / Aloeswood(침향)
Amber(호박(琥珀)) / Vannila(바닐라) / Green tea(녹차)

■ 모닝스타 : 6,500원(개당) · 길이 : 13cm · 50개입 · 연소시간 : 25분



참숯무연 아로마향
· 재질 : 천연 참숯, 라벤더 등
· 길이 : 13.5cm
· 중량 : 100g

■ 견성향(지관단) : 15,000

茶
유기농 재배한 통불사 연양차 연잎 100%, 40g



■ 연향차 : ~~38,000원~~ → 30,000원

지리산 전통 수제녹차

■ 불성차(100g)
중작 : ~~35,000원~~ → 30,000
세작 : ~~50,000원~~ → 40,000
우전 : ~~100,000원~~ → 90,000



연꽃의 꽃과 뿌리로 만든
■ 백련정차
50g : 18,000원
100g : 35,000원

생활용품
고급식물성 오일과 연꽃추출 천연재료를 첨가한100% 천연비누



■ 천연연꽃비누
개당 : ~~18,500원~~ → 15,000원
세트 : ~~222,000원~~ → (12개) 150,000원



전기없이 따뜻한 느낌을 주는 매트
■ 숯매트(1인용) 150,000원



■ 대나무 수액시트
100매 : ~~90,000원~~ → 70,000원
50매 : ~~50,000원~~ → 38,000원

추천상품



■ 관음도족자 : 35,000원
· 크기 : 42×90cm
· 작가 : 조중일



■ 청자칠보투각향로
~~49,000원~~ → 39,800원
· 국보재현품
· 높이15.3 · 대좌지름11.2cm



■ 반야바라밀다심경판 : 88,000원
· 크기 : 770×230×25
· 재질 : 뉴송

기능성 음반
생활기능음반 특별 이벤트
이벤트 하나, 생활기능음반 구매고객에게 「치료시리즈 – 목욕미인CD1매」 증정 – 선착순
이벤트 둘, 생활기능음반 2장이상 구매고객에게 「아로마 모기향초」 증정



■ 고요한산사에서의 명상CD 15,000원



■ 쫀[공]-소리로떠나는그곳, 山寺 15,000원

생활기능음반 시리즈



숲(forest) 집중력향상 숙면(쾌면) 물(water)

자연의 소리에는 고유의 리듬이 있으며, 사람의 신체 역시 자연의 리듬을 지니고 있습니다. 생활기능음반 시리즈는 여러분을 자연 그대로의 상태로 되돌림으로써 으트러진 생체리듬을 바로잡아 건강과 생활의 활력을 전해 드립니다.

■ ~~15,000원~~ → 13,500원

• 자연시리즈 – 피부미인 목욕미인 건강미인 Make up time(메이크업) 아름다운 다이어트
• 치료시리즈 – 숙면(쾌면) 변비가말끔히 금연 어깨결림말끔히 고혈압
• 활력시리즈 – 집중력향상 파워업(Power up) 실력발휘 플러스사고 상업번성 즐거운컴퓨터

웰빙상품 지상기획전

불교문화상품 전문쇼핑몰 마하몰 주문전화
Mahamall.co.kr 02-732-1520

인터넷 마하몰(www.mahamall.co.kr)에 오시면 3,000여종의 불교문화상품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006-01-0785-361 / 우체국 010041-01-012219 현대불교신문사 / 농협 053-12-113210 하동규



물리학자 눈에 비친 서로 기대어 사는 세계

양형진의 과학으로 세상보기 양형진 지음 | 굿모닝미디어 | 1만원



물리학자의 눈으로 본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일반적으로 과학이 제기하는 문제는 철저히 객관적이다. 하지만 상대론적 입장이나 세계관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도 관측하는 사람의 수만큼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 수만큼이나 서로 다른 세계가 존재할 경우에 우리는 무엇을 진리라고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한번쯤 고민하게 된다.

물리학자인 양형진 교수(고려대 물리학과)는 바로 이런 의문으로부터 출발해 세상을 다각도로 바라보고 있다. 예를 들면 사과나무에서 떨어지는 사과와 차고 기우는 달(月)은 '만유인력'이라는 동일한 운동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이것이 단지 물리학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것이라면, 한 알의 사과(사물)와 달이 보여주는 하나의 현상에는 보편적 우주의 원리가 다 들어있다는 이치를 알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 그런데 저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과와 달을 각각 서로 상관없어 보이는 피상적인 존재자로만 보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들도 상호 연관과 의존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결코 이 세계를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포괄적 이해에 도달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이 책 곳곳에는 어떤 이치나 원리 현상이 '왜 부분과 전체와의 관계라는 맥락 속에서 정의돼야 하는지'를 일관되게 파헤치고 있다.

예를 들어 시속 100km의 속력으로 기차를 타고 가는 사람이 떠먹는 밥알의 속도는 얼마인가를 생각하는 문제에서는 갈릴레이의 고전 상대론의 입장과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론을 적용해 왜 서로 다른 다양한 진술이 가능한지를 밝혀낸다.

무지개에 대해서도 교과서에서는 빛의 굴절과 반사의 법칙에 근거한 설명에서 그치지만 이 책에서 바라본 무지개라는 현상(객관)은 이를 보는 우리의 눈(주관)과 또 다른 무엇(인연, 생물학적 · 문화적 맥락)이 합해져야 비로소 온전히 설명되고 완성된다고 말한다.

어항 속의 물고기나 휘날리는 깃발을 비유로 들어 설명할 때에는 '있음'과 '없음'도 우리를 떠나서 설정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상대론적 양자역학의 입장과 대비해 재미있고 명쾌하게 풀어내기도 한다.

그런 맥락에서 서로 다른 생각이나 편견, 고착된 시각에서 벗어나 다양한 스펙트럼의 가치를 볼 줄 알아야 창조를 이끄는 변화가 가능해진다는 게 저자의 주장. '너 없이 나 없고 나 없이 너 없는', 분리와 단절을 넘어설 수 있는 세계가 된다면 모든것이 이해되고 화합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야 생명을 살피는 안목도 키워지고 또 세계는 한 마디로 서로 기대어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연기법이 제시하는 무한 상호의존 세계

자연과학 성과와 접목

'부분과 전체' 연관성 파헤쳐



지동설에 의한 천체운동을 그린 그림.

지금까지 기존의 과학 교양서들이 어떤 과학적 현상이나 사실들을 전달하는 수준에서 그쳤다면 이 책은 "과학을 알려면 인문학을 깨치라"고 말한 저자의 의도가 구구절절히 녹아 있는 일종의 과학인문서이다. 즉 과학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야 할 생명의 세계와 소통의 문을 열어 놓고 함께 해야 할 열린 공간으로서의 우주 세계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책을 읽다가 슬쩍 묻어나는 따뜻한 인류애와 철학의 향기를 자주 맡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일찍이 미당 서정주 시인은 '국화 옆에서'란 제목의 시에서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라고 노래했다. 여기서 저자는 한 송이 국화꽃에 숨어 있는 '인연의 과학'을 본다. 얼핏 생각하면 봄새의 울음이 가을 꽃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의문을 달 수도 있겠지만, 저자는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존재자들 사이에 형성되는 상호 연관과 의존의 맥락을 보면 지나친 과장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어렵다고 말한다.

이런 무한한 상호의존의 세계는 불교의 연기론이 제시하는 세계상이기도 하지만, 자연 과학의 성과에 근거한 것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말해 과학은 피상적으로 관련 없어 보이는 것들도 그 근원에서 서로 연관돼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이다. 문명간의 충돌이 21세기에도 그치지 않아 자연계의 파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은 과학을 아는 인문사회 문화, 인문사회를 아는 과학을 더욱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이 책은 이 두 문화가 어떻게 만나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성찰하기도 하고, 오직 하나뿐인 지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우주적 차원의 과학과 인간의 참모습에 대해 견해를 피력하기도 한다. 게다가 저자는 자신의 주장에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한 티끌 먼지 안에 온 우주가 다 들어 있다"거나 "소가 물을 먹으면 우유가 되고 뱀이 물을 먹으면 독이 된다"는 등의 경전내용을 비유로 삼기도 한다. 또한 2장에서도 저자는 이러한 문제를 좀더 넓혀서 일상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불교의 화엄 사상으로 설명하고 있다.



김주일 기자 jjkim@buddhapia.com

전문가 서평



경계에서 말한다
우에노 치즈코 · 조한혜정 지음 | 김찬호 옮김
생각의나무 펴냄 | 1만2천원

"당신의 편지에서 나는 우리가 앞으로 나누고 싶어하는 많은 이야기의 편린들을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전쟁과 평화, 더 이상 제국주의가 아니라 '제국'인 미국, 20세기의 사회주의 혁명과 그 외 계몽주의적 운동의 평가,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비판적 인류사, 개인과 역사, 계층과 계급과 세대 갈등, 영어권 중심의 출판계와 지식 생산체계, 페미니즘과 포스트모던적 틈새내기 그리고 70세가 된 우리들의 모습을 상상하기까지 재미있는 이야기꾼이 될 수 있으면 좋으련만…." <조한혜정 연세대 교수의 '첫 번째 편지' 중에서>

"옛 '위안부' 할머니들이 국가에 실망한 나머지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국적을 이탈하기로 선언했다는 보도에 나는 섬뜩 놀랐습니다. 일본과 한국, 두 국가에 줄곧 배신당해 온 할머니들이 내놓은 국적 이탈이라는 회답은 여자가 온 몸을 내던져 국적을 넘는 '밑으로부터의 월경'입니다. 이 할머니들과 같은 시대를 살고 있어 다행이라고, 나는 당신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일본인 여

한 · 일 대표 여성학자의 만남

1년 반 동안 주고 받은 편지 묶어

자인 내가 말하면 안 될까요." <우에노 치즈코 동경대 교수의 '세 번째 편지' 중에서>

1948년생 동갑내기인 조한혜정, 우에노 지즈코(上野 千鶴子) 교수. 한국과 일본의 대표적 페미니스트인 두 사람이 처음으로 만난 것은 15년 전. 1988년 크로아티아(당시 유고슬라비아)에서 열린 국제인류학회 자리에서다.

40대 초반의 진보적 여성학자로 만난 첫 순간부터 선명한 인상을 주고받았다는 두 사람이 50세를 훌쩍 넘겨 다시 만났다. 지난 세월의 변화만큼이나 두 사람의 생각의 흐름도 달라졌다. 이들이 인생의 통찰을 담은 대화를 허심탄회하게 나눴다. 이번 만남은 직접 대면이 아니라 '편지 대화'였다. 지난해 1월 일본의 월간지 <세카이>측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두 교수의 편지는 <세카이>와 한국의 계간지 <당대비평>에 나란히 실렸었다. 그리고 1년 반 동안 교환한 편지들이 이번에 한 권의 책으로 묶인 것이다.

여기서 '경계'라는 말은 두 지성 간의 대화가 오고가는 지점을 압축한 표현이다. 국가, 성별, 세대, 역사의 경계에 서서 생각을 펼쳐간다. 궁극적으로 그 경계를 넘어 인간 그 자체에 주목하고자 한다.

두 사람 사이에 넓은 교집합이 있지만, 개성이나 관점에서 약간의 차이도 발견된다. 이를테면, 우에노의 페미니즘은 가시 돋친 공격성이 좀더 많아 보인다. 그는 학문적 이력을 밟는 과정에서 남성 중심의 세계에 어떻게 적응하고 반역했는지 이야기한다. "나는 학문 언어에 복종하는 척하면서 상대의 급소를 찌르는 비법을 몸에 익혔다." 적의 무기를 탈취해 적과 싸우는 일종의 유격대 전술을 썼다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 그는 '남성 언어'와 '여성 언어'를 동시에 구사하는 '바일링궐'(두 언어 사용자)이 됐다고 고백한다.

■이현숙 (여주대학교 여성학 전공 강사)



궁중비법 사주명리 학인모집
(구, 성수철학원)

본 학회는 **궁중비법 사주명리** 연구로 전국 최대의 회원 양성 기관이며 현재 각지 200여곳에서 회원님들이 성황리 활동중이며 특히 스님, 처사, 보살님 전문 교육기관으로써 처음 배우실분, 해도해도 안되는 분을 위하여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안 내

- **모집인원 :** 선착순 30명
- **교육기간 :**
  - ◆1개월 완성반(주 월~금)
    시간 : Ⓐ 정오 12~오후 2시
    Ⓑ 오후 2~4시 Ⓒ 오후 4~6시
  - ◆3개월 완성반(주 2회)
    Ⓐ 월 · 화반 Ⓑ 목 · 금반 (시간 : 오후 7~9시)
    (무료특강 : 8월 20일 19시, 수강접수마감 : 8월 25일 18시, 개강 : 8월 26일)
- **지도교수 · 강사 :** 백운 성수(본학회 회장)
  대각 스님(금강불심원)
  백궁, 봉계, 도영
- **교육장소 :** 본 학회 2층 강의실(최고시설완비)

※ 금강불심원(본 학회 직할) 대각스님(053-425-7875)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2270-4(2층) 대명시장 맞은편
053)255-4784, 256-4784
휴대폰 : 018-531-2237

사단법인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대구 대승불교대학 정토사 부설 불교의식 대학

제2기 불교의식(범음 · 범패) 수강생 모집

9월 7일(화) 개강

본 대학은 대승불교의 수행 이념을 전파코자 설립한 교육기관으로서 갑신(甲申)년에 경전 강의와 함께 불교의식반 신입(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과 정

- 가 **초급반 (3개월) :** (매주 : 화요일 오후 2시 ~ 4시)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기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향수해례, 행선축원.
  신중청, 관음기도법, 산왕기도…
- 나 **중급반 (3개월) :** (매주 : 화요일 오후 2시 ~ 4시)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시다림법, 점안의식, 방생의식, 구병시식
- 다 **작법반 (6개월) :** (매주 : 화요일 오후 4시 ~ 6시)
  천수바라, 다게작법, 오공양작법, 요잡바라, 삼귀의작법
  (일명 바라 나비춤)
- 라 **고급반 (6개월) :** (매주 : 수요일 오후 2시 ~ 6시)
  영산재, 예수재, 수륙재 등… (희망자 소수)

대구대승불교대학 부설 범음 · 범패 의식교육원 · 정토사
신청 문의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1914-5 (월촌역4거리)
전화 : 053)622-0333 / 011-699-9120

※ 가야산 청정도량에서 철야기도는 매주 토요일 저녁 9시부터 정진하오니, 불자님들의 업장을 소멸하고 소원성취 이루시길 바랍니다

승복 법복 안내

확실한 품질 · 만족할 가격



1. **고급 모직**(물세탁)
   적삼, 바지 150,000 동방, 바지 190,000
   두루막 140,000
2. **면,광목**(먹물, 손염색)
   적삼, 바지 100,000 동방, 바지 130,000
   두루막 100,000
3. **면레프사**(먹물염색)
   적삼, 바지 150,000 동방, 바지 170,000
   두루막 140,000



4. **무명**(먹물, 손염색)
   적삼, 바지 180,000 동방, 바지 220,000
   두루막 180,000
5. **마 : 한국산 100%**(먹물, 손염색)
   적삼, 바지 140,000 동방, 바지 160,000
   두루막 140,000



6. **장삼** 고급모직 200,000
   경남제일모직 250,000
7. **가사** 대가사 150,000 / 반가사 70,000

◆ 유사제품과 비교해 보십시요 ◆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치 : 대구 중구청 뒤편 [동삼아파트 지하 공장] (지역판매점 모집)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아름승복
전시장 : 053-256-0108
공 장 : 053-425-4449
휴대폰 : 016-597-4449
011-809-2398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 3가 88번지(동삼아파트 지하 공장)

어린이 불서가 뜨네!





이번 주말에는 자녀의 손을 잡고 다양한 어린이 불서가 기다리고 있는 서점에 가 보자. 임복규(안양시 호계동) 씨가 조카들과 함께 조계사 봉향각에서 어린이 불서를 고르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최근 10개월 20여종 선보여

지난 4~5년 동안 일년에 고작 서너 권 출간돼 '포교 불모지'로 인식됐던 어린이 불서 시장이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불기 시작한 '어린이 불서 붐'은 올해까지 이어져 최근 10개월 사이에 20여 종의 책이 쏟아져 나왔다.

지난해 10월에는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자타카>를 어린이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꾸민 <나쁜 녀석>(어린이중앙)과 순천대 만화예술학과 교수인 윤승운 화백의 <향기로운 부처님 나라> <아름다운 부처님 나라>(동쪽나라),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의 일대기를 그린 <달라이 라마>(꿈동산) 등이 선보인데 이어 올해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도 다양한 어린이 불서가 출간됐다. 아동문학가 김영만 씨가 글을 쓴 <마음을 다스리는 어린이 법구경>(바른사)을 비롯해 <꼬마 판다의 깨달음>(BB아이들), <성자가 된 똥지게꾼>(푸른나무) <만화로 보는 부처님 전생이야기>(운주사) <선사들의 삶과 깨달음>(솔바람) 등이 그것이다.

일반 출판사가 주축 아쉬움

일반 출판물의 '명상 붐'을 반영하듯 틱낫한 스님의 법문을 만화로 꾸민 <미소 짓는 두 스님>(파랑새어린이)과 <틱낫한 스님이 들려주는 마음 속의 샘물>(계림북스쿨)도 선보였다.

또한 1965년 출간된 <세계불교동화>(큰나)와 <어린이법구경>(밀알), 2001년 발간된 <성철 스님과 모과동자> 등도 새 단장해 어린이들을 찾았다. 이 밖에 선(禪) 만화 <차나 한잔 마시게>(문자향)와 <부처와 돼지> <그래서 어쨌단 말인고>(들녘) 등도 출간돼 눈길을 끈다.

비용 · 노력 2~3배 더 들어

운주사 김시열 사장은 "그동안 어린이 불서가 다양하게 개발되지 않은 탓도 있지만, 불교의 설화나 부처님의 생애 등은 어린이 책을 만들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소재"라고 말한다.

하지만 어린이 불서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주체가 대부분 일반 출판사라는 점은 아쉽다. 어린이들에게 불교적 심성을 길러주는 것이 어린이 불서의 큰 역할 중 하나라고 할 때, 일반 출판사들이 펴내는 책들은 불교적 소재를 '차용'하는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에서도 불교전문 출판사인 도서출판 운주사와 솔바람의 어린이 불서 출간 의지는 높이 살만하다. 운주사는 지난해 1월 <아름다운 우리 사찰 13가지 숨은 이야기>를 펴낸 데 이어 지금까지 <만화로 보는 부처님 전생 이야기>, <부처님 지혜를 배우는 불교우화 41가지> 등의 만화책을 펴냈다. 솔바람도 <마음을 밝혀주는 60가지 이야기>와 <선사들의 삶과 깨달음>을 펴내는 등 활발한 출판활동을 보이고 있다.

종단 차원 제작 지원 절실

출판 전문가들은 "어린이 불서는 불교의 미래를 이끌어 갈 새싹불자를 키우는 토양이라는 인식을 출판사와 종단, 불자 부모 함께 공감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와 더불어 종단차원의 불서 제작 지원, '올해의 어린이 불서' 선정 등 어린이 불서 출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제언이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새로나온 책

■ **<더불어 숨쉬는 불교>**(향과 스님 지음, 문예마당, 1만2천원)=통도사 선덕 향과 스님의 법문집. 지난 10여년 간 행한 법문과 경전 강설, 선 수행 지침 등이 담겨 있다. 신도들이 스님의 회갑을 맞아 법공양으로 펴낸 이 책에서 스님은 "쉼 없는 기도와 설법 속에서 부처님을 뵙도록 하라"고 당부한다.



■ **<오가(悟家) 밥상>**(제운 스님 시집, 고요아침, 7천원)="놓아 버리면 되는데/ 떨치면 되는 줄 알면서/ 떨치지 못하고 놓지 못하니/ 언제까지나 저 아득한 부처의 자태만/ 기억하고 기다리겠는가?"('부처를 찾아' 中) 20여년 동안 달마를 그려온 선화가 제운 스님(일산 정광사 주지)이 선방에서 수행하며 틈틈이 쓴 시를 모은 시집 <오가 밥상>을 펴냈다. 스님은 "한 편의 시가 사람의 마음에 희열을 줄 수 있기 바란다"고 말한다.



■ **<살아 있는 한자 교과서>**(정민, 박수밀, 박동욱, 강민경 지음, 휴머니스트, 전2권 각권 1만5천원)=창피(猖披)하다, 간담(肝膽)이 서늘하다, 면목(面目)이 없다…. 우리의 언어생활에서 한자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다. <살아 있는 한자 교과서>는 일상적으로 자주 쓰이는 한자어 표현들의 유래와 본뜻을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한자를 쉽게 익힐 수 있도록 꾸며진 책이다.



"효 가르치는 것은 종교의무"

▮어린이 불서 15만권 법보시 동춘 스님

그동안 어린이를 위한 불서를 제작, 법보시해 온 조계종 원로의원 동춘 스님(부산 해림사)이 최근 <엄마, 아빠 고마워요>를 펴냈다. 스님이 제작 경비를 부담해 발간한 이 책은 조계종 본말사를 비롯, 어린이 법회를 열고 있는 군부대와 불교어린이집, 종립학교 등에 15만권이 무료로 배포된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효 사상을 널리 알리기 위해 책을 무료로 보급하고 있는 스님은 그동안 <부처님이 들려주는 효 이야기>(2000년), <밤톨이와 얼짱이의 효도뚝딱>(2002) 등을 각각 20만부씩 법보시했다. 스님은 "인간의 근본을 일깨우는 효도를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종교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어린이 불서 출간 의의를 밝힌 바 있다.

이 책은 <부모은중경>을 그림과 함께 읽기 쉽게 꾸민 '한글세대를 위한 부모은중경'과 부모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일화를 소개하는 '부모님의 크나큰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다. (02)2011-1876



엄마, 아빠 고마워요 양태석 엮음 | 안준석 그림 | 조계종출판사 | 비매품



실상사에서 마주친 상처입은 영혼들

실상사 정도상 지음 | 문학동네 | 8천원

전북 남원 지리산 한 자락에 자리 잡은 부처님 나라. 밭둑길을 한참 걷다 밭 한가운데서 문득 마주하게 되는 그 나라에는 상처받은 영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웅장한 전각도, 요란한 법회도 없는 그곳이 뭇사람들을 잡아끄는 이유는 무엇일까. 방황하는 영혼들의 가슴 속에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

소설가 정도상 씨의 연작소설 <실상사>는 그 이유를 5편의 이야기 속에서 형상화하고 있다. '봄 실상사' '여름 실상사' '가을 실상사' '겨울 실상사' '내 마음의 실상사' 등 다섯 편으로 이뤄진 소설에는 가슴속에 상처를 지닌 채 실상사를 찾는 이들의 각기 다른 이야기가 담겨있다.

작품에서 실상사는 이루지 못한 사랑을 되새기는 회한의 장소이자 심신이 피폐해진 이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위로의 공간이다. 본래의 자아와 마주하는 뼈아픈 자기 확인의 거점이 되기도 한다. 뭔지 모를 상실감으로 질곡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들, 과거-현재-미래를 넘나드는 괴로움 속에서 삶의 방향을 상실한 사람들은 실상사를 거쳐 가며 자기 성찰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작가는 5편의 허구를 통해 진여실상을 찾아가는 자기 탐구에 젖어든다. 그 가운데서 "사(死)는 것은 사(生)는 것이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하고, 삶의 단계를 심우도의 과정으로 풀어내기도 한다. 독자들은 각기 다른 이들의 닮지 않은 이야기 속에서 오늘을 사는 우리의 자화상을 마주하게 된다. **강신재 기자** thatiswhy@buddhapia.com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 · 편자	출 판 사
1	홀로 사는 즐거움	법정 스님	샘 터
2	인연법과 마음공부	혜국 스님	효 림
3	스님이야기	지묵 스님 외	여시아문
4	마음 부처가 사는 나라	청화 스님	이른아침
5	텐진빠모의 마음공부	텐진빠모	열 림 원
6	가장 행복한 공부	청화 스님	시 공 사
7	하룻밤에 읽는 불교	소운 스님	랜덤하우스중앙
8	불교가 정말 좋아지는 불교우화	이 용 범	수 희 재
9	예세초겔	예세초겔	김 영 사
10	백일법문	성철 스님	장 경 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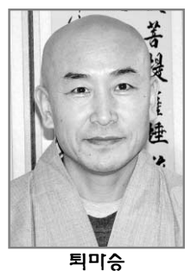
도서 안내 : (02)737-06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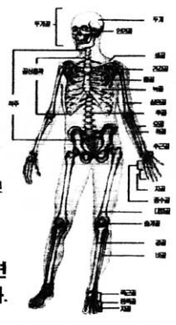

최초로 과목을 친 바로보인 반야심경!
전강 대선사님의 인가제자인 대원 문재현 선사님께서 과목으로 반야심경 내면에 흐르는 뜻을 밀밀하게 밝혀놓고 거침없는 송으로 들어보였다.
☎ 02-522-0122
www.zenparadise.com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 교회, 창고, 공장, 가정집 (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 울 : 011-379-0667
강원도 : 010-3044-9708
경기도 : 019-690-4018
충청도 : 011-327-7697
경상도 : 016-9294-8580
전라도 : 011-368-0667
조은칼라지붕공사

이젠 1시간 만 투자하면 완벽한 절이 됩니다!!!
절을 氣차게 잘하는 법
(흡흡호 호흡법의 최첨단 건강 비법 공개 수련회)
● 입은 숨을 쉬는 곳이 아니고 코 입니다.
● 세치의 혀를 잘못 놀려 망신 당하는 것 보다 입 벌리고 숨을 쉬어 병나고 망하는게 더 무섭다.
● 절, 염불, 독경, 주력 수행하고, 노래 할때 어깨, 가슴을 들먹거리며 입으로 숨을 들이 쉬는 것은 수행이 아니라 병고액난의 어리석은 짓이다.
○ 합장하고 일어설 때 저절로 단전 호흡이 되어져 우주의 밝은 에너지가 꽉 차는 경지!!!
● 절할 때 힘이 빠지고 몸살나고, 피곤하고, 지치고, 정신 사납고, 발, 무릎, 허리 아픈게 호흡을 잘못한 것
○ 접족례에서 숨을 내쉴때 날숨이 길어져 나쁜 기운은 순간 빠져 나가고 엔돌핀, 쾌락 호르몬인 토파민은 끊임 없이 나와서 평화롭고 행복하고 환희로우며 언제나 생생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체험하는 경지!!!
○ 헐떡거리며 입으로 숨을 쉬는 역호흡은 불행과 병고액난의 직접 원인!!!
● 상기병, 냉병, 소화불량, 당뇨병, 고혈압, 비만, 디스크, 관절염, 신경통, 아토피, 비염, 축농증, 우울증, 불면증, 감기몸살, 만성피로, 자궁근종, 변비, 자폐증, 치매 환자는 100% 입으로 숨을 쉬는 역호흡으로 찬바람, 먼지, 세균, 병균이 직접 입으로 들어와 몸이 차가와 지며 성인병의 원인! 공부, TV 시청, 컴퓨터, 잠잘 때 입벌리고 있으면 바보나 병자, 불행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니 빠른시일내에 수련에 동참하여 치유 하십시요.
★ 호흡에 맞춰 절하는 수행으로 단시일에 극복된 사례가 대단히 많습니다 ★
▶ 수련일시 : 매주 화요일 낮 : 2시, 저녁 : 7시
▶ 수 련 비 : 입회비(만원), 수련비(2만원 : 3회 교육 가능)
▶ 오시는 길 : 지하철 5, 7호선 군자전철역 4번 출구에서 천호방향으로 100M 이망스 가구 4층
법왕정사 서울 군자법당
☎ 전화 : 02)456-4994,0035 http://cafe.daum.net/sorisan
" 숨을 氣차게 잘 쉬는법 " 책 9월 출간 예정


퇴마승
영험도량
불보살님 가피력 받는사람
참회하는 마음 / 용서하는 마음 > 갖는사람
누구나 4차원 파장을 받을 수 있으며 음(陰)을 양(陽)의 기운으로 바꾸어 주면 육체, 마음 고통에서 벗어납니다.
● 중병은 70~80% 4차원 장애
● 육체, 마음 고통은 4차원 장애
● 기타, 인생사 4차원 장애
▶ 인연기도로 가피를 받은 사례 ◀
낙태 경험이 있는 사람 둘 중에 한사람이 고통을 받고 가족에게 영향을 주며 기도로써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물질, 금전욕, 애착, 그리움, 미움을 갖고 살아가면 사후에 구천을 떠도는 파장이 되어 직계 가족에게 영향을 준다
해 원 사
초하루, 18일 법회 신중참회기도
031-736-3734 · 732-3790

관절염
자생환(自生丸)
관절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스크 → 악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선천성 냉체 산후바람 낭습진 →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 주의사항 -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산부 음주전후에 복용금지
관절염은 참 견디기 힘든 병입니다. 빠마디의 통증은 통증대로, 약을 먹으면 위장장애 때문에 이중으로 고생을 합니다. 자생환으로 근본적인 치료를 해보세요 상태가 심한 분은 3개월 이상 복용해야 합니다.

1개월분 ₩180,000
2개월분 ₩320,000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 옹(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 강의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강의(7) 만공 스님의 음담패설 법문

"불성안에 지혜 공장(工匠) 있다"

불성이란 말에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성이란 바로 지금 역력한 '생명'의 불가사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불행과 고통 속에서도 빛나고 있는 단순한, 그러면서도 신비한 사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있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알려져 있는 사태이므로, 하등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너무나 뻔한 사태인데, 그런데, 우리는 이 '살아있음의 기적과 그 의미'를 모르고 삽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불성은 내 생명의 등불

제가 불성이라는 위대하고 초월적인 물건을 지금 턱없이 뻔한 일상의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있다고 화를 내시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듣기로는 견성(見性), 즉 '불성을 본다'는 것은, 수억겁에 걸친 윤회를 거치며 수행을 하거나, 또 아니면 수십년을 토굴에서 화두를 들고서야 겨우 열리는 희귀한 소식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것은, 돈교(頓敎)는 이런 타성적 '엄숙주의'에 대한, 그리고 이런 '점진주의'에 대한 벽력같은 고함소리로 출발했습니다. 돈교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 너머에, 깨달음이니, 구원이니, 법계니, 정토니가 결코 없다는 사자후입니다. 돈교는 지금 있는 그대로, 여러분 자신이 바로 '절대'임을 그토록 간절히, 친절하게 일깨워 주려 합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왈, "깨달을 바도, 얻을 바도, 설할 바도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눈을 들어 '쳐다보라' 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태'가 너무 심심한 나머지, 우리는 '그 밖에' 더 크고 위대한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라고 목을 길게 뺍니다.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왜 반야와 화엄과 기신, 그리고 선사들의 '한결같은' 말씀을, 그 고구정녕의 지시(指示)를 곧이 들으려 하지 않는지, 저는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선사 조주가 "차 한잔 들게"라고 한 말에는 아무런 신비나, 형이상학이나, 배면에 숨긴 함축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액면 그대로입니다. 우리 모두 차를 끓이고, 따르고 마십니다. 그게 '있어야 할' 전부입니다.

그게 전부라면, 우리는 따로 '의도적으로' 할 일도 없고, 따라서 '성취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남도 또한 '이 모두'를 이미 갖고 있으니, 새삼 설파해 줄 것도 없습니다.(不可知, 不可得, 不可說)!

저 산 딱따구리는 생나무 구멍도 잘 뚫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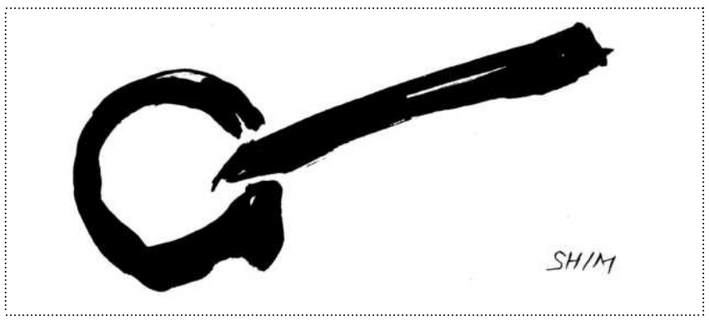
너무 앞질러 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이야기는 다음 '반야'를 다루는 강의에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떠오르는 얘기 한 자락은 해 놓고 가려 합니다.

현대불교신문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코너는 조태호씨의 '주장자따라'라는 만화입니다. 어느날 여기 음담패설이 하나 실렸습니다. 드물게 스크랩해둔 것인데요, 만공스님(1871~1946)의 일화입니다. 때는 한말에서 일제 초기, 몰락한 궁중의 상궁 나인들이 스님을 찾아와 법문을 청했습니다. 스님은 법문은 않고 뜬금없이, 노래 한 자락을 읊었습니다. "저 산 딱따구리는 생나무 구멍도 잘도 뚫는데…. 우리집 멍텅구리는 뚫린 구멍도 못 뚫는구나." 어허, 이런 해괴한…. 상상이 가실 것입니다. 자리에 앉아 있던 여인네들이 구석구석에서 킥킥거리고 쑥덕거렸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웃고 계십니까. 저는 아직 이처럼 기가 막힌 절창, 독창적인 법문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의 조갯살을 열어보여 주셨는데, 그런데 여인네들은 안타깝게도 그것을, 늙은 스님이 하시는 아슬아슬한 음담패설로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나무를 따로 다시, 힘겹게 뚫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있는 구멍에 맞추기만(?) 하면 되는 일입니다. 너무 쉽겠지요. 그런데 정말이지, 이게 어렵습니다.

왜 눈 앞에 역력(歷歷)한 이 단순한 '생명'의 적나라(赤裸裸)를 바로 보기 어려울까요. 그 장애는 밖이 아니라 바로 안에 있습니다. 불교란 다름 아니라, 바로 이 '안의 적'을 대적하고 물리쳐 실제(實際)를 만나게 해 주려는 방법적 장치들이자, 그들을 가득 쌓아 둔 곳간(藏)입니다!



여기서 '안의 적'이란 바로 '번뇌'와 '무지'를 가리킵니다. 이 장애를 부수는 것이 반야인데, 반야를 말하기 전에 이들의 본색을 알아야겠지요. 지금부터 몇 회에 걸쳐 이 문제를 본격 다루겠습니다.

철광을 제련하여 순금을 얻는다

앞에서 영양각으로 비유된 바 있듯이, 이 장애물들은 인간 속에 완강히, 그리고 단단히 박혀 있습니다. 얼마나 뿌리 깊은지, 금강이란 바로 이 장애물의 견고함을 가리킨다고 해석하는 사람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불교 중에서도, 이 번뇌와 무지의 성격과 특성, 그리고 그 형성과 작동의 메카니즘을 본격 다루는 학파가 아비달마와 유식입니다. 반야 중관은 이 문제를 꼼꼼히 분석적으로 다루려 하지 않지요. 아무래도 '부수어야 할 물건'을 따지느라고 힘을 소모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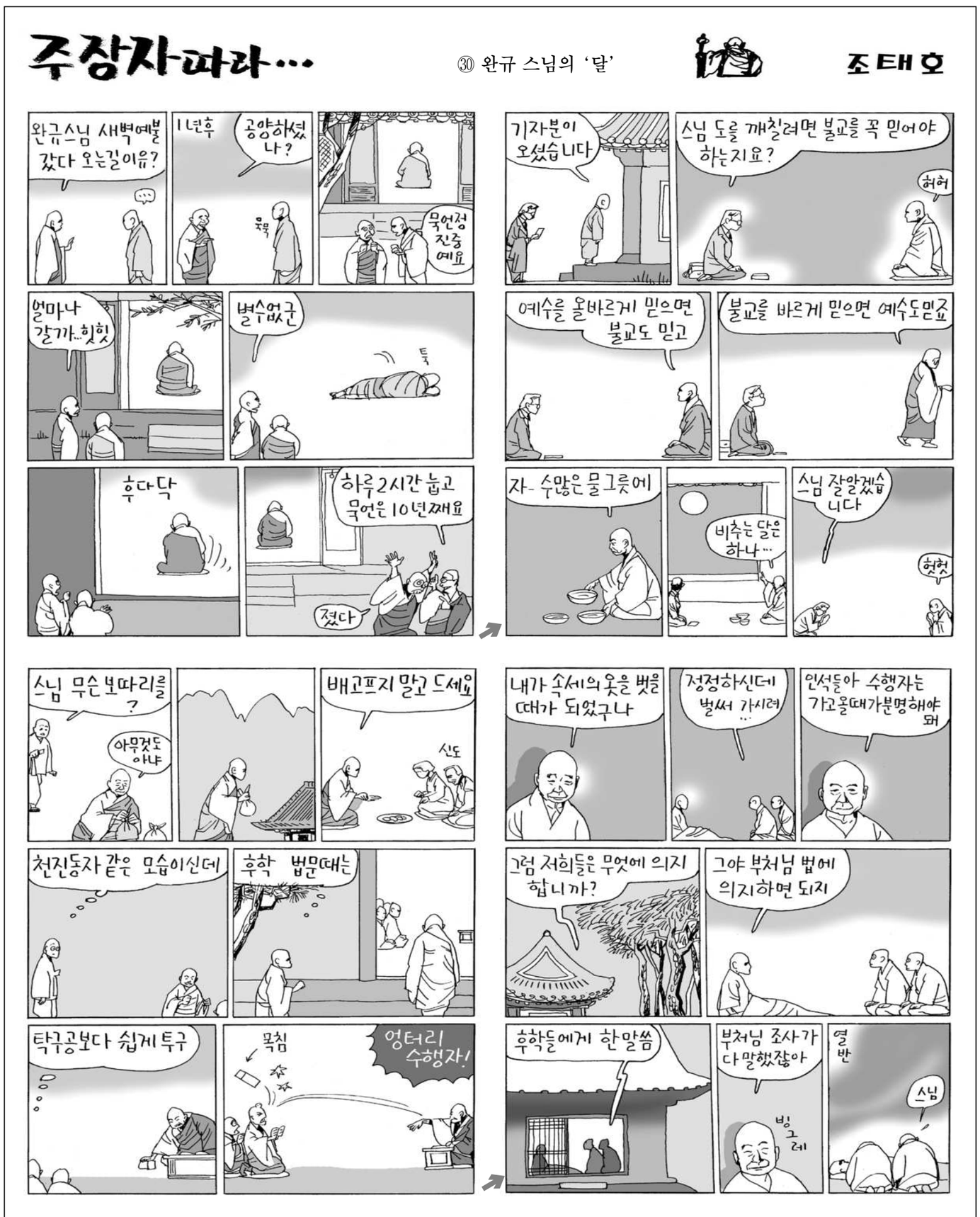
원효는 아비달마와 유식이, "세우느라 부수지 못한(立而不破)" 폐단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염된 마음'의 분석과 분류에 치중하느라 '번뇌와 무지의 소멸'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놓치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문제를 피해가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강의 얼개는 <대승기신론>에 의지하고, 그리고 그 실상을 지금 우리들의 일상적 경험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대체 '번뇌'와 '무지'의 실상을 알아야, '반야'의 역할과 기능을 분명히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컨대 불교의 기획은 '불성'과 '번뇌', 그리고 '반야'의 삼각 구도를 갖고 있습니다. 육조 혜능은 이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금은 산중에 있다. 그러나 산은 제 속에 이런 보물이 있는 줄을 모른다. 보물도 이게 산인 줄 모른다. 왜냐. 불성(佛性)이 없기 때문이다! 사람은 불성이 있어, 그 보물을 이용한다. 금의 전문가를 만나 산을 뚫고 깨서, 광석을 캐내, 그것을 제련하여, 순금을 얻어, 이것을 자유롭게 처분하여 가난과 궁상을 면한다. 사대(四大)로 된 우리 몸 안에 있는 '불성' 또한 그러하다. 여기 '몸(身)'은 세계(世界)에, 인아(人我)는 산(山)에, 번뇌는 광석찌끼에, 불성은 금에, 지혜는 제련공(工匠)에, 정진용맹은 (그 광석을) 뚫고 깨는 일에 비유된다. 몸(身)의 세계 (世界) 가운데 인아(人我)의 산(山)이 있고, 인아의 산 가운데 번뇌의 광석이 있다. 번뇌의 광석 가운데 불성의 보물이 있고, '불성의 보물 가운데 지혜의 제련공(智慧工匠)이 있다!' 지혜의 제련공을 써서, 인아의 산을 깨고 뚫어, 거기서 번뇌 광석을 보고, 이를 깨달음의 불로 제련하여, 거기 금강불성(金剛佛性)이 분명히 명정(明淨)하게 있는 것을 본다. 그래서 이 경(經)의 이름을 금강에 빗대어 짓게 되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완규 스님(1896~1984): 충남 부여 生. 용성 스님을 은사로 질불암에서 득도. 송광사, 망월사, 상원사 등 전국 선원에서 정진했으며 백양사 등 많은 선원의 조실로 납자들 제접함.

네티즌 교리문답

'大道無門'의 출처와 뜻은?

문 김영삼 前 대통령이 자주 쓰던 '대도무문(大道無門)'이란 휘호가 선어록에 나오는 말이라 들었습니다. 출처와 뜻을 알고 싶습니다. (ID '종로구민')

답1 : "대도무문(大道無門) 천차유로(千差有路) 투득차관(透得此關) 건곤독보(乾坤獨步)". 송나라 선승 무문혜개(無門慧開)가 선의 화두 48칙(則)을 모아 펴낸 책 <무문관(無門關)>에 나와 있습니다. 그 뜻은 이렇습니다.

"큰 길에 들어가는 문은 없으나 그 문은 어떤 길로나 통한다. 이 길을 잘 지나면 그는 천하를 홀로 걸으리라." ('출처는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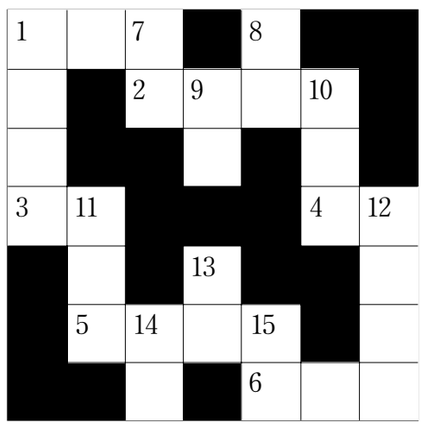
답2 : 대도는 문이 없다. 일체의 모든 것이 문(道) 아닌 것이 없기 때문이다. 고정된 문이 없기 때문에 대도인 것이다. 삼라만상 시방삼세가 모두 도인 것이다. 하나의 고정되고 정해진 문이나 길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체가 모두 문이다. 중도(中道)의 실천을 말하고 있다. '대도무문'이란 말은 단지 출입의 문이 없어진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출입이 있으나 출입에 떨어지지 않고 대도를 행하는 수행자들에게 깨달음의 세계를 보도록 하는 말이다. 우리들 인생의 모든 삶은 이 문없는 문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성본스님 역 <무문관> 참조) ('대도무문')

답3 : 여기에 문 없이 큰 도가 있으니 문이 없는데 들어가고 길이 없는데 가는 고로 대도(大道)라. 막힘도 통함도 없고, 밝음도 어둠도, 거룩함도 평범함도,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없으며 늙고 젊음의 구별 또한 없다. 너와 나의 경계가 없을뿐더러 선과 악의 나눔이나 진짜다 가짜다, 옳다 그르다의 시비도 있을 수 없음이니 이를 일러 '길 없는 길을 간다' 함이라. 문 없는 문을 들어서고, 길 없는 길을 감은 '걸림이 없는 마음'이 그 열쇠인데, 걸림이 없는 마음이란 또 무엇을 말함이냐? 물질에도, 정신에도 구애받지 않으니, 두 마음의 경계가 무너진 상태를 뜻함이다.

물질의 본질을 알고 보면 물질이 아니요(色卽是色), 정신도 그 본질을 캐보면 형체가 없는 것이 아닐진대(空卽是空), 공연히 인간들이 천만 가지 경계를 짓고 부질없는 이름을 붙여 이것이 옳다 저것이 그르다 시비를 하지만, 티끌만큼도 치우침이 없는 것이 걸림 없는 마음이다. ('레몬')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 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상식퍼즐



가로

1. 푸성귀를 다듬을 때 골라놓은 겉대 2. 뼈를 가루로 만들고 몸을 부순다는 뜻으로, 정성으로 노력함을 이르는 말. 3. 시력교정 수술방법 중 하나 4. 신호 목적으로 길게 내는 기적 소리 5. 우열을 가리기 어려움을 뜻하는 사자성어 6. 압구정동이란 동명의 기원이 된 정자, 한명회가 지었다 함.

세로

1. 3000년에 한 번 꽃을 피우며, 이 꽃이 피면 전륜성왕(轉輪聖王)이 나타난다고 하는 상상의 꽃 7. 공유재산에서 각자의 몫을 일컫는 말 8. 굳게 막아버림 9. 큰방 뒤쪽에 달린 작은 방 10. 조선시대 백성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치던 북 11. 식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12. 중국 동북지역의 지배를 확고히 하기 위한 일련의 프로젝트 명칭 13. 난리를 피해감 14. 형의 아내 15. 위력으로 상대방의 기세를 누름.

정답은 20면에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생활정보

▷ 광고문의 : TEL 02)732-1522, 737-8881
FAX 02)737-0697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1. 법회기도 – 지장기도, 관음기도, 정기법회, 기념법회 등
2. 구인/구직정보 – 공양주, 행자모집, 운전기사모집, 사찰중무원 모집, 알바사원모집 등
3. 알림정보 – 개업, 이전, 각종전시, 불교동우회 행사, 각종불교강좌, 수련회, 동창회, 부음 등
4. 불교용품정보 – 각종불교용품, 불교용품업체, 탱화 업체 등
5. 알뜰정보 – 팔고/사고/대행/대여/재활용/인테리어
6. 생활장터 – 가구, 도서, 음반, 컴퓨터, 통신기기, 비디오, 가전, 사무용품, 비품, 정수기 등 – 사보편집대행, 음반대행, 곶집, 떡집, 승복집 등
7. 여행정보 – 성지순례, 사찰순례,

풍기명품 홍삼액은 홍삼만을 원료로 장시간 숙성발효 과정을 거쳐 최고의 제품을 만듭니다.

1. 100ml × 60포 무가당(진)홍삼액
2. 100ml × 60포 가당 홍삼액
3. 110ml × 50포 무가당(진)홍삼액
4. 110ml × 50포 가당 홍삼액

대중인삼가공공장 **풍기명품홍삼액**

■ 전화 : **054)638-3349** ■ 휴대폰 : **011-9118-1005**
■ 팩스 : 054)635-6617
■ 농협계좌 : 354-02-114693 대표 남상대



천도재, 49재, 점안식
바라, 나비춤, 태평소
각종 행사해 드립니다
010-4870-8359
051)261-5691

경면주사
(수비경면)
▷ 부적용, 서예용, 일반용
한의원 약국용 도, 소매
구입문의
011-9675-1089

구병시식 천도재 점안식
사찰의 행사에 직접
법진스님
염불 해 드립니다(바라, 작법)
방앗사 055-882-3455
016-428-6665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9月경 제2회 예정)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전통범패의식

천도재	수륙재	산신재	점안식	바라춤	나비춤

행사에 염불해 드립니다
무진 051)468-7374
합장 018-523-7374

백련잎차
(수작 덖음)
백련차
041)542-4594

역학개인지도
사주에 필요한 모든것
명리학,성명학,택일,풍수
밝은미래를 여는 혜공 합장
02)421-8494
017-606-6628

50분만 모십니다!
조계종 봉국사 납골당 특별분양
- 강북 정릉에 위치
- 편리한 교통
- 년 4회천도재 봉행
- 영구안치, 관리비무
- 분양문의 :

011-768-7038

레이키(Reiki · 靈氣)를 배우면
- 누구나 바로 氣치료 · 원격치료 능력자가 됩니다
- 피로회복/스트레스해소/질병 치료 생명력활성화 등 웰빙의 도구
- 우스이레이키 60만원/카루나레이키 40만원
- 교육기간 : 2~3일
-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 www.Reiki.co.kr

전화: 02)720-5719
720-5682



명 당
탐지기 관룡자 **월간역학**
02)2264-0258
동양상 역학강의도 함
www.kbs.cc

역 학
동영상 강의
www.kbs.cc
3개월분 7만원
속성 확실한 교육. 자격증 수여.
명당 탐지기 관룡자 판매
월간역학 02)2264-0258

의식스님이 필요하신 곳
전통의식이 신심이 돈독해지며
영산작법과 우리말이라야 환희심과 경건, 엄숙의 극대화가 있지 않겠는가!
49재및 천도재 등 각종의식에
바라춤과 나비춤을 곁들여 적은 부담으로 보시하오니 연락바랍니다
016)9414-1525
041)752-1112~3

"스님과 함께하는 사주명리학과 한방역학"
(동양철학을 일승법으로 강의)
선지로 마음의
문을 열어주던 스님께서
중생심의고통을 직시, 분별의
장애에서 벗어나 해탈에 이르는
길을 직관에 의한 깨달음의 최상
승법을 통해 열어드립니다.
031)255-0066

친환경 무공해 한지 영가옷
순수 한지로 제작
일반 영가옷과 치수동일
그을음, 냄새 전혀 없음
한지는 질겨 잘 찢어지지 않음
실용신안26799호, 의장등록 22988호
모든 영가옷 도매
054)972-9933
017-503-3503

석자반 부처님 한분
관세음보살 두자반
부처님 한분
탱화 가로 12자 세로 6자
인등 석자 두개
집기 방짜
150만원에 보시합니다
011-9762-2286

치 질
- **재발** 잘 되는 **치질**
- 한방 비법으로 완전치유
- 오래된 치질이나 **암치질** 특히 효염
- ※ **스님**들께서는 특별 보시함

▷팔공산 **천룡정사**
017-533-1356
053-986-1355

천만원 미만의 시주금으로
불사에 동참하여 절운영을
함께 하실분 모십니다
남녀노소 관계없음
▷ 서울 강동구 포교원
016-261-2068

전국 출장 영업
특채: 남 24~40세 젊고 패기 있는 분
저를 도와 전국 출장다니며 영업으로
성공 하실분(초보가능)
가족같이 지내실분, 용모단정,
신원확실한분(부산거주가능한분환영)
011-590-2555

인연있는 분
연락바랍니다
▷ 산 삼
041)841-0607

서울, 경기권
부전 소임을
원합니다
010-7163-3538

천만원 미만의 시주금으로
평생 절에서 함께
기도하며 지내실
보살님,처사님 모십니다
남여노소 관계없음
▷서울 강동구 포교원
016-261-2068

행자모집
신산유곡의 조계종
전통사찰 참선수행도량으로
출가할 뜻이 있는분은
연락바랍니다
010-6384-7557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 경기도 고양시
010-7739-0916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女)행자
구합니다
031)973-8534

부전스님 모십니다
사무실여직원 구합니다
미국에 살고싶은
스님도 원합니다
042)272-1223
018-309-6234

가족처럼 지낼
신심있는
공양주보살님,
부전스님 모십니다
011-576-2737

신심있고 가족처럼
함께 지낼
공양주 하실분
모십니다
011-790-1583

동해안 바닷가 최고의
관음기도도량에서
출가의 뜻을 둔 남,여
행자를 모집합니다
▷조계사
033)572-1108
573-1198

좋은 인연 찾습니다
4륜구동 승용차 원합니다
(장애 3급 스님)
청산스님
033)434-3963
011-363-3963

50세이상 부전스님 모십니다
45~55세이상
공양주보살님, 행자모집
보지않는 헌책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011-259-5989

神典건축
- 사찰, 암자, 사당
- 명상, 요가센타
- 다도방, 황토방
- 한옥 리모델링
- 조경과 조형물
- 디자인 & 미술까지

두레우물
031)771-9321

(급구)
신심있는 공양
주보살님
구합니다
011-9576-9947

부전스님
구함
▷ 인천
016-706-5832

부전스님 모십니다
(사미, 비구)
행자 구합니다
▷경기도 파주시 교하면
011-9083-3355

소백산 제2지장보궁
청정도량에서 관리운영겸
수행 지도할 청정한 조계종 스님이나
제가 보살님이 영지 서린 이곳에서
기도를 원하는 자 그리고,
조용한 이곳에서 공양주하면서
기도할 40~50대 공양주 구함
▷소백산 내원암
054)653-1180

사찰농사(밭 3천평)
관리자 구함
월 보시: 60만원(숙식제공)
위치: 전북 장수군 장계면
063)353-0396
세부사항 조정가능
대한불교조계종 성관사 주지 합장

비구니 부전스님을
모십니다
▷ 경북칠곡
011-529-0008
054)975-0008

부전스님 1명(독실한 불자로서
수도생활과 불교학문에
뜻이 있고 고졸이상의 남,녀
약간명(20세~38세)
신심과 원력있는 공양주 보살님 1명
법당 화주보살 1명
054)483-8032
011-9176-4403

구직 (서울, 경기지역)
사찰에서 기사로
일하고 싶습니다
1종 면허 소지,
전기보일러 작업가능
02)831-5489
011-473-5489

천일기도 하실분
연락주세요
(비구스님)
011-696-8500

대구권 염불해
드립니다
▷무유스님
011-9596-4338

남,여 행자모집
공양주보살님모심
▷법비오는곳 기도영험도량
동해사 강원도양양
033)672-2900 / 011-402-1669

눈
- 충혈, 눈물, 피로, 눈꼽, 눈이 빡빡함
- 침침함, 가려움, 기타 불편증세

눈 전문 특수영양식품
눈에 좋은 물질 특허성분 함유
일본특허 2790212 미국특허 5382714
제조원 : 日本(주)MERCURY-MK
일본성인병예방협회 주전제품
눈밝은 세상 (02)2237-8004



사주 개인 지도
- **특수비법으로 쉽고 정확하게 하루에 통변**
- **승려에 한하며 보시금 250만원**
- **지도 : 대주 스님**

HP : 011-741-0867 ☎ 02)926-1259

역학 수강생 여러분
10초내 운세를 맞추면 배우러 오세요
- 교재 : 사주첩경(이석영 저) 격국용신 및 교재내용에 대한 질문을 10초내 답변
사주전체 대흐름(조상포함)을 알고나면 격국용신 및 신약신강을 신경쓰지 않아도 속시원히 통변할 수 있습니다.

http://www.speedunse.com에서 핸드폰 · 카드결제됨
02)826-5067에서 전화상담 중

제 2기 역학 수강생 모집
▶ 과 목 : **사주, 관상, 수상**
▶ 일 시 : 9月6日 18:00
▶ 장 소 : 동대문운동장역 4번출구
장충체육관 방향 경동교회 뒤

인터넷 동영상 강의 www.kbs.cc
월간역학 교육원(02-2264-0258)

천안통. 천이통. 의통

양수영 원장님은 천안통, 천이통, 의통이 열린분으로 영화 화면 보듯이 영가들과 대화를 하여 빙의로 인해 중병에 시달리는 분들을 치유합니다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하늘의 기운이 들어오는
약손을 만들어 드립니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전화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법화 정법회. 천일선원 소백산수련원
054)638-2224 <경북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출가학교-모집(3주간)
▶ 자격 16세~41세, 남녀, 완전무료
▶ 남자는 삭발, 여자는 자유
▶ 행자복 지급등, 모든지원 (교육후 출가, 환속자유)
산중분원 및 대구큰절 이동교육
▶ 1기-남자 : 8월16일~ 8월31일
▶ 2기-여자 : 10월 4일~10월24일
문의 : 011-9852-0075(총무스님)
상세내용은 홈페이지
영남불교대학 참조

대한불교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조 계 종 (053)474-8228
대구 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동의대학교 음악아카데미 응용피아노 수강생 모집
지도교수 권 상 무(방송피아니스트)
· 필라델피아 음대 음악박사-편곡
· "크로스 오버" 오케스트라 지휘자
- 피아노 치며 노래하는 반주법(초보, 중급): *생활피아노* (초보 누구나 가능)
• 찬불가, 가곡, 가요 • 찬불가 합창단 반주 및 법회 반주
- 예술적인 고급 연주법 및 째즈(고급):연주용 피아노
• 피아노 전공자, 피아노 교사, 사찰 반주자

수시모집 12주-주1회
₩300,000 1:1 렛슨

동의대학교 평생교육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동 산24번지 TEL:(051)890-1947~8 FAX:(051)890-1949
권상무 교수 H.P:011-342-8215 http://www.educate.dongeui.ac.kr
E-mail:educate@dongeui.ac.kr

대한불교 조계종 **불교어산작법학교 학생모집 요강**
▶ 모집학과 : 불전의식과(재가불자도 가능함)
▶ 교육내용 : 일용의식(도량석, 종송, 예경, 각단예불)
상용의식(불공, 천도재, 시식), 제반의식(점안, 이운, 방생, 다비의식)
▶ 교육기간 : 3개월(매주토요일 오후3시~6시)
▶ 면접일자 : 8월28일 오후3시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8번지 대원암
02)921-3425
6호선 안암전철역

고(古)건물 수리전문
드잡이 전문, 건물방향바꿈, 건물멀리옮김
건물 넘어간집 바로잡음, 석가래 기둥등 썩은곳 교체
신축 및 기와등 한옥전문 (문화재 등록인 다수 보유)

(주)고도건축 대표 강충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389-2 성지아파트 3동202호
연락처: 053)964-0858 / 휴대폰: 011-804-1748

장애인·농촌총각 짝을 찾아드립니다

현대불교-두리결혼, 만남 주선에서 결혼식까지 무료로

열심히 앞만 보고 성실하게 살아가며 순박한 모습으로 농사일에 전념하던 짝없는 농촌 총각들이 신부감이 없어 결혼을 못하고 있다. 또 사람은 누구나 고귀한 존재인데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불구의 몸으로 또는 각종 사고로 인하여 지체장애자란 이름으로 사회로부터 차별과 온갖 부자연스런 육신으로 살아가는 장애자들…. 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심어주는 결혼이벤트가 열린다.

<현대불교>와 (주)두리결혼(회장 한유진)이 '나눔의 손잡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장애인과 농촌총각들의 만남을 주선하고, 무료로 결혼식을 올려준다.

결혼을 하고 싶은 장애인과 농촌총각 또는 결혼을 희망하는 이들이 <현대불교>나 두리결혼에 결혼을 신청하면, 몇 차례 1:1 만남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게 해서 성혼을 약속한 커플에게는 오는 12월경 경원대 음악회 강당과 성남 신라뷔페 예식장에서 경원대 경상대학장 김경수 박사와 두리결혼 한유진 회장의 주례로 무료 결혼식을 거행해준다. 신청자들의 접수비와 혼례식비는 전액 무료다.

한유진 회장은 "결혼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과 활력을 가질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선물은 없을 것"이라며 "이 세상은 음과 양의 이치에 따라 누구나 짝을 맺어야 긍정적인 삶, 행복한 생활을 맛볼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가슴속에 담고 적극 참여하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두리결혼 (031)757-3121 전국 무료전화 1544-4311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현대불교>와 (주)두리결혼은 장애인 · 농촌총각 등의 이성교제를 주선해주고 결혼을 약속할 경우 무료로 결혼식을 올려준다. 사진제공=(주)두리결혼

"어려운 이웃들에게 행복 선물하고 싶어요"

인터뷰 두리결혼 한유진 회장



"농촌총각들과 장애인들에게 행복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주)두리결혼 한유진(54 · 사진) 회장은 성실하게 살아가는 농촌총각들과 당당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는 장애인들에게 행복을 선물하고 싶은 마음에서 본사 나눔의 손잡기운동에 무료결혼 이벤트를 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동산불교대학과 능인선원 법사대학원에 재학중인 한 회장은 "회사의 이익금을 사회 환원 차원에서 소외계층을 위해 보람된 일을 하게 돼 기쁘다"며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어려운 이웃과 함께 손잡고 나가는 것이 밝은 사회 건설에 도움이 되리라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혼기를 맞이한 사람이나 혼기를 놓친 사람이나 오묘한 인연법에 따라 그 짝을 만나게 돼 있다"는 한은 "역동적인 미래에 대한 기대와 꿈은 자신의 짝을 만남으로써 가능하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한유진 회장은 성남시 도시환경개선 연구소장, 한국 국제결혼 연합회 회장, 경원대 경영정보대학원 총동문회 회장, 사단법인 환경보호 국민운동본부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천태종, 해외입양 딸-아버지 상봉 도와

덴마크 신도회 도움으로 가족 확인
김인숙 씨 고국서 즐거운 시간보내

절절한 혈육애는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었다.

"네가 정말 막내딸 인숙이냐. 너무 미안하구나. 정말 미안해."

7월 29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1975년 딸을 덴마크로 입양시킨 아버지 김종대(66 · 인천 용현동) 씨는 천태종 사회복지재단 후원으로 30년만의 상봉이 이뤄진 순간 사죄와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잠시도 딸의 손목을 놓지 않은채 연신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31살의 아이 엄마가 돼 덴마크인 남편 닐스 베스터 고우 씨와 고국을 찾은 김인숙(32 · 덴마크명 피아 핸슨) 씨도 "친가족을 만나 너무 행복하다. 한국에 오길 너무 잘한 것 같다"며 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옆에서 지켜보던 오빠와 두 언니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58년 한국전쟁 때의 불발탄이 터지는 사고로 오른팔과 왼쪽 손가락 두개, 한쪽 눈을 잃은 아버지 김 씨는 41년전 앞을 못 보는 부인을 만나 가정을 꾸렸다. 김 씨는 벽돌공장과 항만에서 막노동을 하고 부인은 식당 잡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다. 세 명의 딸과 아들 하나를 얻었지만, 끼니를 때우기도 힘들었던 김 씨 부부는 막내딸을 해외로 입양 보냈다.

"인숙이는 식사 때마다 '수지 안머(수제비 안먹어)' 하면서 토라지기도 하고 뜨거운 국물은 불어달라고 떼를 쓰기도 했어요. 입양이 결정된 뒤에는 좋은 옷과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부모님의 말에 동네 어른들에게 자랑하기도 했었지요. 어머니는 그렇게도 막내딸을 보고 싶어 했지만, 1990년 먼저 세상을 떠나 마음이 아픕니다."



1975년 덴마크로 입양된 뒤 30년만에 상봉한 김인숙씨와 가족들. 왼쪽부터 큰언니 영명 · 둘째언니 인영 씨, 인숙 씨, 아버지 김종대 씨, 오빠 인식 씨. 사진=박재완 기자

둘째 언니 인영(37) 씨는 30년전 상황을 떠올리며 또다시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아냈다. 하지만 인숙 씨를 입양 보낸 뒤에도 김 씨가족은 어려운 삶을 살았다. 김 씨는 부두 하역일을 하다가 힘이 부치자 고물상을 운영했고, 고생 끝에 10년전 18평 낡은 아파트를 마련했다.

그 사이 인숙 씨는 덴마크의 양부모 밑에서 우리말은 물론 한국에 대한 기억을 잊은 채 지냈고, 덴마크인 남편을 만나 두 살 된 아들을 둔 어머니가 됐다. 인숙 씨는 "'왜 날 입양보냈을까' 하고 생각했지만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만나 가족이 늘었으니 더 없이 행복하다"고 말했다.

이번 만남은 덴마크 대사관 등을 통해 사연을 전해 온 둘째 언니 인영씨의 편지를 전해 받은 천태종 사회복지재단과 덴마크신도회 고태정 · 이미림 부부가 덴마크 정부에 도움을 요청해 이뤄졌다. 천태종에서는 이번 만남을 위해 인숙 씨 부부의 체류비와 여행경비 등을 후원했다.

한편 김인숙 씨 부부는 8월 2일 단양 구인사를 찾아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 스님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4일 출국했다. 김인숙 씨는 "조만간 덴마크에 있는 가족들과 다시 한국에 오겠다"고 약속했다.

박봉영 기자

현대불교와 좋은벗풍경소리가 함께 하는 '나눔의 손잡기'



"어린이 · 청소년 법회에 찬불동요 테이프와 CD를 보냅시다"

현대불교신문사와 좋은벗풍경소리가 공동으로 '전국 어린이 청소년 법회에 창작 찬불동요테이프와 CD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아름답고 순수한 부처님의 마음을 담은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창작 찬불동요를 선물해 주세요.

불자님들 한 분 한 분의 정성은 미래의 부처님 되실 어린 불자들에게 '불성'을 가꾸어 주는 참된 불사가 될 것입니다.

◀ 어떻게 참여하나
◇종단 · 사찰 · 기업 · 단체 · 개인 모두 동참 가능합니다.
◇본사·연고사찰 단체 등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1구좌 1만원입니다.
◇보급기간: 2004년 3월부터 12월31일까지

◀ 어떻게 진행되나
◇매주 캠페인 내용이 소개됩니다.
◇매달 한번씩 동참자 명단을 게재합니다.
◇아름다운 사연을 지속적으로 소개합니다.

※ 온라인구좌 / 농협 053-12-132878 예금주: 좋은벗 풍경소리 이종만 ※ 문의 / 좋은벗 풍경소리 (02) 723-9836

나눔의 손잡기 우리이웃 현대불교신문 · buddhanews.com

▌나눔의 저금통 및 스티커 신청

문수선원
부산시 북구 구포3동 1240-30
저금통 - 2개
스티커 - 10장

▌나눔의 성금

김영란 국유덕 정석현 이아리 등
319,960원
총 누적금액 18,085,310원

▌알립니다

현재 '나눔의 저금통' 1차 수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찰이나 단체에서는 직접 개봉하여 은행 온라인을 통해 입금한 뒤, 곧바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02) 722-4162.

입금계좌: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

▌나눠드립니다

나눔의 저금통 분양합니다



원숭이해를 맞아 원숭이 저금통을 채워서 보내주십시오. 저금통은 회사, 가정, 가게, 단체사무실 등에 비치하시면 됩니다. 특히 불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기금 모금용 저금통을 비치할 경우 '나눔의 가게'로 선정해 드립니다.

스티커 나눠 드립니다

사찰, 자동차, 건물, 가방에 붙일 수 있는 나눔의 손잡기 스티커를 나눠드립니다. 나눔의 손잡기 스티커는 조선일보가 전개중인 '우리이웃' 캠페인과 상호 협조에 의해 엠블럼을 공동 사용합니다.

18면 상식 퍼즐 정답

정	구	압		수	
공		제	난	형	난
북			피		수
동	고				식
	문		방		
	신	세	골	분	당
		봉		기	기	상

▌이렇게 참여하세요

♥ 각 종단의 나눔운동과 연결
함께하면 큰 힘이 됩니다. 각 종단과 NGO 복지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사업과 연대합니다. 또 자비의 콘서트(불자가수) 법률 및 세무상담(불자 변호사 세무사) 봉사에 참여하거나 사업연대가 가능합니다.

♥ 나눔의 손잡기 공동체
내가 가진 돈, 힘, 시간, 지식 등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보시하도록 연결해 드립니다. 자원봉사를 원함에도 그 방법을 몰라 실천하지 못하는 불자들의 중개소 역할을 자부합니다. 모범이 되는 봉사자들을 추천해 주세요.

♥ 나눔의 손잡기 기금참여
남을 돕고 싶은 분들은 계좌나 한통의 전화로 자비를 실천하는 ARS(060-700-1080)를 통해 기금을 보내주세요.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우 등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고있는 이웃들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 어려운 이웃 사연 제보
주위의 어려운 소년소녀가장, 결식학생, 독거노인, 장애우의 사연을 알려 주세요.

♥ 정기후원 참여
소년소녀가장들과 결식아동들의 후원자가 되어 매월 정기적으로 생활비나 급식비를 줄 수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과 결연을 희망하시는 분은 연락주십시오.

♥ 불자기업의 사회공헌
기업의 사회공헌은 이제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불자기업들과 불교복지시설을 연계하여 후원하거나 시설을 건립해 드립니다.

♥ 외국인 노동자와 불교지도자 자매결연
불교권 국가의 외국인 노동자와 불교계 각 종단 스님과 단체 운동가간 자매결연을 추진합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노동자들과의 결연을 희망하는 스님과 불교지도자들을 모십니다.

♥ 각 사찰의 공양미 나누기
불자들이 보시한 각 사찰의 공양미를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들에게 지원해주세요. 어려운 곳이나 복지시설에 공양미를 보내고 싶은 사찰은 본사로 신청해주시고, 공양미가 필요한 시설은 연락바랍니다. 과일과 김장, 양념, 라면, 과자류 등 식품도 접수 받습니다.

♥ 자비의 헌혈증 및 장기기증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헌혈증을 보내주세요. 장기기증에도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 보고싶은 가족찾기
미아는 물론 실종가족과 이산가족, 입양아들을 찾아드립니다. 사연을 보내주십시오.

모두에게 주어진 전력 끌어쓰기에 달려있어

(485호에 이어서)

그러니 정진하실 때도 그렇고, 어느 분이든지 상대를 놓고 빌거나 상대를 놓고 기도하거나 또 내면으로 한다 하더라도 (가슴을 짚어 보이시며) 자기가 있어가지고 "해주시오" 하고 주인공을 상대로 놓고 거기다가 "해주시오" 하면 그것도 또 안 됩니다. 그대로 믿고 "할 수 있다. 거기서만이 할 수 있다. 안 되는 것도 거기서 나온 거니까 되게 하는 것도 거기다." 하고 마음으로 굴려서 다시 놓을 수 있는 그런 수행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게 뭣고" 하기 이전에 벌써 그냥 직선적으로 들어가는 공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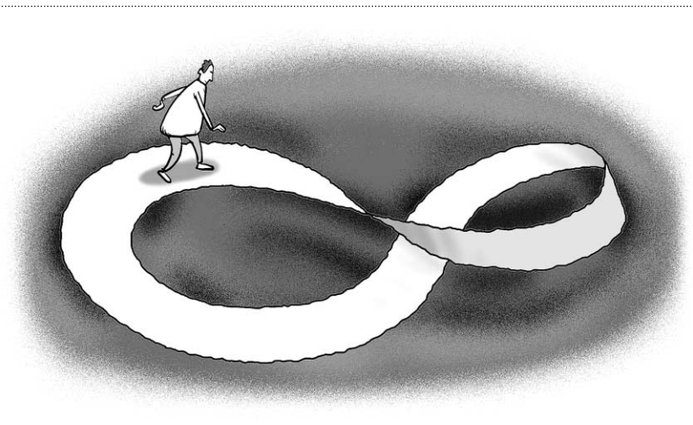
이렇게 하면서 지켜보고, 그래서 '관세음'이라고 했습니다. 관세음! 관해서 보고, 이 세상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모든 것이 그것이 바로 진리인 것이고 관세음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놓은 겁니다. 그걸 깨달으라고 그렇게 한 거지 이름을 부르고 찾으라고 그런 게 아닙니다. 네가, 말하자면 네가 (손가락으로 정면을 가리키시며) 즉 관세음이니라. 네가 이 세상에서 나와서 말하고, 이 세상에서 살면서 행동하고 보고 듣고, 그리고 들이고 내고, 이게 모두 네가 보고 살고 있지 않느냐 이거야. 그거를 딱 드잡아서 자기로 볼 수 있다면 바로 여러분이 다 관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깨달아서 완벽하게 섰다 하면, 지팡이가 완전히 섰다 하면 이 몸속에 들어있는 의식도 그게 전부 업식인데, 업식이 한데 합쳐져서 그냥 큰 에너지덩어리로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심력입니다.

여러분이 날더러 항상 말을 하라고 그러는데 허, 말로 어떻게 다 하리까! 말해봤자야 어떤 때는 소용이 없이 뭘 때가 있어요. 금방 말하고 돌아섰는데 금방 행동은 그렇지 못하더라, 이 소리예요. 여러분이 말로는 전부 안다 하더라도 행동 하나 하기가 어렵다 이 소립니다. 행동이 그렇게 돼야만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화목하고 즐겁고 좀 색다르게 빛나게 살려면 행동부터 진실하게, 그렇게 모든 거를 "잘못했든지 잘했든지 내가 이 세상에 나왔으니까 상대하고 부딪치기도 하지." 하고 내 탓으로 돌려야지 남의 탓으로 전전긍긍하고 남의 탓으로 원망하고 남의 탓으로 증오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자식도 자기가 인연에 따라서 낳았는데, 자식이 잘못하면 "저놈의 새끼가 누굴 닮아서 저러나? 제 애비를 닮아서 저렇지!" 또 아버지는 "제 에미를 닮아서 저렇지!" 이렇게 해나간다면 그거는 자식의 뿌리를 북돋아주는 게 아니라 아주 싹을 망쳐놓는 겁니다. 부부지간도 그렇거니와 부모자식지간도 그렇고 모두가, 위로는 묵은 빚을 갚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진실하게 가져야 하고, 아래로는 내가 햇빛을 주는 것이 바로 뿌리를 도와주는 것이니까 햇빛을 주게끔 심력을 길러야 하고, 이런 것이 우리들의 지금 배움에 따라서 종교를 진짜로 실천해나가는 그런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남편이 잘되게 빈다 자식이 잘되게 빈다 하고서 산기도를 백일을 한다, 천 번을 절을 하기 위해서 간다. 그런 것이 종교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항상 그러죠. 천 번 절한 것도 바로 일정례에 속한다. 마음에 항상 끊어지지 않게 전력을 다해서 진실로 들 아니게 한다면, 만 번 하는 것보다 일 배 하는 것이 더 위대하다 이랬죠. 그런데 그 자식이나 부모나 남편들을 다 그냥 정신적으로 배고프게 만들어놓고 기도 간답시고 멸치 뭐 이런 것도 다 안 먹이고 고기도 한 칼 안 먹이면서 "백 일 동안은 먹지 맙시다." 하고서 다 안 먹이고선 기도를 다니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게 어딨습니까? 세상에 그런 게 어딨습니까? 백 일이 일 초가 될 수 있어요. 일 초! 일 초가 모르면 백 일이고, 백 일이 만 일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먹기에 달렸다. 마음 한생각을 잘 하면 한 찰나에 일어설 것이고, 절룩발이가 두 다리를 다 찾을 것이고 한생각을 잘못하면 두 다리가 다 빠질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좀 보세요. 경전 속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지켜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죠? 관세음이라고 그런 게 지켜보라고 그런 거거든요. 이 만물 돌아가는 거를 다 지켜봐라 이거거든요. 관(觀)! 그래서 둘 아닌 도리에서 본다면 모두 가르치는 스승이에요. 나무 한 그루도 그냥 있질 않아요. 내가 산으로 다닐 때도 보면 어떤 거는 목신(木神)이 인사를 해요. 그렇게 반가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목신처럼, 세상에 이리 바람이 불고 저리 바람이 불고, 눈이 오고 비 바람이 치고 이래도 나중에 가을이 되어 잎이 단풍이 들어서 다 떨어지고 앙당한 가지만 남아도 말이 없어요. 말없이 그냥 움쭉거리고 봄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그냥 인내 있게 걸어가고 있더라이 소리예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나에게 배움을 주는 겁니다. 그 나무 한 그루가 앙당한 가지만 남아서 불불 떨면서도 인내하는 그 마음이, 바로 그 생명이 그 뿌리를 지키면서 날더러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말을 해줘서만 압니까? 물도 그렇고 산도 그렇고 돌도 그렇고, 모두가 자기네들처럼 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 스승이 안 되겠습니까?


그림 · 최주현

까? 조상들이라든가 친구들이라든가 죽은 영혼이 이렇게 다가와도 그걸 모르니까 모르는 대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는 대로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오면 그것이 둘이 아니게끔 거기다가 모두 둘 아니게, 즉 말하자면 자석이 이렇게 있으면 쇠 부스러기가 붙어서 그냥 하나가 돼버리는데, 그냥 자석에 한 덩어리가 돼버리는데, 그러니까 탈이 없죠. 그런데 요거는 요것대로 자꾸 가깝게 와가지고 붙으려고 하는데 자꾸 떼어버리니까 자꾸 와서 붙으려고 하는 거죠.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것도 자석이니까. 그러니까 붙으려고 하는 힘과 끌어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하는데 그냥 자꾸자꾸 떼어버리려고 하고 붙으려고 하고 떼어버리려고 하고 이러니까 환난이 일어나는 거 아버린다. 하나가, 한 덩어리가 돼버린다. 그러니 탈이 안 난다. 이사를 가고 오고 삼재가 들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아니,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런 거를 일일이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재미를 보고 삽니까? 아니, 어떻게 그걸 사람이 산다고 하고 살 겁니까? 만날 고통이지!

그래서 좀 미련한 듯한 사람이 쉬이 깨닫는다 이런 문제가 있죠. 미련하면 무조건 거기다 놓으라면 그냥 무조건 놓으니까. 그런데 약은 사람들은 요리 굴리고 조리 굴리고 그러거든요. 그러니 종교들이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불교라는 것도 이름이요, 그건 다 이름입니다. 그건 다 이름일 뿐이에요! 나 하나하나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어디서 왔는지 그거를 알기 위해서 내가 지금 걷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항상 그런 말 잘하죠. 저 지구가 버스라면 버스 안에서 옹기종기, 네 거니 내 거니 내 종교니 네 종교니 네가 잘했느니 내가 잘했느니 하고 싸우고 박고 온통 그냥 혼란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게 사는 거라고 그러곤 살고 있거든요. 그게 사는 겁니까, 어디? 수라장이지!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오신통(五神通), 본다 듣는다 남의 마음을 안다 어디서 왔는지도 안다 가고 옴이 없이도 가고 오고 한다, 이러더라도 그것은 도가 아니니라 하셨습니다. 그 안에서 싹 벗어나야 된다 이런 겁니다. 싹 벗어나서, 아예 다 내려다보고 모두가 다 그저 사대(四大)를 흡수하면서 같이 여여하게 돌아가는 것이 바로 여래니라. 이게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냥 여여하게 돌아간다면 여래일 것이고, 여여치 못하다면 중생일 것입니다.

또 오늘도 말을 하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마는, 그 말한 게 여러분과 나와 둘 아니게 된다는 것이 뭐냐면 이 전구가 (천정의 전구를 가리키시며) 쭈욱 이렇게 있죠? 너 나가 이렇게 모습은 다 달리,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다 있지만 전력은 다 똑같다는 얘기 만날 하죠? 그러니까 둘 아닌 까닭에 우리가 말을 해도, 이것이 내 말이다 네 말이다 하지 말고 바로 나한테 있는 사실이요, 바로 내가 지금 그렇게 듣고 있고 내가 말을 하고 있고 내가 지금 이렇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한번 다스려나가면서 믿어보면서 실험하면서 체험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참선입니다.

지금 가만히 보면요, 기독교 믿는 사람 가톨릭교 믿는 사람은 조상들의 제사도 안 지내고 그런다는데 이거는 있을 수가 없죠. 이건 의리도 도의도 없는 사람들이야! 응? 자기를 낳아서 길러서 사회에 나가기까지 그렇게 해주었는데, 그 의리로 봐도 그렇고 도의로 봐도 그렇고, 아, 어떻게 그럭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향 켜놓고, 촛불 하나 켜놓고, 물 하나 떠놓고 생수 떠놓고, 떡 한 조각이라도, 잡쌀떡이라도 하나 놓고 딱 앉아서 그 길러준 은혜를 생각하면서 '모두가 둘 아닌 자리에 함께 하소서.' 하고 그냥 하면 그것이 제사라고. 그리고 "오늘 어르신네 기제가 있어서 이렇게 음식을 조금 사왔느니라. 이것들 모두 먹어라." 이러고 먹이는 것이 바로 그 어른을 대접하는 거라고! 응?

내가 항상 그런 얘기 잘하죠. 작년에 수박을 심어서 수박씨가 그 속에서 나왔는데, 이번에 그 수박씨를 또 심었어요. 그래서 또 수박이 열렸다고요. 그랬는데 작년 수박씨 다르고 올 수박씨 다릅니까? 그러니까 그 부모들한테 기제를 지낼 때는 그렇게 간소하게 불을 켜놓고 그렇게 해도 그게 마음의 불을 켜는 거거든. 그렇게 해놓고선 음식을 조금, 식구들이 잘 먹는 걸 사다가 나누어주면서 그렇게 하면 그 씨가 그 씨요 그 씨가 그 씨니까, 바꿔진 거뿐이니까. 아, 그거 다 그날을 생각하면서 위의 묵은 빚을 갚을 수 있고 햇빛도 또 줄 수 있잖아요? '부모님이 저렇게 할아버지나 할머니에게 이렇게 잘하는 걸 보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고려장 지낼 때 지게를 도로 지고 가서 "왜 가지고 가느냐." 하니까 "아버지도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해서 고만 자기 어머니를 도로 업고 갔더라는 셈으로 말입니다. 이거는 은연중에 그 자식들이 그냥 본받게 돼 있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체가 없어서 이 털구멍을 통해서 그냥 수없이 나갔다 수없이 들고 그럽니다. 이거 모르시죠. 악하게 마음을 갖고, 예를 들어서 누구를 밉게 생각을 한다, 저것을 증오한다 이러면 벌써 이게 마음이 말입니다, 털구멍을 통해서 그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더 증오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털구멍을 통해서 나고 들면서 '참, 둘이 아닌데 너도 둘이 아니게 여기에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 하고 거기다 놓을 때는 바로 거기도 밝게 불이 들어와서 '아, 모든 게 잘못된 것도 내 잘못이구나!' 하고서 후회를 하면서 자기 마음을 자기가 다스리면서 이렇게 잘 돌아가면서 나중에는 "아이구 형님, 내가 잘못했어! 모든 게 내 탓이야!" 하면서 회개를 할 수가 있죠, 형님뿐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니깐 가족 중에서도 여러분이 의절을 하고 안 다니는 집들도 있죠? 그런 일이 없도록, 남자나 여자나 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살면 얼마나 산다고, 이 모습들을 가지고 얼마나 산다고 그렇게 모두 등이 져야 하고 원망을 해야 하고 증오를 해야 합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종교를 진실히 믿는다면 어디 국한돼 있는 것이 종교가 아니라 여러분이 살림하고 살아나가는 이 진리가 그대로, 이 세상이 그대로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서 촛농이 이리저리 흐르지 않도록 초 심지를 다스리면서 잘 해보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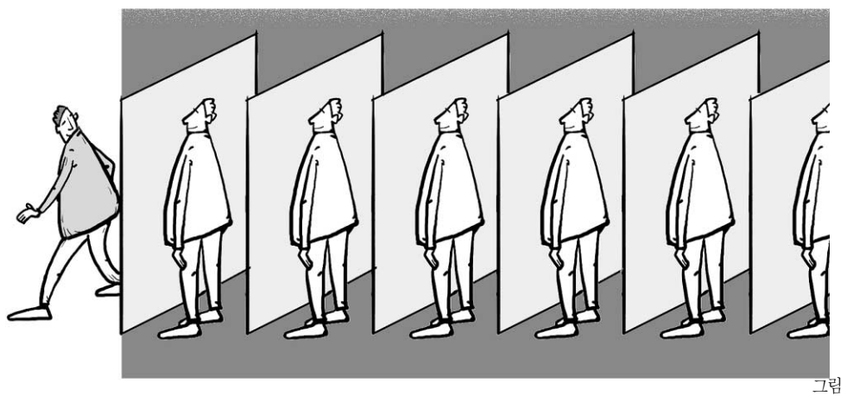
오늘 질문 들겠습니다. '뭐 별것도 아닌데 별것도 아닌 말을 하고 있어.' 이러지 마세요. 별것도 아닌 데서부터 크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림하는 게, 내 몸과 자식들과 부모와 부부가 다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이게 지금 시급한 일입니까?

종교는 어디에 국한돼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림하고 살아나가는 이 진리 그대로

불교에서 그렇게들 하고 다니기 때문에, 외국에 가서 들어보니까 이 불교라는 것은 마구니 소굴이라고, 귀신들이 들끓는 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디다. 그래서 거기다 대고 "그 불교 속에 다 들어 있다." 하고선 그냥 "불교가 어느 한군데에 국한돼 있는 게 아니다! 너희들도 불교 속에 들어 있다!" 이러고는 "당신네들도 기복이야, 전부 기복이야. 여기 이쪽이 귀신이라면 너희들도 귀신이다, 그 마음이. 돌아가면서 가만히 생각해 봐라. 상대를 놓고 빌고 상대를 놓고 기도하는 것은 다 미신이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심정이 좋지 못해서 그런 소리 한 게 아닙니다. 누구나가 다 그럭하고 있으니까 했던 말입니다. 누구나가 다 기복이에요.

기복이라면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는 즐 아십니죠. 이게 한마디로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어느 거든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영계성 유전성 세균성 업보성, 이 모두가 다 그런 형국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림하면서 이 도리를 모른다면 항상 그렇게 돌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불지 못하게 '너는 죽어야 해. 너는 떼어버려야 돼. 너는 여기 없어야 돼.' 이럭하고 만날 떼어버리려고들 드니까 그냥 한시가 바쁘게 일이 생기죠. 만날 바쁘고 만날 괴롭고! 이뿐만 아닙니다. 알지도 못하게 유전성이라는 건 또 오죠. 그러니까 병고가 오든 애고(哀苦)가 오든 어떤 환난이 오든 그 모든 걸 되돌려 놔라. 거기다 놓으면, 불에다가 불을 넣으면 그냥 하나가 돼버린다, 불덩어리에다가 그냥 놓으면 용광로에 넣듯이 그냥 녹


그림 · 최주현

☞22면으로 계속

엎드러진 그 자리에서 그 땅을 짚고 일어나야

☞21면에서 계속

▲질문자1(남): 오늘 설법을 아주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그 동안 의문점이 많아서 질문을 좀 많이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오늘 설법을 통해서 깨달음이 너무 깊었기 때문에 간단한 질문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독교를 몇십 년을 신봉하다가 스님께서 '우리 믿음은 과학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 매료되어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약간은 갈등이 남아 있었습니다만 오늘 설법을 통해서 완전히 믿음을 확고히 다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소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을 믿는데, 우리는 과학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믿음과 신과의 구별이 어떠한지 좀 알고 싶고, 아울러서 오늘 설법에서도 대충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우리 주인공도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큰스님: 이 기독교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요, 자기 하나의 '님' 입니다. 자기로부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찾아라, 하나! 하나의 자기부터 세워라, (손가락을 하나 세워 보이시며) 지팡이를 세워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타의에 있다고 생각하고들 찾는 것은 모두 편집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 성전에. 그러니까 그렇게 나가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나갈 리가 없죠. 예수님도 "나를 믿어라." 이랬지 언제 '타의의 모든 것을 믿어라' 이랬습니까? 나를 믿으라 한 것은 그때 그 시절에 그분은 '모두 각자 나를 믿어라.' 했던 건데 모두 모르고 '자기를 믿어라.' 이러니까 모두 한군데로 몰려서 '예수를 믿으랬다.' 이렇게 아마 잘못된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잘못된 것을 잘 반성하고 고쳐나가면서 이루어야 우리 지구도 성공적으로 가꾸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질문자1(남):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맑은 호수에, 잔잔한 호수에 그림자가 비추듯이 우리 마음이 청정하고 깨끗할 때 불심이 생긴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설법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주인공을 접하는 데 있어서 우리 스스로의 마음가짐, 특별한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인지 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나쁜 짓을 하고 죄를 짓고도 주인공을 찾을 때 주인공이 나를 돌봐줄 수 있는 건지, 그게 아니면 청정한 마음이 생겼을 때 우리 주인공과 접할 수 있는 건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큰스님: 하하하, 이 안에는 자기 자신의 그 업식들, 수십억 개의 의식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목록이 이렇게 다가오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걸로 인해서 잘못되고, 잘못하는 사람들은 그 업식 때문에 잘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못하는 거를 잘 가게 하기 위해서, 반성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를 칩니다, 자기 업식들이. 즉 말하자면 이 공부를 하다보면 자기가 즉 신장(神將)이 됩니다, 얼른 쉽게 말해서. 그렇게 잘못할 때는 신장이 되고 잘할 때는 보살이 되고 또 더 잘할 때는 부처가 되고 법신이 됐다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니까 신장이 될 수밖에. 신장이 돼서 자기가 자기를 칩니다.

그러니까 어디 갔다가도 그냥 탁 치니까 넘어져서 잘못 다치기도 하고 이러는 수가 많죠. 그런데 본인은 그거를 모릅니다. 그거를 빨리 깨달아야 할 텐데 '아하, 이거 타의에 끄달려서 이렇구나.' 하는 거를 발딱 깨우쳐서, 잘못하고 가는구나 하는 거를 다시 가다듬어서 그 누적이 된 거는 잘라버리면서 똑바로, 아까 초심지 잘 일으켜 세우듯 세워서 이렇게 해나가야 이게 빨리 수습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선 그냥 '아이구, 이런 내 팔자야. 이게 이게 나는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아주 자기 잘못하는 건 쏙 빼고 '이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이게 무슨 팔자야? 왜 이런 게 와?' 이러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점 업은 두터워지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 공부를 하다보면, 잘못 했으면 자기가 자기를 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누가 치고 누가 나쁘게 해서 치고 때리고 또 좋게 주고 이러는 게 없습니다. 누가 갖다주고 뺏어가고, 잘못했다고 때리고 잘했다고 상 주고 이러는 게 없습니다.

▲질문자1(남):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졌다가도 그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크게 외치고 찾으면서 열정적으로 기도를 할 때에 그 믿음이 다시 소생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믿음을 다시 돈독히 하기 위해서 어떤 기도가 필요한지요? 또한 아울러서 열정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요. 좀 가르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큰스님: 허이, 여지껏 말씀드렸죠? 기도라는 거, 나는 아주 이름 자체도 없애고 싶다고요. 관(觀)이지! 자기를 자기가 관하는 거지 기도가 아니다! 기도는 상대를 놓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기도가 아니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를 놓고 기도를 해서 그 신심이 돋구어진다 이러는 건 공덕이 하나도 없는 것이다. 이런 건 이익도 없고 공덕도 없고 남을 이익하게 할 수도 없고 나를 이익하게 할 수도 없는 경우다 이겁니다. 그런 걸 오신통에 대해 이런 말이 있죠. 다른 거를 다 알아도 도가 아니다. 목마를 때 물을 줄 수 있고, 생수를 줄 수 있고 내가 목마를 때 먹을 수 있어야 이게 도다, 이게 누진(漏盡)이다 이렇게 말한 거와 같습니다.

▲질문자1(남): 초심자이기 때문에 질문의 차원이 좀 낮았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웃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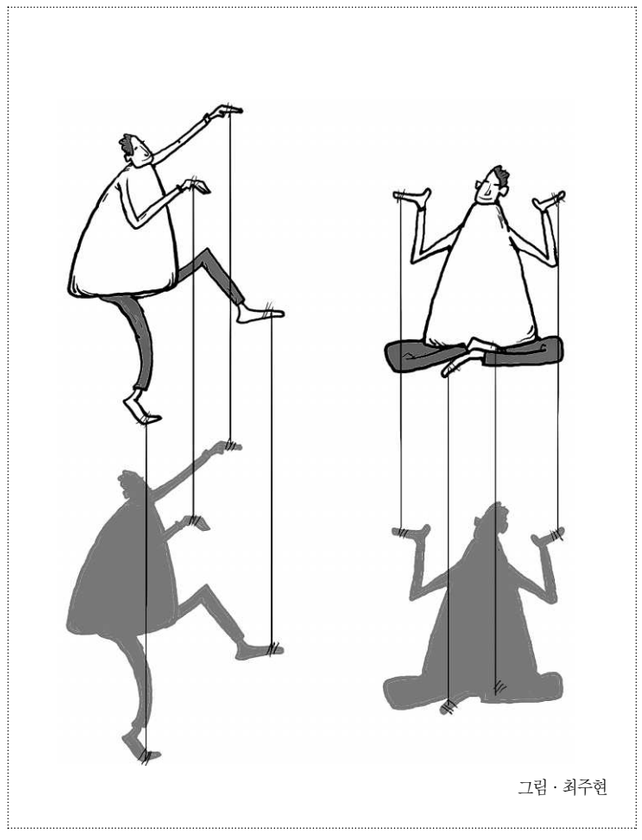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자기가 자기를 관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
상대를 놓고 하는 기도는 이익도 공덕도 없어

▲큰스님: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잘 말해주셨습니다. 그 질문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또 생각할 점이 있고 배울 점이 있으니깐요.

▲질문자2(여): 스님! (울음을 터트림)

▲큰스님: 그냥 우는 걸로 전달을 했으면 그냥 우는 걸로 받아주지.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주변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전이라든가 영계성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오는 게 있다 하더라도 그 생각을 둘이 아니게끔만 하십시오. 둘 아니게 거기다 맡겨 놓는 그 작업을 항상 하시고 본인도 그렇게 하셔야 하고, 또 현실에 먹는 그 음식도 잘 조절해야 하고 그렇습니다.

▲질문자3(여): 저는 다름이 아니고요, 이 육신의 한쪽 다리를 못 쓰겠어요. 아직까지 아파서 고통받는 것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다리가 요새 아파가지고 부었다 빠졌다 이래요.

▲큰스님: 저 내려가셔서 주지스님한테요, 관(觀)하는 도리를 잘 알아가지고 가세요. 그 관하시는 거를 똑바로 잘 하시면 내 몸뚱이 속에서 모든 생명들이 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낫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질문자3(여): 예, 감사합니다. 다름 아니고 한마디 더 여쭙겠는데요, 우리 막내가 형님 놔두고 결혼하는데…, 죄송합니다.

▲큰스님: 이거는 관(觀)하는 데, 관하는 데서 전부 해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시오.

▲질문자3(여): 예. 물어보지도 안 하고 주인공자리에 맡기고 일이 잘 돌아가거든요.

▲큰스님: 그렇게 하세요.

▲질문자3(여): 예, 감사합니다.

▲질문자4(여): 죄송합니다. 이 애기가 우리 딸인데요, 어찌된 건지 남이 좋아라 하는 것도 모르고 나쁘다 하는 것도 모르고 자기 혼자만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거든요. 자식도 있고 남편도 있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의욕심도 없고 어디서 병이 났는지 식구들 자체도 몰라요. 왜 이럴까요? 별의별 짓을 다 해봤는데도, 참 너무 답답해서 먼저 울산 오실 때도 제가 질문 한번 해봤는데요….

▲큰스님: 이거 보세요. 이 업식의 관계라는 것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현실에 나오는 것입니다. 현실에 나오는 것이, 알고 짓는 거는 알고 받게 돼 있고 모르고 지은 것은 모르고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입력됐던 것이 현실에 나오는 것이지 그것이 지금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된 모든 것을 관하는 데 열정을 다해서 거기 되돌려놓도록 하시면, 즉 입력됐던 것에 되입력을 한다면 앞서 입력됐던 것이 없어지는 반면에 그것이 소생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관하는 도리를 똑바로 잘 하고 믿고, 이게 믿는 데 있는 겁니다. 죽든지 살든지, 낫든지 안 낫든지 믿는 거! 이것이 소생을 시킬 수 있는 것이지 '이게 낫는 것만 법이다. 주인공이 낫게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이 주인공에서 그대로, 어린애로 태어나기 이전부터 벌써 그 주인공으로 인해서, 그것도 이름해서 주인공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나온 것이니까 그대로 믿고, 죽이는 것도 거기요 살리는 것도 거기요 잘못되는 것도 거기요 잘되는 것도 거기요, 모든 게 거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러죠. 걸어가다가 엎드러지면 엎드러진 그 자리에서 그 땅을 짚고 일어나야 된다 하는 겁요. 오늘은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위 법문은 대행스님 법어집 『한마음』의 내용 중에서 61호를 발췌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깨끗하게
파룬궁 무료전수안내

물질적으로는 충족하고 삶은 풍요로운 것 같지만 도덕적 정신적인 면에서는 타락과 지쳐가고 있습니다
고도화 된 최첨단 물질문명속에서 정신 없이 바쁜 현대인들, 파룬궁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닦는 수련대법으로서 아무런 댓가없이 당신을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性(마음)을 닦는 방법으로서는 심성제고를 위하여 책 轉法輪을 읽으면서 생활속에서 모든 집착심을 제거하여 우주의 특성(본질)에 동화됨을 최후 목표로 삼고있습니다

命(몸)을 닦는 방법으로서는 5장공법을 연마하며 본공법을 연마시 아주 강대한 功力이 나와 몸이 정화됨이 아주빨라 각종질병 치료에 탁월하고 의도적으로 호흡을 이끌지 아니하고 인위적으로 단전에 기를 모으지 않습니다

전화 주시면 안내책, 연공동작 비디오 테잎을 무료로 배부 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 010-3075-1534
www.falundafa.or.kr

당뇨 하당
국내최초 천연원료로 안전성을 입증한 한방

"당뇨와 미네랄이 만났을때"

▶ 당뇨,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개선에 효과 놀라워
▶ 원재료 : 갈근, 치자, 대계, 계피, 감초, 칼슘, 칼륨
▶ 협행이 개선되며 신체의 이상이 정상이 되며 비만도 해소됩니다.
▶ 하당은 식품으로 먹는 약재만을 사용함으로써 부작용이 없습니다.

참 고
하당을 15~20일만 드셔도 효과가 나타나며 1~2개월만 드시면 병원약(신약)을 먹지 않아도 되고 하당도 3개월부터는 1일 3회에서 1일 2회로 줄여 드시며 6개월 안에는 정상으로 됩니다.
단, 이때부터는 가벼운 운동과 식이요법을 더욱 신경쓰셔야 됩니다.



- 이온성 알카리 미네랄 복합체의 기타 질환에 대한 효과 -
대사성질환자(암, 고혈압, 갱년기종합증세, 류마티스, 신장병, 간염, 간경화, 기관지염, 신경쇠약, 백내장, 관상동맥경화증,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쇠약, 동맥경화, 뇌혈관질환, 여드름, 진선, 백반증, 백혈병, 비염, 구강궤양, 치조농루, 심근병 변비 등) 한방의 처방전과 같이 복용하면 효과가 극대화

천연원료로 안전성을 입증한 한방 생인당 특판부
주문 및 상담전화 : 080-521-6666

관절염에 "글루코사민샥카트리지"
서울대 병원에서 효능A등급 제품으로 선정



Made In U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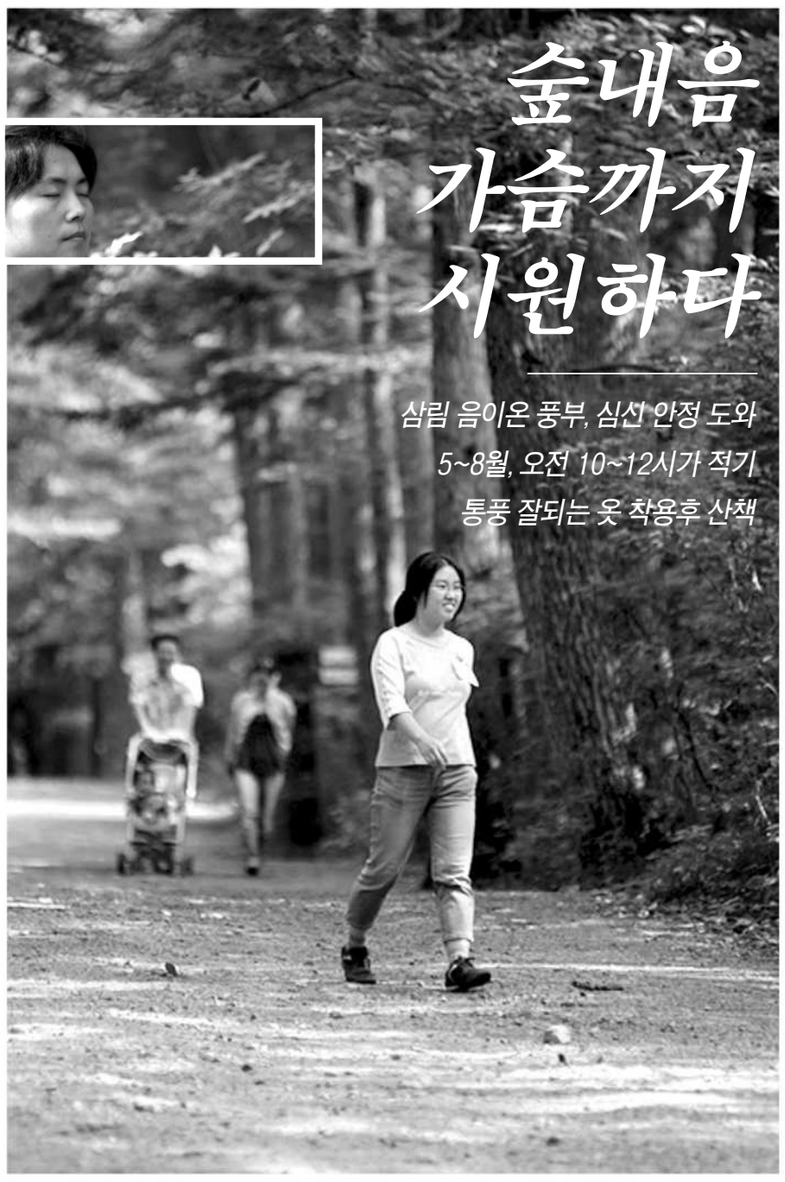
글루코사민 샥카드리지란?
· 미국에서 효능을 인정받은 관절영양제
· 관절치료제인 기존의 글루코사민보다 효능을 높이기 위해 상어연골, 칼슘, 비타민, 아연, 망간 등 관절과 연골의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를 첨가한 복합제
· 이 물질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임상결과 그 우수한 효능발표 - 미국, 일본, 선진국에서도 인정
· 연골의 파괴 효소를 막고 연골을 생성 촉진하는 제제

= 복용시 =
· 2~3주후면 효과발현 시작
· 4~8주면 30~50% 호전 단계
· 6개월이면 90%이상이 만족

주요성분 및 특징
• 제품의 내용량
글루코사민 샥카드리지 180정(2개월분)×3병
• 1정당 성분 및 함량
글루코사민 500mg, 상어연골분말(콘드로이친함유) 400mg, 구연산칼슘150mg, 비타민 C 75mg, 비타민B, 비타민D3, 토코페롤, 아연, 망간 등
• 섭취대상자
- 관절과 연골영양공급이 필요한 노약자 갱년기 여성
- 무릎이 쑤시고 계단을 오르내릴때 불편하신 분
- 관절이 심한 통증과 뻣뻣함을 느낄때
• 관절염이란? 뼈에 영양을 공급해 뼈속이 좋아야만이 낫는 병입니다.

* 글루코사민은 1일 1500mg을 6주이상 지속적으로 섭취하 셔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복용량은 몸무게에 맞게 먹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본 제품은 재정경제부고시(소비자보호법 제12조 제2항)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의거, 교환 또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수입지(원산지) : 미국 수입 완제품
*신용카드 구매 가능

상담문의 : 080-631-4525
부산시 동구 범일2동 830-274번지 세종별관 3층 서부통상



내소사 전나무숲에서 삼림욕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 사진제공=숲연구소

▽ 삼림욕 즐기러면 어디로 갈까

▶**국립광릉수목원**= 자연 그대로가 살아있는 국내 최대 수목원. 숲탐방 · 체험프로그램도 풍성하다. 5일전에 예약을 해야 입장 가능.

▶**오대산 월정사~방아다리약수길**= 월정사 아래 계곡을 따라 이어지는 폭 7~8m의 전나무 숲길은 아름드리 거목의 청량한 기운으로 한여름에도 서늘할 정도다.

▶**강릉 허균생가 마을 솔숲**= 고가 뒤로 우거진 수천 평 아름드리 송림숲이 압권이다. 바닷바람을 이겨낸 소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다.

▶**부안 내소사 전나무 숲길**= 하늘로 찌를 듯이 솟은 전나무 숲길이 장관이다. 내소사 대웅보전 앞 아름드리 보리수 나무, 능가산 암봉 등 주변 풍광도 빼어나다.

▶**대구 달성 측백수림**= 100m를 넘는 절벽에 서 있는 측백나무 숲에는 약 1,000그루의 나무들이 장관을 이룬다. 또한 숲 한쪽에 관음사가 있다.

▶**완도 수목원**= 국내에서 유일하게 자연 그대로를 수목원으로 가꿨다. 다양한 상록활엽수를 만날 수 있다.

▶**강원 삼봉자연휴양림**= 사람의 인공적인 손길이 가미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숲이다.

▶**담양 소쇄원**= 정자문화의 대표적인 곳으로, 정철 등 조선시대 가사문학의 대가들을 만날 수 있을 뿐 아니라 왕대나무숲의 아름다움도 체험할 수 있다.



삼림욕으로 더위 싹~

최근 한 채용정보 회사가 남녀 직장인 1692명에게 올 여름 휴가계획을 물었다. 바다 • 산으로의 여행(32.3%), 해외여행(12.4%) 계획을 제치고 삼림욕(35.5%)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한 숲내음이 주는 청량감 체험이 더할 나위없는 피서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건강지키는 삼림욕에 대해 알아본다.

▽ 삼림욕이 건강에 좋은 이유는

나무가 상처를 입으면 박테리아의 공격을 받는다. 나무는 휘발성 물질을 발산해 스스로 상처를 소독하는데, 이 소독물질을 '피톤치드'라 한다. 숲에서 느낄 수 있는 청량감은 피톤치드와 관계있으며 이를 쐬는 것이 곧 삼림욕이라 할 수 있다.

피톤치드의 효능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몇 해 전 한국임업연구원이 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 쥐에게 전기자극을 주자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가 늘었다. 이어 편백나무에서 추출한 피톤치드가 들어있는 상자에 쥐를 넣었더니 코르티솔의 혈중 농도가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100여개에 이르는 피톤치드 가운데 흥분을 가라앉히는 성분이 함유된 것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숲에는 음이온도 풍부하다. 도심보다 평균 50배 정도가 많은 숲의 음이온은 혈액을 정화시켜주고 신진대사를 도와준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인체의 양이온이 증가하는데, 음이온은 이를 중화시킨다.

▽ 삼림욕의 효과를 높이려면

삼림욕은 5~8월이 적기다. 피톤치드의 방출이 가장 활발하기 때문이다. 흐린 날보다는 맑은 날에, 밤보다는 낮에 더 많은 양이 나온다. 하루 중에는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피톤치드 분출이 왕성하다. 효과적인 시간대에 맞춰 침엽수림이 울창한 깊은 숲 속에서 삼림욕을 시도하면 좋다. 수명이 오래된 나무일수록 피톤치드의 분비량이 활발하다는 것도 유념하자.

삼림욕을 즐기는 비법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지만, 땀이 약간 배어날 정도로 가볍게 걸으며 산책한다. 약간의 피로가 느껴질 때까지만 걷는 것이 좋고 환자의 경우 신체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유의한다. 복장은 통풍이 잘되고 땀 흡수가 빠른 면 소재 옷을 착용하는 것이 좋고, 몸에 꼭 끼는 옷은 피한다. 쉴 때는 복식호흡을 통해 피톤치드를 최대한 깊게 들이마시도록 한다. 강신재 기자

KBS, MBC, SBS, EBS 각종 언론에 방영된
인생역전 김재덕 역학교육원
실력있는 역학인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모집과정 : 수시모집
강 의 : 주 2회(화,수요일)
사주통변이 부족하신 분, 책을 보고 독학하신 분
사주통변이 자신 없는 분
사주통변 및 작명법, 인연법 : 김재덕선생
관상학 (특강 월2회 화요일) : 신기원선생
신청문의 02)567-4833
011-9702-2237

한뜻으로 공부하니 행복해요

우리 가족 이렇게 신행해요 <14>

전청봉 거사네

저린 다리를 슬쩍 펴보기도 하고, 뻣뻣하게 굳은 목을 꾹꾹 눌러보기도 한다. 또 홍수처럼 밀려오는 수마를 떨치고자 가끔씩 몸서리를 치기도 한다. 주말 저녁 철야정진에 참가한 신참자들은 아무래도 힘이 달린다. 억지로라도 화두를 챙겨야겠다 싶지만 저린 몸, 노곤한 정신에 밀려 이내 두 손 두 발 들고 물러나기가 일쑤.

이 같은 철야정진을 30여 년간 꾸준히 이어온 부부가 있다. 전청봉(53) · 이언희(50) 부부가 바로 그 주인공. 전 씨 부부는 백봉 김기추(1908~1985) 거사가 창립한 보림회에서 토요 철야정진을 시작한 이래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정진에 정진을 거듭해왔다. 저녁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진행되는 주말철야참선을 지속하는 동안 이들 부부는 어느새 은산철벽을 마주할 수 있게 됐고, 일주일간 지속되는 철야용맹정진도 해마다 두 번씩 꼭꼭 챙길 정도가 됐다.

"철야정진이 어렵고 힘들다는 것은 선입견이에요. 몸을 나로 알고 살아온 습(習)을 떨치지 못했기 때문이죠. 법신(法身)이 색신(色身)을 굴린다는 의미를 받아들이고, 법신으로서의 나를 놓치지 않고 정진해 보세요. 그러면 공부하는 마음 역시 놓칠 수 없게 될 겁니다."

철야정진이 습관이 되어버렸다는 전 거사. 그런 그에게 보림회의 철야정진이 각별한 이유는 또 있다. 결혼적령기를 맞아 함께할 인연을 찾던 전 거사는 1982년 '같이 불법을 공부할 수 있는 인연, 불법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을 인연'을 가슴에 품고 철야정진에 뛰어들었다. 그렇게 1주일 만에 뜻을 함께 할 이를 만난 것은 우연일까 필연일까. 그리고 부부가 함께 매주말 화두를 쥔 채로 하얀 새벽을 맞은 세월이 30여 년에 이르렀다면, 이후 얻게 된 딸 지영(22)양이 집보다 선원을 더 좋아하는 신실불자로 성장하게 됐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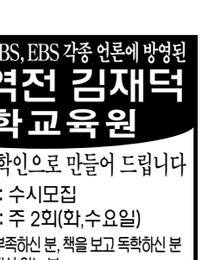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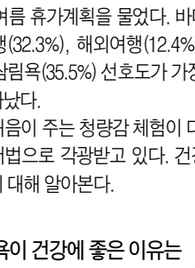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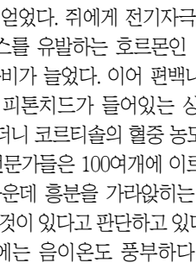
"가족이 같은 방향을 보며 같은 모습으로 수행하니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길이 열리곤 합니다. 닫힌 마음도 함께 열고, 분별의 비늘도 함께 떨어뜨리게 되죠. 요즘에는 산다는 것 자체가 불법공부를 위한 수단이라는 생각을 공유하면서 이후의 삶을 새롭게 준비하고 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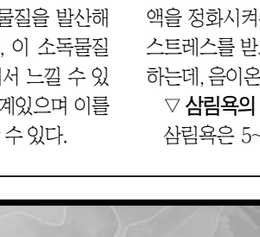
6년 전부터 한 사찰의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전 거사는 훗날 아내와 함께 경남 산청의 보림선원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다. 그곳에서 농사짓고 지내며 "너와 내가 비었는데 말하는 자는 무엇이며 듣는 자는 무엇인가? 만약 오늘 일을 논의하면 문득 옛 때 사람을 잊으리"라는 백봉 거사의 '보림삼관(寶林三關)' 빗장을 하나하나 열어나가는 것이 이들 부부의 포부다.

강신재 기자


보림선원에서 주말 철야정진중인 이언희(맨왼쪽) · 전청봉(왼쪽에서 세번째)부부.

인연찾아 시작한 철야정진 30여년
세식구 모두 삶과 수행 하나로 인식

휴대용 다구(茶具) 출시!
스님, 불자님!!! 가벼운 산행, 성지순례, 대중공양때 뜨거운 물만 있으면 언제나 O.K
싱그러운 차향(茶香)과 건강을 선물하세요.
단체 주문 일 경우 원하시는 로고를 새겨드립니다. ※ 자동차 컵홀더에 사용가능

450ml / CS2001

360ml / CS2002

CP1001

거름망을 탈착 시킬 수 있으므로 찻잎, 티백 등이 분리됩니다. 진공 이중용기라 보온, 보냉이 확실합니다.

고급포장, 미려한 제품디자인. 선물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녹차, 중국차, 티백등 입 맛따라 간편하게 사용되는 휴대용 차도구
(株) 치상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1-2 그린빌 오피스텔 511
TEL: 서울본사 02)3487-0308(代)

법요집·기초교리 集 괘도 재 발간
첨단교육 매체가 다양한 오늘날에도 대중의 일체감과 효율성을 높이는 교육보조재료로는 칠판과 괘도를 활용하는 입체적 교수 방법이 좋습니다. 법사님들의 많은 활용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5월 20일 이후 전국 불교용품점에서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군법당, 경찰서 교도소 등 대중교리 교육이 필요한 곳에 법보시를 하고자 원하시는 불자님들께서 전화주시면 택배로 우송해 드립니다.


■ 법요집
• 삼귀의 • 정근
• 찬양합니다 • 발원 및 축원
• 반야심경 • 사홍서원
• 입정 • 산회가
• 청법가 • 기타찬불가
• 법문
■ 기초교리
1. 불교란?
2. 부처란?
3. 대승과 소승의 차이
4. 사찰에서 쓰는 도구
5. 사찰경내 예법
6. 합장과 반배
7. 고두례
8. 예불문
9. 삼보 15. 사성제
10. 삼귀의 16. 사섭법
11. 삼법인 17. 십이인연
12. 삼업 18. 육바라밀
13. 삼학 19. 팔정도
14. 신도오계 20. 보왕삼매론


■ 기획 : 예맥불교문화원 ■ 제작 : 불교포교자료원 ■ 전화 : 02-772-9052

Btn 불교TV·무상사

세상을 맑게 하는 방송



www.btn.co.kr